2010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 프로그램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13:30 등록

13:35 여는말 **콜린 뒤르코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13:40 인사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3:50 사회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제1마당 | 동 · 서독 통일과정의 교훈

발표 1 : 서독 – 통일 당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

Ulrich Blum 할레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발표 2 : 동독 – 동독주민이 조기통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Lars Hänsel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사무소 소장

토론자 질의 및 응답

토론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차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15:30 휴식

15:50 사회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제2마당 | 예멘과 베트남 통일과정의 교훈

발표 3 : 예멘 – 합의에 의한 통일이 왜 내전으로 이어졌나

Ahmed M. Al-Kibsi 사나 대학교 부총장

발표 4 : 베트남 –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했나

Nguyen Van Khanh 하노이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토론자 질의 및 응답

토론자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조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17:30 토론자 종합 토론 세 나라의 통일경험에서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18:10 닫는말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8:20 폐회

2010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펴낸날 2010년 6월 23일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호 서초 이오빌 빌딩 2층 (우 137-875)
전 화 02-6925-0521
전 송 02-581-4077
staff@peacefoundation.or.kr
www.peacefoundation.or.kr

차 례

04 **여는말** 콜린 뒤르코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06 **인사말** 윤여준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08 **사회자 · 발표자 · 토론자 약력**
14 **발표문**(제1마당)
47 **토론문**(제1마당)
60 **발표문**(제2마당)
80 **토론문**(제2마당)

CONTENTS

92 Opening Remarks
Colin Dürkop | Resident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Korea Office
94 Greeting Remarks
Yoon, Yeo-Joon |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Peace Foundation
96 Brief Profile
101 Presentation

콜린 뒤르코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약 력

1988–현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 일본 사무소 대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방콕사무소,
생트 아우구스틴/독일본부,
싱가폴 아시아사무소 대표 역임
1978–1981 유엔식량농업기구
1982–1988 세계은행 방콕 · 앙카라 프로젝트 참여
1975–1977 인스부르크 대학 경제학 · 사회학 박사

법륜스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오늘 '분단국의 통일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예멘의 통일 과정을 비교하는 매력적인 행사를 준비한 평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오래 시간 동안 분단국으로서의 공통된 운명을 공유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로 지난 30년 동안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바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지정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독일의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아주 인기 있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학자들이 독일에 방문하여 통일을 위한 독일의 노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과 관련한 수많은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다른 여러 사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베트남, 예멘과 같은 사례

들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일로 가는 길에 비록 값비싼 대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에는 한 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통일된 코리아는 이 지역에서 강력한 중견 국가로 재부상할 것입니다.

코리아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준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약 력

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원장
전 여의도 연구소 소장
16대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의 단절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협력의 시대로부터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분단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단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과 대결의 구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가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가버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지난 해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 구상–화해상생통일론'을 제안한 데 이어, 새로운 통일구상을 현실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나라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독일의 아데나워재단과 함께 '분단국의 통일 경험

과 교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베트남, 예멘이 통일을 위해 거쳤던 고민과 모색, 세 나라가 겪어야 했던 좌절과 실패 및 성공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구체적 경험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심포지엄의 발표를 위해서 오신 독일 할레 대학교 경제 연구소 소장이신 울리히 불름 박사님, 동독 출신으로 현재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라스 한셀 박사님, 예멘 사나 국립대학의 부총장이신 알 킵시 교수님, 베트남 하노이 국가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이신 응웬 반 칸 교수님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의 콜린 뒤르코프 소장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박명규 소장님과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조성렬 박사님, 이영훈 박사님, 김병로 교수님, 박정원 교수님, 조재현 교수님, 홍성민 교수님, 오늘 통역해 주시는 김세정, 최문선 통역사님, 밤새워 실무를 준비해주신 평화재단 임원과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틀 뒤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지혜를 얻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발표자 · 토론자 약력 ●

*발표순서에 따라 싣습니다

사회 | 박명규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전 미국 UC Berkeley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발표 | Ulrich Blum

현 Halle 대학 경제연구소 소장
전 Bamberg 대학 교수
Montreal 대학 초빙교수

발표 | Lars Hänsel

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 사무소 소장
전 아데나워 재단 독일본부 미국, 서유럽 국장
아데나워 재단 독일본부 아시아국장(서부, 남부, 중앙)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 사무소 부소장

토론 | 조성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북한연구학회 이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 실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토론 | 이영훈

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초청연구원

토론 | 김병로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및 북한연구소 소장

사회 | 권영경

현 통일교육원 교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통일경제분과위원장
경기도 북부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팀 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교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발표 | Ahmed M. Al-Kibsi

현 사나 대학교 부총장
사나 대학교 경제상업대학 정치학부 전임교수
전 사나 대학교 경제상업대학 정치학부 연구교수

발표 | Nguyen Van Khanh

현 하노이 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전 하노이 국가대학교 사회과학과 역사학 협동교수 · 부학장

토론 | **박정원**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회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토론 | **홍성민**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종합경제연구원 원장(부설 중동경제연구소장)
한국예멘교류센타 회장
국립경찰대학교 외래교수

토론 | **조재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아시아 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소장
한국 베트남학회 회장

2010 평화재단 국제 심포지엄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 발 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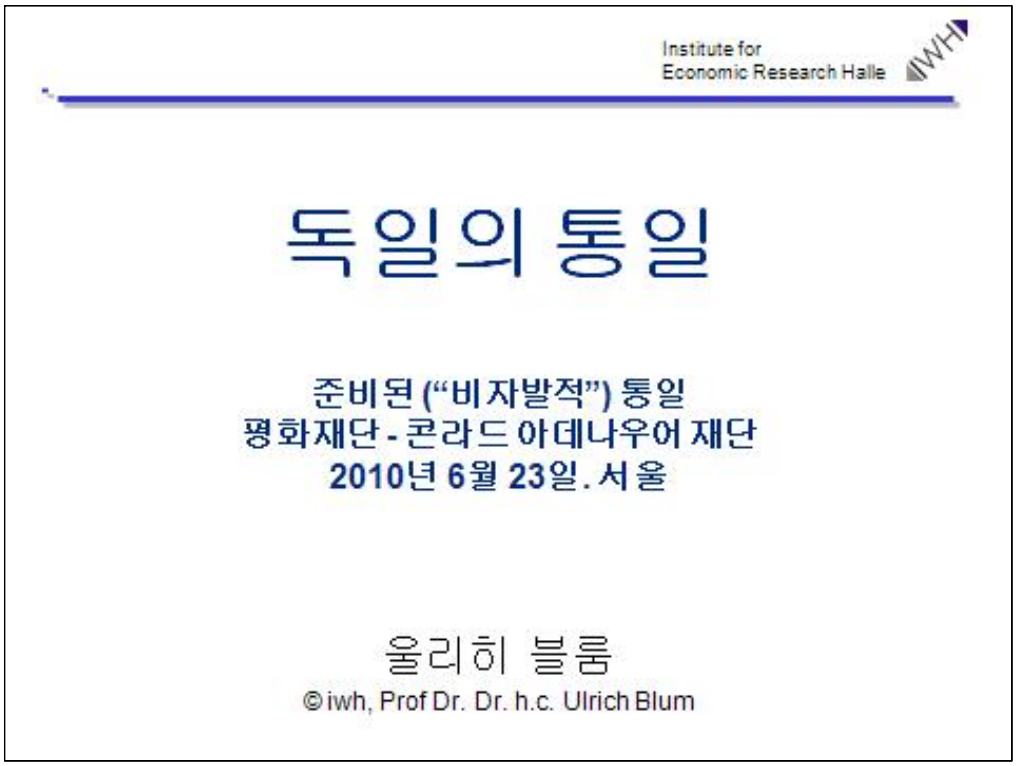
[서독] 통일 당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

Ulrich Blum 할레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발 표 1

[서독] 통일 당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

Ulrich Blum 할레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배울점 1

독일의 통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함

- 세계 제2차 대전의 반향
- 1민족, 2국가, 아주 짧은 "열린 기회"
- 대량 이주, 경제적 자원 양도, 자산 평가 절하
-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 동독의 새로운 기술의 길

6/21/2010 PF_KAS, 23.6. 2010 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배울점 2

- 다른 중앙/동유럽에서 일어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행과정
- 그 결과, 실패와 성공이 매우 근접함. 그리고 통일 이전의 준비는 전무했으나 그 이후에는 매우 집약적이었음

6/21/2010 PF_KAS, 23.6. 20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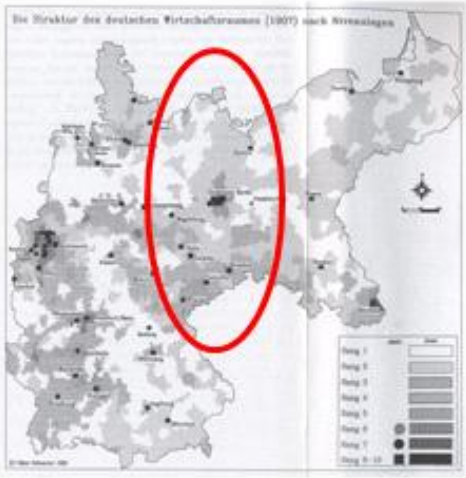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제 1부:
통일 이전의 상황

6/21/2010 PF_KAS, 23.6. 2010 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100년전 독일의 부



- 중부 독일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음!
- 이는 30년대에 들어 변하기 시작
- 왜 (경제 실수만 있고) 경제 기적이 전혀 없었나

6/21/2010 PF_KAS, 23.6. 2010 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1989년 전의 심각한 실상

- 전쟁의 결과: 1945년의 상태
- 공산주의와 재산몰수, 1946-1949 ; 1972-1974
- 경쟁: 1981 / 1988 국제수지 위기

6/21/2010 PF_KAS, 23.6. 2010 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서독 국민총생산에 대한 동독 국민총생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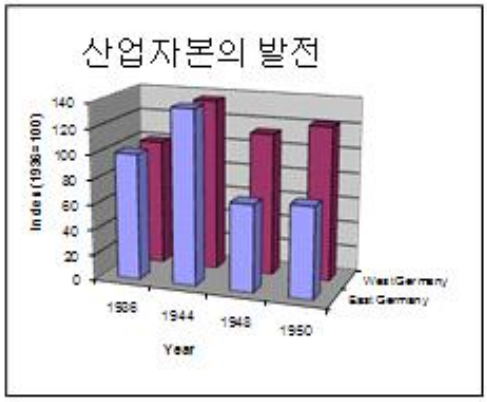
Source	Year	pcGNP	Source	Year	pcGNP
DIW	1980	68%	CIA	1985	102%
World Bank	1980	53%	CIA	1986	76%
Maurer	1980	43%	Filip-Köhn/Ludwig	1988	57%
Summers/Heston	1980	80%	GDR	1988	78%
DIW	1983	76%	Ehrlich	1989	70%
Klinkmüller	1984	43%	DIW	1989	53%
GDR	1984	93%	Merkel/Wahl	198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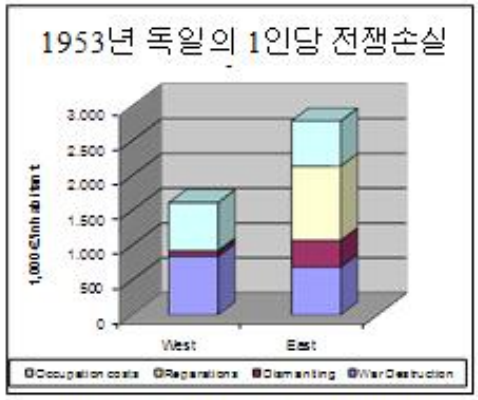
Table accumulated from Wegener (1995, p.45)

6/21/2010 PF_KAS, 23.6. 2010 7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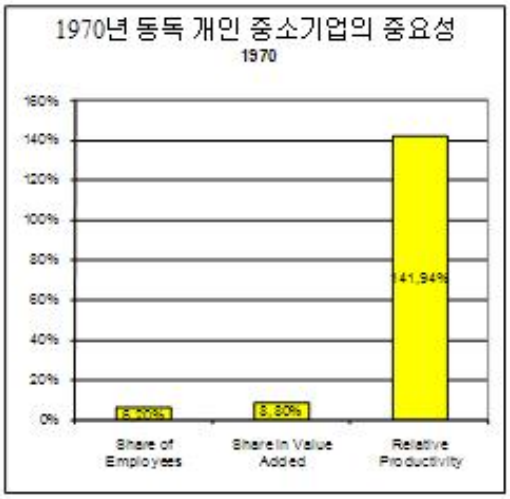


동독의 비교열위는 전쟁 이후부터 시작됨!

6/21/2010 PF_KAS, 23.6. 2010 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역사적 기준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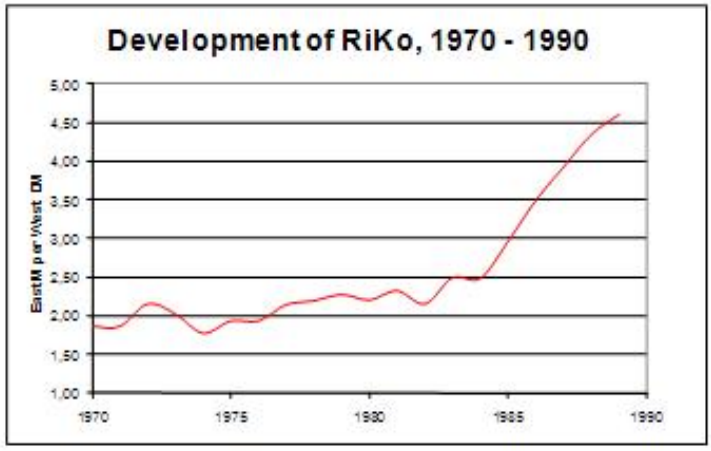


- 동독의 국제적 경제활동은 중소기업에 심히 의존적
- 재산몰수로 인해 1980년대에 최초의 수출위기가 닥침

6/21/2010 PF_KAS, 23.6. 2010 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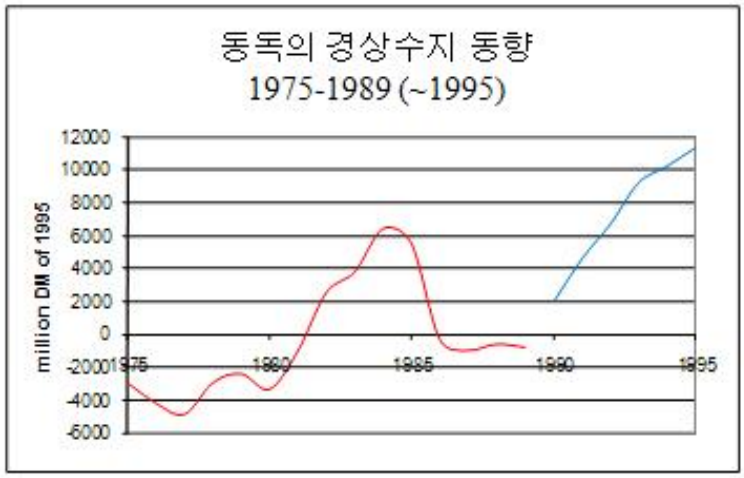
대외수출입지가저하됨



6/21/2010 PF_KAS, 23.6. 2010 1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경상수지: 제자리걸음



6/21/2010 PF_KAS, 23.6. 2010 1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저열한 산업기반

- 2차대전 후 독일과는 반대로, 산업자본이 현대적이지 않았음
- 2차대전 후 독일과는 반대로, 산업구조에 경쟁력이 없었음. 특히 지나친 수직적 통폐합으로 인해 더 그러했음.
- 2차대전 후 독일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가치"에 전혀 능숙하지 않았음. 사기업화의 방식과 "경제개선"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

6/21/2010 PF_KAS, 23.6. 2010 1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제 2부:

통일을 향한 두 가지 합헌적 길

6/21/2010 PF_KAS, 23.6. 2010 1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비상사태대책 1

- 10 지점 계획
- 2+4 대화
- 통화, 경제, 사회적 통합 : 1990년 3월 ~ 7월
- 정치적 통합
  - 자유선거 1990년 3월
  - 통일 1990년 10월

6/21/2010 PF_KAS, 23.6. 2010 1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비상사태대책 2

- 제23조: 가입(가맹)
- 제146조: 공동 새 헌법

새 접근법의 선택

- 실용적인 이유로 인해
- 법적 지위의 문제들 – 1990년까지 "동독 지방들의 임시적 지위"

6/21/2010 PF_KAS, 23.6. 2010 1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제3부:
통일을 향한 두 가지 합헌적 길

6/21/2010 PF_KAS, 23.6. 2010 1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1989년 이후의 심각한 실상

- 부의 양도와 "더치 병"- "단일 국가"지위가 불러온 경제의 부수적 손실
- 산업기반 및 혁신 시스템의 붕괴
- 민주적인 "고갈"
- 재산권 혼란

6/21/2010 PF_KAS, 23.6. 2010 17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1989년의 구조조정 문제

- 어떻게, 무슨 자원으로, 무슨 근거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위한 사회적 조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지역적 전통 ("사회적 환경")가 "최후의 자원"인가?
- 만약 인구유출과 투자유입이 시스템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6/21/2010 PF_KAS, 23.6. 2010 1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정치 안정

- 독일 연방 시스템의 두 기반을 설립: 주(州)와 지역공동체
- 제대로 기능하는 입법, 사업, 행정부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구조적 지원

6/21/2010 PF_KAS, 23.6. 2010 1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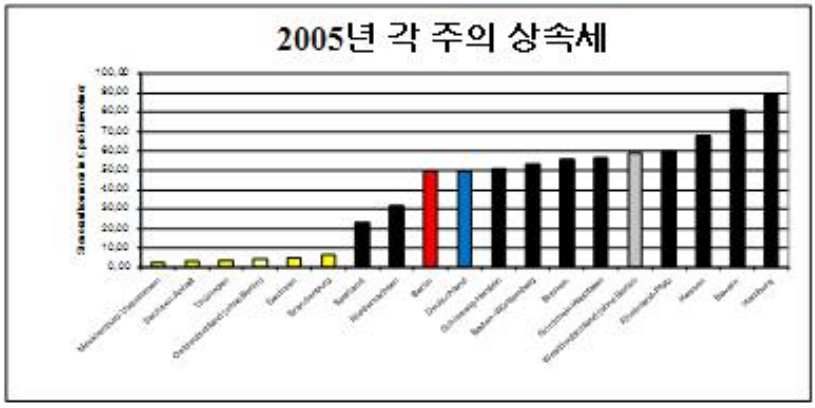
경제 안정

- 재산권 재조정
- 회사 합병/구조조정보다는 사기업화를 우선시
- 회사 매입자에 대한 정부의 대량 보조금 지원
- 사회안전기금의 이전

6/21/2010 PF_KAS, 23.6. 2010 2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허약한 재산권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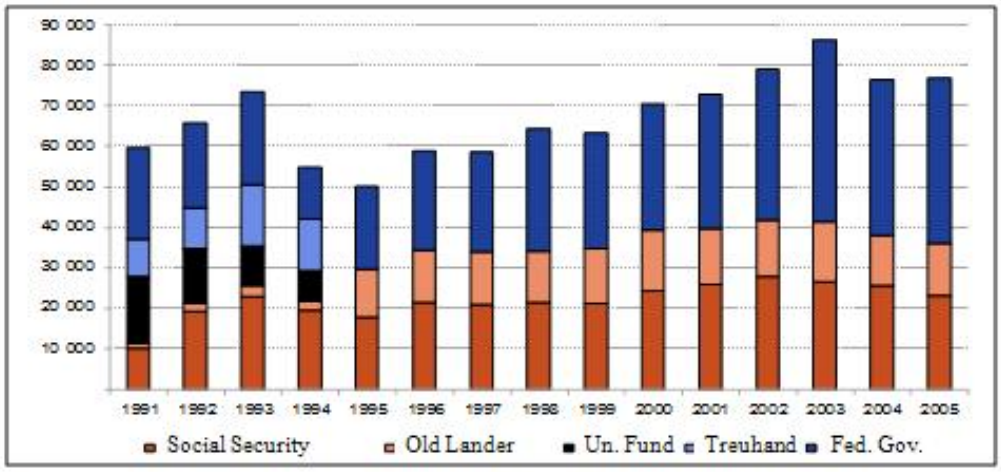
- 독일 정부와 외국인 투자가의 몰수로 인해 내적 소유 구조가 축소. 이것은 시민 사회에 짐이 됨

6/21/2010 PF_KAS, 23.6. 2010 2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양도활동

백만 €



6/21/2010 PF_KAS, 23.6. 20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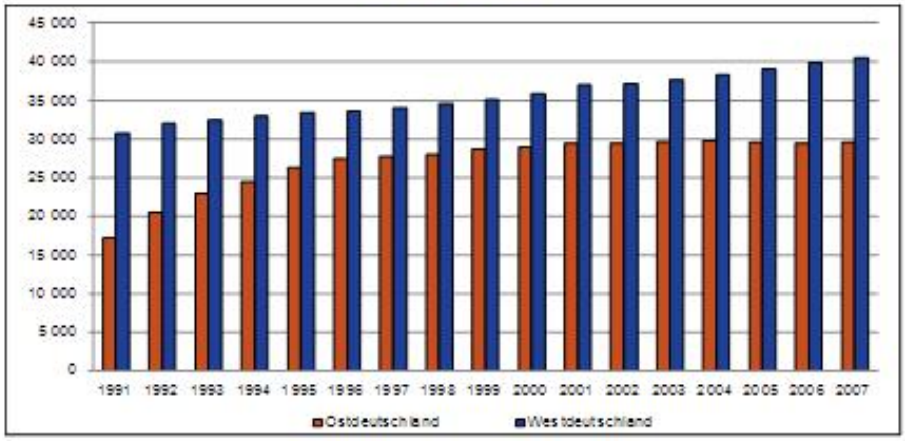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제4부:
동독의 기술

6/21/2010 PF_KAS, 23.6. 2010 2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가용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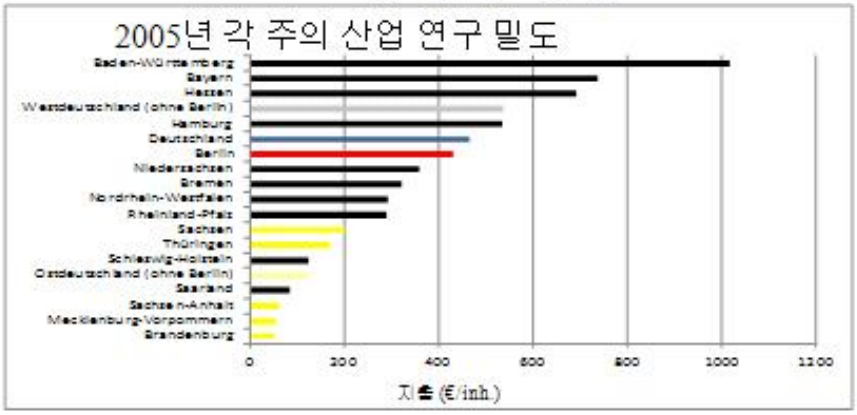


왜 생산성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가?

6/21/2010 PF_KAS, 23.6. 2010 2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R&D 차이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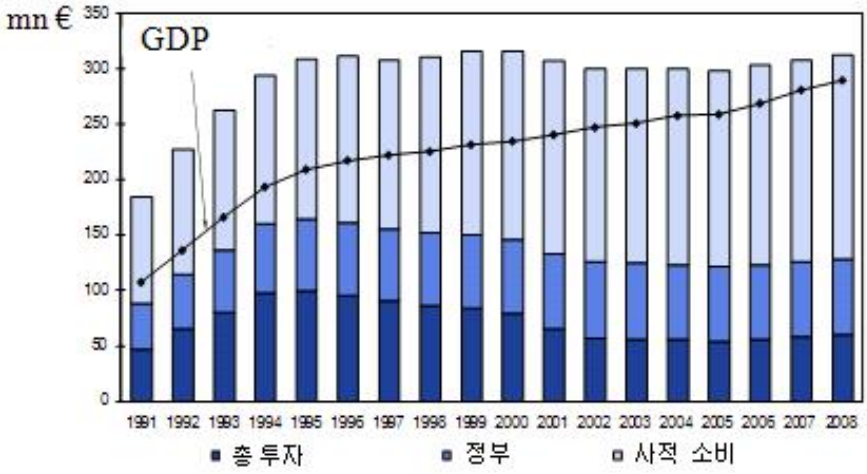


- 충분한 사적 R&D 창출이 매우 필요함
- 그러나 서쪽 몇몇 지역은 상황이 더 나쁨!

6/21/2010 PF_KAS, 23.6. 20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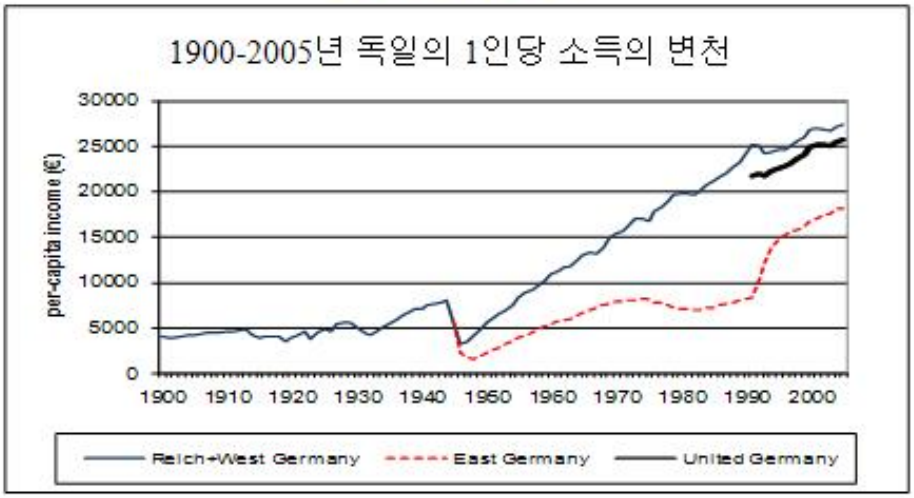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동독의 수요와 공급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장기적 전망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어떻게 불행을 성공으로바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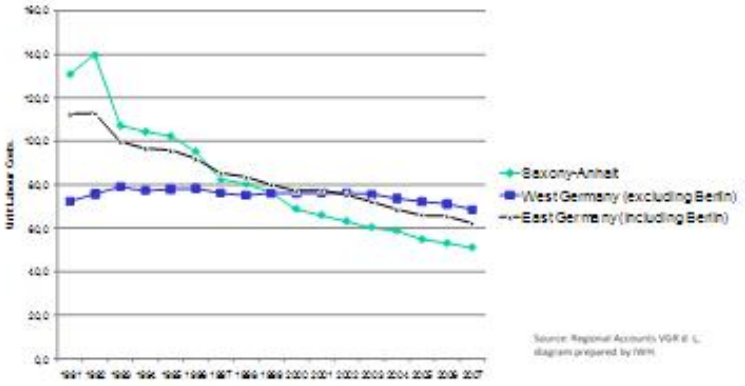
- 어떤 타입의 성장
- 단위노동 비용과 경쟁력
- 무엇이 구속적인 제약들인가?
  - 기반시설
  - 인적 자본
  - 기술
  - 투자
  - 시장 구조 / 기업가 정신

6/21/2010 PF_KAS, 23.6. 2010 2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경쟁력을위한 경쟁

제조부문 단위노동비용 =
(제조부문 노동자 당 노동 수입/ 제조부문 노동자 당 생산된 부가가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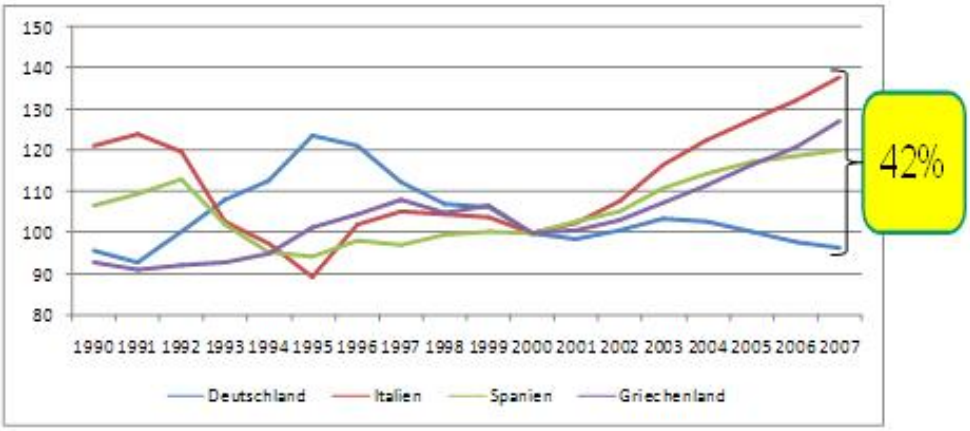


21.06.2010 PF_KAS, 23.6. 2010 2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전세계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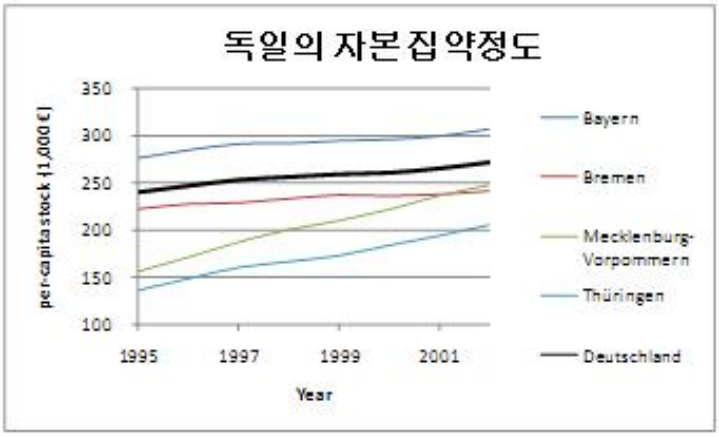
공산권 붕괴 이후 유럽 제조부문 단위노동비용의 큰 격차!



6/21/2010 PF_KAS, 23.6. 2010 3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정체의 이유는 자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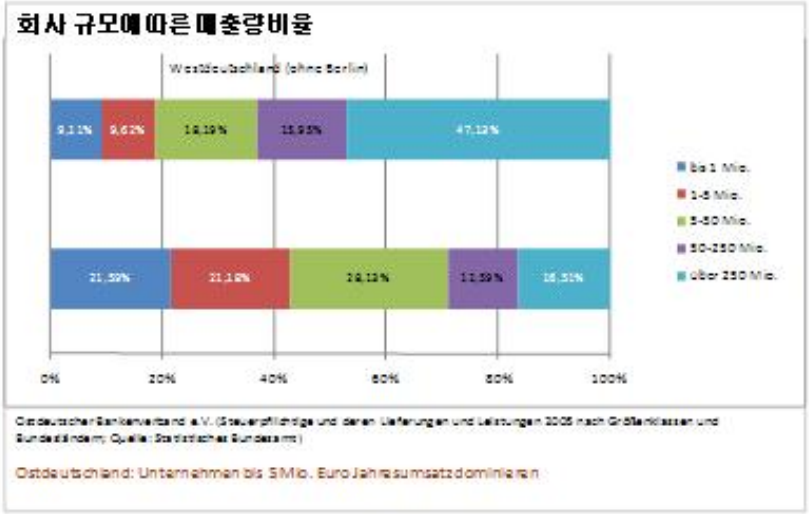


동독에는 30%정도 GVA를 내는 본사가 별로 없다

6/21/2010 PF_KAS, 23.6. 2010 3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그룹 구조와 본사 문제



21.06.2010 PF_KAS, 23.6. 2010 3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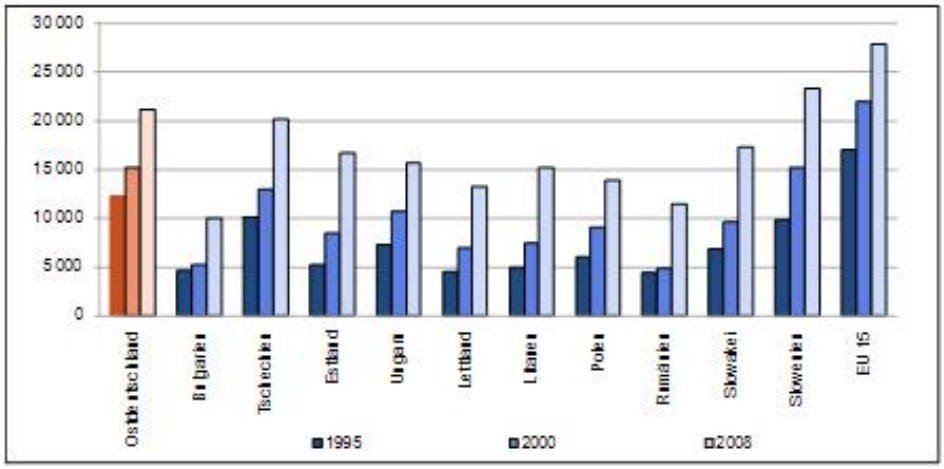
어떤 종류의 경제?

산업 종류	본사	재정 서비스	GMEs	중산층	기술 리더쉽
• 조기 산업화					
• 만기 산업화	√	√	√	√	√
• 체제이전 후	(√)				
• 떠오르는 시장	(√)	(√)			√

6/21/2010 PF_KAS, 23.6. 2010 3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무엇에 비교한 성공인가?



6/21/2010 PF_KAS, 23.6. 2010 3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무엇을 할 것인가?

- 시간이 더 필요 (제 1세대?)
- 국제적 중소기업들의 확장을 지원
- 성공적인 회사의 국외 유출을 방지
- 소유 구조 개선
- 동부 국가들의 새로운 비교우위를 사용
- 새로운 기술 궤적의 안정화

6/21/2010 PF_KAS, 23.6. 2010 3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배울점?

- 코리아는 (차이가) 더욱 극단적이므로 시간이 더 필요함
  - 정치적으로
  - 경제적으로
- "정치적 갈등"은 악몽인가?
- 성공의 섬이 될 경제특구를 더 조성?
- 기존의 R&D를 안정적으로 유지
- 재산권 규정을 준비할 것

6/21/2010 PF_KAS, 23.6. 2010 36

● 발 표 2 ●

[동독] 동독주민이 조기통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Lars Hänsel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사무소 소장

발 표 2

[동독] 동독주민이 조기통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Lars Hänsel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사무소 소장

Ⅰ. 서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이다. 나는 동독에서 자랐고 20년 전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던 당시엔 22살이었다. 만약 1988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한 단체[1]를 대표하여 서울에서 강의를 할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미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퇴직 전에 내가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퇴직 이후에만 나라를 떠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우리가 퇴직 이후에나 영원히 떠나, 연금에 대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자유가 실현되었다. 나는 22년 동안 부자유와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물론 나와 같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니다). 따라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일에 몸담는 것은 단순히 나의 직업일 뿐 아니라, 나의 경험과 관련해 가슴 깊이 우러나서 행하는 어떤 것이다.

오늘 나의 발표는 역사가로서의 입장도 아니고, 비판적・학술적인 시각에서 논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나는 나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1989년 독일 혁명과 공산 동독 시절에 대한 기억과 회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미리 언급할 것은, 내가 남한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때문에 독일과 남한의 상황

1) 동독 공산당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원수였던 콘나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이름을 따고, 전 세계 100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단체

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독일의 어떤 면이 남한에 특별히 도움이 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남한에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 독일에는, 동독은 물론 서독에도, 그런 부서는 없었다. 그나마 서독에는 '통일'이라는 말이 정치적 수사어로 존재했지만, 아무도 독일의 통일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후에 나는 독일에서 왜 그러한 준비가 부족했는지, 동독과 서독 양측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논의할 것이다.

나는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감사하게 받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그에 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발표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동독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통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사회적 관점에서 동독인들에게 서독은 어떻게 보였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동방정책(Ostpolitik)"과 같은 서독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과연 서독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을까? 물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산 체제 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 나는 공산 체제 하의 삶(주로 80년대)에 대한 나의 관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서독은 단순히 다양한 욕구와 소망을 투사하는 스크린은 아니었다. 서독은 통일의 대상이라기보다 하나의 롤 모델이었다. 냉전의 위협이 존재했던 80년대의 사람들에게 통일은 관심권 밖의 일이었다.

두 번째로 나는, 1989년과 1990년 혁명 시절과 선거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싶다. ① 1989년의 부정선거로 인해 그해 여름과 가을에 공산 체제가 약화되었다. ② 통일을 위한 첫 번째 자유선거는 과거 체제를 종식시켰다. 이때, 독일의 통일 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통일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의문으로 남았다.

여기서의 나의 주된 요지는 처음에는 통일이 최우선적인 대안은 아니었지만, 동독 내외의 발전으로 인해 곧 유일한 실재적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과거의 집권 공산당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는 저항 운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통일에 대한 동기는 자유로의 갈망이었으며,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1) 자유의 결핍

동독에서의 삶은 많은 제약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독에서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서독에 대한 선호의 원인은 동독 안에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함께 공유했던 역사가 있고 분단의 경험도 있었다. 분단이 정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은 그 상황에 타협해갔다. 물론 독일이 언젠가 통일을 이루길 희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말로 믿지는 않았다. 이러한

희망은 서독보다는 동독에서 더 강렬했다. 한편, 서독의 지도자들은 독일의 통일에 대해 여러 번 공언했지만(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었다), 동독의 공산당은 이 개념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통일에 대한 믿음은 아무에게도 없었다. 일반대중들이나 정치지도자들도 독일이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동독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동독 국민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공산당 치하의 동독은 어떤 주요한 제약들은 받았을까? 내가 그에 묘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 가지 요소와 예를 들 수 있을 뿐 실제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나는 여기서 체제 시스템에 대항했던 조직적인 항거나 사람들을 위협했던 비밀 활동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대신 "보통 사람들"의 몇 가지 경험들, 즉 광범위하게 퍼졌던 사회 불안과 불만족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교육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격려하거나 자존적 인간을 육성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교육은,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비춰졌다. 사람들은 당시 집권한 공산당 SED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주의(doctrine)'를 수용하고 내면화해야 했다. 학교나 국가가 관할하는 "개척자" 혹은 "FDJ/자유독일청년"과 같은 청년 조직 회의에서 교사와 직원들이 "공동의 의견을 찾기 위한" 정치적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의견들은 이미 당에서 결정된 내용이었다. 어떤 일탈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이는 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종 처벌되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분열적 상황을 유발시켰다. 사람들은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보다, 집에서 좀 더 다른 의견들을 말할 수 있었다. 당과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특정한 결과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의 고발과 비밀경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느낌과 동시에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감히 나서서 말할 수 없었다.

학교 시스템의 역할, 더 나아가 대중 조직의 역할은 대개 공식적 '주의'가 모두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산당 대중 조직 이외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에는 이러한 역할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왜 교회와 청년들의 활동이 공산주의 교육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졌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교회의 청년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다. 그곳은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물방울 같은 곳이었으며, 내가 안식을 느끼고 주입 당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자유 공간마저 없었다면, 나는 더욱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처럼 자유가 결핍된 삶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대중 조직에 참여하는 일은 의무이자 자동적인 과정이었다. 공산당 청년조직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반동분자의 일원으로 만들고 당신의 이력에 부정적 결과를 새기는 일이었다.

청년개척자(FD), 자유독일청년(아무것도 자유로운 것은 없었지만), 나중의 SED나 명목상의 다른 정당(우리는 당의 시스템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과 같은 대중조직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나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그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 중 하나였지만 진급이 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FDJ 그리고 나중의 SED에 가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당의 시스템을 믿고 확신하며 대중조직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청년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내가 그 '주의'를 믿어서가 아니고 토론에 참여해서 공식적인 "세계관"과 다른 나의 논지를 주장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당시의 상황은 자신의 의견과 확신을 고수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분열적 상황과 자기 결정의 문제를 일으켰다.

(나의 이야기: 자기 결정의 부족, 기독교 집안에서 자람, 당에 대한 반대세력이자 기독교인으로 차별 당함, 의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건설병사"로 무기 없이 군복무를 수행했기에 거부당함. 이는 합법적이었지만 불충한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기술이 전공 가능한 유일한 학문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었지만, 그 중 몇몇 국가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조직된 여행만 가능했다.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이 동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란드로 가는 국경은 80년대 초에 폐쇄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아주 작을 수밖에 없었다. 남한은 그 당시 내 지구의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을 한 후에나 사회주의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서독이나 다른 서구 국가를 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또 다른 문제는 동독의 화폐가 서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 퇴직 후 외부 세계를 여행한다고 해도 어딘가로 갈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었다. 나의 조부모가 서독을 여행했을 때, 그들은 거의 서독에 살고 있던 친척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 그나마 친척이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자유의 결핍은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의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은 동독에서 금지되었다. 책을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고 대다수의 책들이 금지되었다. Orwell의 『1984』과 솔제니친의 『강제노동수용소(Archipel Gulag)』와 같은 책들을 학교책상 밑에서 주고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독 공산당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국민들이 오직 공식적인 '주의'와 서술만을 접촉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른 의견이나 역사적 서술 등을 접하여 그로 인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했다. 일견 이는 아주 온정 어린 시각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보호되어야만 했으니까! 다른 중요한 경험들은 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상점 앞의 긴 줄이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었다. 그것은 불법이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은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여 받아, 자영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했다. 내 조부모는 도매회사를 운영했는데 결국 문을 닫고 그 동산을 공짜로 내놓아야 했다.

이처럼 80년대 동독의 특별한 상황은 모든 사회에서 "무기력"증을 가중시켰다. 그중 한 예는 환경 문제이다. 동독에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공적인 장소나 대중조직에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주제를 논의할 토론 그룹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환경문제는 이런 주제 중 하나였는데, 인권운동가나 저항가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었다. 80년대에 사람들은 정부차원에서 산림, 대기오염, 호수와 하천의 오염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선동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정부정책의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였다. 내 고향인 Bautzen은 수세기를 이어온 지역이었는데, 공산 정부는 마치 수세기 간 파괴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적 건물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장인(匠人)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황 속에서 타협해 갔다. 또한 수도 베를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강제 이주 당하기도 했다. 때문에 베를린에 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이 상황과 타협해갔지만, 대부분은 이 시스템과의 불일치와 체제상 오점들을 발견했다.

나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① 타협 (대다수의 사람들) : 게임을 즐기고, 입을 다물고, 성공을 위해 당원이 되고

② 틈새 물색 : 교회, 내면으로의 철회, 여행을 위해 퇴직 희망 등

③ 저항과 시민 권리 그룹 :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저항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④ 합법/비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남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2) 동독에서 바라본 서독

서독은 동독에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서독은 "자유 서방"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서독의 주된 매력은 바로 자유였다. 여행의 자유, 소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 서독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동독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나라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서독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최소한 왜 서독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서독으로의 이민에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죽기도 했다(1,300명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가 죽었다). 또 다른 이들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80년대 서독은 불법적으로 한 죄수 당 100,000 독일마르크(50,000유로에 해당)를 지불했다(내 숙모의 경우이다). 물론 합법적인 이민도 있었다. 누구나 이민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승인을 얻는 데에는 종종 수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이민 신청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대중매체는 서독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지도층들은 그들의 선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서독 대중매체에 동독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서독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은 동독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서독 TV를 시청할 수 없는 곳 출신이다. 왜냐하면 아주 동쪽에 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지역은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계곡"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나는 동독의 소수집단에 속했다.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없는 이 지역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떠나기 위해 지원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사람들이 매일 서독의 발전상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서독을 더욱 더 이상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독의 대중매체는 정보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간단히 말해 오락적인 요소도 강했다. 한편 TV 시청이 가능했던 많은 사람들도 서독을 이상화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며, 서독이 직면한 문제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서독이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었을 뿐, 사람들이 서독의 구체적 상황이나 생활 조건을 열망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서독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모든 사악함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위협은 동독이 인권을 억압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였다. 이쯤에서 나는 서독으로 이주했으나, 서독에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중매체는 소요 사태의 증가와 궁극적인 평화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이프치히(독일 동남부의 도시)에 있었던 거리 시위 이후, 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와 이에 대한 내용을 저녁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나는, 어떻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또 다른 중요 요소는 가족관계였다. 서독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특권층에 속했다. 서독에 있는 친척들은 중요한 자산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책이나 다른 대중매체를 보내주므로), 동독에서는 부족한 소비물품들을 구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해진 이후, 동독에 소비물품을 보내주는 친척의 존재는 많은 이들의 생활수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자영업을 장려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오직 서독의 마르크만으로 구할 수 있는 배관공이나 기계공 혹은 목수들이 아주 많이 부족해진 까닭에 서독의 친척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돈 또한 중요해졌다.

서독은 문화적인 이유에서도 매력적이었다. 청바지나 락음악, 팝음악, 그리고 청소년 문화(심지어는 언어까지)는 동독의 롤 모델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리바이스 청바지가 꼭 동독의 패션보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자유 세계의 상징이었다.

Ⅱ. 본의 "동방정책 (Ostpolitik)"

빌리 브란트 총리 체제 하에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 연합정부의 '동방정책'은 서독과 동독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민주당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나가며, 사실상 통일에 대한 비전을 포기했다.

이 "긴장완화정책"의 주요소는 1972년 3월의 잠정합의, 그리고 1972년 11월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 동독과의 기본조약이었다. 사회민주당의 동기는 서독이 국제적으로 온전한 주권을 갖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독일이 유엔의 회원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과 빌리 브란트의 정책은 CDU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CDU는 이를 미래 통일을 지향하는 독일 헌법에 대한 배신행위로 보았다 (아주 흥미롭게도, 1968년 동독의 헌법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다.) CDU는 데탕트(긴장완화) 정책이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고 안정시킨다며 이 정책을 비판했다.

사회민주당의 "동방정책"은 동독에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주는 길이었기에, 동독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따라서 이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동독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물론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은 서구의 지도자들과 공산 체제의 공식적인 회의가 공산체제를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정당성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자유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도록 압박 받기를 원했다. 정당성의 대가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나는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부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동방정책은 짧게는 동독의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반면, 길게는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서 양면적인 가치가 있었다. 이 동방정책은 독일의 분단을 동독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 당시 동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독에서는 먼 미래의 독일 통일에 대한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일반적으로, 동독체제는 비밀경찰뿐 아니라 소비에트 연합의 지지로 인해 아주 견고해 보였다. 동독은 냉전시스템의 한 부분이었다. 냉전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통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고르바쵸프의 개방정책과 개혁정책으로도 이것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오직 소수만이 더 많은 자유와, 독일 및 유럽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편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은 그 당시의 독일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대나 바람도 주지 못했다. 물론 에리히 호네커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헬무트 콜은 독일이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는 그의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동독의 누구도 조만간 통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차라리 더 많은 자유를 위한 변화와 단계적인 절차의 진행을 보고 싶어 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꼭 통일이라기보다 자유를 열망했다.

평화적 개혁과 베를린 장벽 붕괴의 시간 동안 통일을 향한 자세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개혁이 진행되는 처음 한 달 동안에도, 통일을 향한 열망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지 개발을 위한 추진력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은 통일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나는 통일을 향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언급하고 싶다. 고르바쵸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과 그 운동을 지지했던 폴란드인 교황 요하네스 폴 2세, 헝가리의 변화 등 독일 밖의 많은 요인들이 독일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독 안에서는 소요사태의 증가와 사회 불만족, 경제의 하락과 반대세력의 부상과 같은 많은 내적 요인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끌었다.

나는 여기서 1989년과 1990년대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① 1989년 : 선거, 이민 물결, 그리고 대량의 거리시위 ② 1990년 : 통일을 이끈 첫 번째 자유선거.

(1) 1989년 : 선거, 이민의 물결, 그리고 대량의 거리시위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도력을 국민들로부터 정당화하기 위한 계획을 시도했다. 선거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오직 SED와 그 대리인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SED의 주요 역할은 헌법 제1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될 수 없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부정선거는 흔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대부분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다.

지지자의 숫자와 공식적인 지지도는 놀랍게도 100%에 달했다. 어느 누구도 이 숫자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에 변화가 있었다. 반대그룹과 시민권리 단체 등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선거 기간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와 정부의 법 위반 사실을 폭로했다. 부정선거의 폭로는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반대세력은 점점 강해졌고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차 거세졌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체제가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되었다.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한 사람들의 수와 공산주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의 수는 1989년 급상승하였다.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고, 또한 모욕을 당해야 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즉시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좌천되어야 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전원 취업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범죄로 간주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이민을 원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동독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안식을 찾았다. 이따금 교회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점차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이 단체는 포스터와 표지를 들고 교회 밖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독일의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도층에 큰 압력을 가했던 '라이프치히 대규모 거리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1953년 이래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시위에 참여할 용기를 냈다. 1953년의 대규모 시위는 공산체제와 소련의 탱크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이후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것은 "우리는 결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형성했다.

동독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리히 호네커가 1989년 10월 18일자로 사임했다. 그의 후임자 에곤 크렌츠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언급과 천안문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방법"을 지지함으로써 강경론자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진압이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시위에 참여할 용기를 냈다. 특히 10월 9일의 시위(크렌츠 집권 이후 첫 번째 시위)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1989년 가을, 매주 월요일마다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이 시위에 참가했다. 특히 10월 9일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대와 경찰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집결했다. 호텔은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탱크 트럭에는 시위자에게 분사할 페인트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는 시위자를 더 쉽게 구분하고, 체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아주 무서웠다. 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며 도심으로 몰려들어 시위에 가담했다.

에곤 크렌츠는 무력으로 시위대를 분산시키고자 군대와 경찰을 미리 대기시켰지만, 결국

어떤 명령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큰 도시에 모여 시위를 했다. 이들이 내건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자유를 요구하는 "우리는 사람이다"였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몇몇 지역에서 개혁을 고려한 것은 공산주의 집권자들의 자발적 판단이라기보다, 대규모 시위가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는 여행의 권리였다. 1989년 8월 이후 수천의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 동독을 떠났다.

1989년 11월 9에 있었던 기자회견 도중, 한 공산당 지도자가 서독으로의 여행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노트를 잘못 이해했고, 이로 인해 베를린 국경을 즉각적으로 개방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장벽은 무너졌다. 장벽의 붕괴, 국경의 개방은 억압되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분출시켰다.

(2) 1990년 : 통일을 이끈 최초의 자유선거

장벽은 무너졌지만 통일이 즉각적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공산당 권력의 제한, 비밀경찰의 해체 등이 요구되었다. 야권세력과 "원탁회의"는 통제와 기본적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권력을 행사할 의지는 없었다. 또한 야권과 인권운동가들은 어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통일보다는 변화를 요구했고, 동독에 자유 지향적·민주주의적인 체제를 형성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1989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났다. 매주의 시위에서 슬로건들이 점차 "우리는 사람이다"에서 "우리는 한 국민이다"로 바뀌었다. 가까운 시일에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새로운 실험에 무관심했다. "세 번째 길"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야권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야권의 역할을 저평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12월 헬무트 콜은 유럽통합의 구상체제에서 착안한, 독일 통일로 가는 10개의 중점 계획안을 발표했다. 헬무트 콜에게 있어서 독일과 유럽통합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었다. 사람들은 야권 그룹이나,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주창하는 공산당이 아닌 능력 있는 서독의 지도자에게만이 번영, 자유,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는 1990년 3월의 선거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본래 그 선거는 반대세력과 인권운동가들이 부정선거를 폭로한 1989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시행하기로 계획한 선거였다. 하지만 권력의 불균형을 막고 긴급한 안건들을 처리할 정당성이 있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원탁회의"는 선거를 3월 1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선거 운동>

동독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오직 선거 운동을 위한 두 가지 선택을 남겼다. 그것은 독일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1. 통합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의견은 야권과 시민운동세력,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SED-PDS로 부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지지 받았다. 하지만 두 단체는 함께 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대안이 좀 더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자본주의적・개인주의적으로 비춰지는 서독과는 다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2. 통일

① SPD에 의해 추진된 점진적인 통일

② 헬무트 콜의 10개의 중점 계획안에 기초해서 독일 연맹에 의해 추진된 신속한 통일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민주적 각성"은 선거운동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는 공포와 테러를 퍼뜨려왔다. 사회주의는 수십만을 조국에서 내쫓았다. 사회주의는 우리를 배신하였고 우리가 일한 결실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끝났다. 사회주의 정당을 무너뜨려라! 3월 18일 당신들은 우리 조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각성을 지지하라." 혹은 "자유, 사회주의 반대",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사회주의 : 자유와 번영 찬성" 등의 구호도 있었다.

선거 운동은 주로 서독정당의 지지를 받았고, 또 그들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었다. 오직 시민권 운동만이 강력한 서독 파트너 없이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

유권자의 93.4%가 선거에 참여했다. 이는 역사를 통틀어 독일의 자유선거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승자는 독일 통일의 지지 세력이었다. 독일 연맹이 48.15%를 득표했고, 승리를 예측했던 SPD에게는 21.9%의 표만이 돌아갔다. 그리고 SED-PDS는 16.4%, 자유 민주당은 5.3%씩을 득표했다.

평화 혁명 이전과 당시, 사실상 주된 세력 중 하나였던 동맹 90)은 선거에서 심지어 3%도 되지 않는 표를 받아 큰 패배를 당했다. 그들은 다시 평화혁명 이전 이상주의자의들의 작은 모임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였다.

당시의 동독에는 실현 가능한 사상을 지닌, 카리스마 있고 신뢰로우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오직 서독에서, 특히 헬무트 콜 수상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

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헬무트 콜 수상은 그의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켰을 뿐 아니라, 서독과 동독의 지도자를 설득했던 작은 기회의 창도 크게 사용했다. 따라서 오직 그만이 통일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신망을 얻었던 것이다.

<신속한 통일로 가는 길>

사람들은 실험에 대해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권에서 자유와 자결적인 삶을 원했다.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이제는 통일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빠른 접근은 서독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독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평화 혁명 중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은 통일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길 원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체적인 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같은 일상에서 지내되, 좀 더 자유를 얻고 싶을 뿐이었다. 국가의 지도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안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도와 자유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방식을 동시에 원했다.

그러나 신속한 통일은 정치적 ·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동독의 사람들은 미래가 아닌 당장 자유를 요구했다. 만약 국경의 문을 닫고 장벽을 다시 세운다면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주는 서독과 동등한 시스템을 동독에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방법은 결국 환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율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과도정부로 간주되었다. 그것의 임무는 스스로 해산해서 서독과 통합하는 것이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이해당사자, 특히 서독에 의한 통일의 전제조건이었다. 자기결정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인 모든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진 원칙이었다. 만약 독일이 자기결정에 의해 통일을 선택했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90년 5월의 동독과 서독 사이에 경제적 · 화폐적 · 사회적 연합에 관한 조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7월 1일 독일마르크 화폐가 동독에 소개되었으며, 완전한 통일은 9월 20일 양측의 독일 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독일 헌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통일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으로 확장된 것이었다(원래 독일헌법 제146조의 조항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분단된 독일이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기보다 자유의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재통일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냥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40년의 분단은 모든 생활적

인 측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통일의 문제점들>

통일에는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나는 그때 발견되었던 모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으며,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볼 수 있는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독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 요소를 언급하고 싶다.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사안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토지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싶다.

내가 이미 언급한 한 가지 문제, 정치적으로 대안이 없었던 통일의 속도는 동독의 사람들을 숨 막히게 했다. 동독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야만 했다. 통일의 진행은 종종 동독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한 채 서독이 동독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동독 사람들은 이따금 서독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의 우리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받을 때, 마치 2등 국민이 된 것처럼 느꼈다. 이때 통일은 오직 동독 사람들만 적용되고 서독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공무원들이 동독으로 와서 기관이나 행정부를 설립할 때, 동독에서의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특별 수당을 받는 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은 서독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특권층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과거의 첩보 기관은 물론이고 이전 집권당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다.

동독 사람들은 그들이 서방인들에 의해 항상 모든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불평・불만자로 일반화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리고 나는 일반적으로 동독과 서독인들 사이에 상대의 경험과 이야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화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대중매체를 통해서라도 더 깊은 담론과 의견의 교환이 있었더라면 동독인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적게 느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아주 안타까운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독을 미화하는 향수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거에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고 현재의 자기 결정권과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소중함을 저평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적이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그 체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결권이나 자유의 부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독일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건이었다.

요약하자면, 통일은 일반적으로 동독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중간과정이었으며, 그 자체가 종착점은 아니었다. 오직 통일된 독일 안에서만 그들은 자유롭고 자기결정이 가능한 삶을 실현할 수 있었다.

토 론 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 동서독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교훈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남한에 통일부(統一部)가 있어 통일에 대비한 광범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헨젤 박사는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독에도 내독부(內獨部)가 있어 동서독 관계의 업무를 맡지 않았나? 통일부와 내독부의 역할에 차이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헨젤 박사에 따르면, 동독사회에서는 그나마 교회가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사회에는 어디에도 자유롭게 숨쉴만한 곳이 없다. 물론 북한당국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대축전을 앞두고 종교시설을 신축하고 부분적으로 종교활동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사회의 종교단체들은 여전히 당 통일전선부의 통제 하에 있어, 북한의 종교가 동독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동독주민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동기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헨젤 박사의 평가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 동안 남한에서는 반공주의(反共主義)가 판을 쳤을 뿐, 북한주민이 갈망할 만한 자유주의(自由主義)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냉전시기 남한사회는 북한주민에게 갈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헨젤 박사는 대다수의 동독주민들이 '통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그들 자신의 '자유'에

관심이 있었지만 동독주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남북한 통일과정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를 갈망하도록 남한사회 내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Ⅱ. 동서독 통일의 빛과 그림자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비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분단국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민족(Korean)으로서는 독일통일이 몹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 통일은 우리 한민족에게 통일로 가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편으로 동서독의 통일은 남북통일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한민족에게 보여주었다. 특히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남북한—물론 통일에 앞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외에 미·중의 동의가 필요하지만—과 달리, 동서독 당사자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미·러·영·프 4대 승전국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어려운 조건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통일은 남북한 통일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특히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는 남한주민에게는—경제적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불투명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사회 내부에도 빈부의 양극화와 지역간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경제와 통합할 경우 양극화의 심화, 지역간 갈등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Ⅲ. 독일인들(특히 동독주민)은 어째서 단계적 통일이 아닌 조기통일을 선택했나

동서독의 통일은 한국민에게 막연했던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독일이 겪었던 통일후유증, 특히 '오씨-베씨 갈등'과 '막대한 통일비용' 등은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통일후유증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보면, 당시 독일인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못해 대비하지 않았다기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한 동서독화폐의 '1:1 교환'방

침이 결과적으로 '오씨-베씨 갈등'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동독 자유총선이 1990년 3월 18일에 실시하기로 일정이 확정된 뒤 실시된 첫 번 째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SPD)이 54%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고 있고, 기민당(독일연합)은 1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서독의 콜 수상이 전격적으로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을 발표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서독과 동독의 화폐가치는 4.8:1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동서독화폐의 등가교환 조치는 동독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선거 분위기를 바꾸어놓았다. 그 결과 선거초기와 달리 3.18 총선의 결과 기민당(독일연합)이 48.04%, 사민당이 21.88%, 민주사회주의당(옛 동독공산당)이 16.4%의 지지를 얻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1) 화폐 등가교환조치로 동독 기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고 동서독의 조기통일이 추진될 수 있었지만, 이 조치는 서독주민의 복지비용 부담을 증대시키고 동독지역 산업의 몰락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엄청난 통일비용과 오씨-베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다. 발표자들께서는 이러한 토론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Ⅳ. '국가연합' 혹은 '일국양제'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남북한이 서로 통일방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서독에서 정부차원의 통일방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버마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국가연합' 방안을 지지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 기민당의 파트너였던 동독 기민당의 드 메지에르 당수조차 '4단계 통일방안'과 같은 단계적, 점진적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이처럼 서독이나 동독에서 점진적, 단계론적 입장에 선 '국가연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조기통일은 콜 수상의 '10개항 통일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2) 헨젤 박사께서는 '통일을 위한 점진적 방법'이 '환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기통일의 원인으로 동독주민들이 '미래의 자유'가 아닌 '당장의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동서독보다 경제력의 격차가 훨씬 큰 남북한의 경우, 북한주민들이 '당장의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조기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3) 또한, 만약 1990년 3.18 자유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했다면, '당장의 자유'를 갈망했던 동독주민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국가연

합'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에 대한 헨젤 박사의 견해를 듣고 싶다.

V. 편입통일인가, 합의통일인가 – 독일통일의 법적 성격

독일통일의 법적인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독일기본법 제23조는 동독이 연방에 가입하는 '편입통일'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본법 제146조는 동서독이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합의통일'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일단 편입통일(기본법 제23조)을 달성한 뒤,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통일헌법을 제정(기본법 146조)하는 절충형 방식이다.

(4) 1990년데 동서독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그렇다면 현재가 최종상태인가, 아니면 과거 검토되었던 바대로 새로운 통일헌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합의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가?

VI.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과 외국군대 문제

주지하듯이, 동서독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독일이 미·영·프·러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한 데서 비롯된다. 미·영·프 3국이 점령한 지역에 서독 정부가 들어서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동독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의 통일도 동서독 정부와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서독은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90.5.18),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90.8.31),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90.9.12.)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통일을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독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동서독의 통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영국과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설득했고, 동독주둔 러시아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반대도 극복했다.

(5)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동서독의 통일은 '2+4협정'이 체결된 1990년 9월 12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일기념일을 반드시 국제법적인 규정에 얽매여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통일기념일을 언제로 삼고 있는가?

(6)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일 이후 서독주둔 미군은 계속 존재하는 반

면, 동독주둔 러시아군은 철수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은 NATO에 잔류했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지역에 주둔했던 중국군은 1958년에 모두 철수했다. 반면, 남한지역에는 여전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볼 때, 과연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토 론 문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차장

1. 1990년의 독일 통일 : 한 동독인의 시각(Dr. Lars Hänsel, KAS Israel)

□ 이 글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북한주민들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생각됨

□ 본 주제와 관련하여 독일통일에 대한 다른 시각,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의 동기로서 정신적· 물질적 요인, 동서독 주민의 견해 등의 논점(또는 궁금한 점)을 제기하고자 함

□ 첫째, '한 동독인의 시각'이라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견해인지? 만약 개인의 견해라면 일반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견해가 A인데 필자의 견해는 B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부각시키는데, 필자의 주장과 대비되는 일반적인 견해도 참고로 듣고 싶음

□ 둘째, 필자의 "동방정책은 동독에 더 많은 자유 권리를 주는 길이었기에 동독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동방정책은 동독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으로서의 양면적인 가치가 있었다." 라는 평가에 대해 필자는 동방정책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를 위한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방정책과 유사한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음

□ 셋째, 필자의 “통일에 대한 동기는 자유로의 갈망이며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에 대해 통일은 단순히 자유로의 갈망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서독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이 급진적 통일을 유발했던 것은 아닌지?

○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정신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신적인 요인 외에 물질적인 요인(예를 물자부족 및 줄서기의 불편함에서 탈피, 서독의 물질적 풍요, 사회보장 등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임

이와 함께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되면 빵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문제가 중요해지는지? 예를 들어 동독과 같은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풍요로움 때문에 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됨

□ 넷째, 필자의 “통일은 일반적으로 동독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중간과정이었으며, 그 자체가 종착점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에 대해 통일은 동독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서독사람들은 (통일비용만 지불하고) 얻은 것이 없다는 견해가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음.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서독 주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람

□ 다섯째,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좀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이는 더 많은 자유에 대한 요구(또는 반체제운동)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임

동독에서는 교회(또는 신앙의 자유), 퇴직 후 비사회주의국의 여행을 허용하는 등 북한,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좀더 많은 자유가 허용된 배경은 무엇인가?

2. German Unification : Prepared (“non-spontaneous”) Unification
Ulrich Blum

□ 제목은 Prepared (“non-spontaneous”) Unification, 하지만 Preparation was nil before Unification … but very intensive afterwards!라고 표현

통일준비는 안되어 있었지만 이후 집중적으로 대응, 그렇다면 제목처럼 준비된 통일이라 할 수 있는지?

□ 동독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의존,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산몰수가 1980년대 수출위기가 재산몰수에 기인한다고 주장

○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만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산몰수가 수출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 오히려 수출능력을 초과하는 수입정책 추진, 그리고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무역적자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동독 대외무역의 지역적 분포(%)

Year	Socialist Countries	USSR	Capitalist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1975	70	36	26	4
1980	66	35	27	6
1985	66	39	29	5

동독 대외무역의 상품구조(%)

	1970	1976	1980	1984
Import	100.0	100.0	100.0	100.0
capital goods	34.2	31.5	30.8	26.0
raw materials	27.6	28.9	36.7	41.6
the rest	38.2	39.6	32.5	32.4
Export	100.0	100.0	100.0	100.0
capital goods	51.7	51.2	51.3	46.9
raw materials	10.1	11.3	14.8	17.5
the res	38.2	37.5	33.9	35.6

※ 1989년의 문제, 그에 대한 처방 및 평가, 그리고 과제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음. ppt자료만으로는 논리구조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토 론 문

김병로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독일통일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 첫 번째는 부럽다는 것이다. 마치 군 입대를 앞두고 군복무를 마친 선배들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함께 무척 부럽게 느껴졌던 그런 기분이 든다.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할 일을 먼저 끝낸 사람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부러움이다.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소식을 들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조차 부러운 생각을 금할 길 없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통일이 현실 역사에서 실현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분단의 엄중한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어느 한 체제가 결코 다른 체제에 항복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험은 비록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해도 서로 다른 두 체제의 통일이 역사적 현실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비록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어둡게 보여도 통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울리히 블룸 교수의 논문 “독일통일, 준비된 통일”은 서독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없었지만 짧은 시간 내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일을 성취한 부분을 설명했다. 통일을 더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의 측면을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 던져준 교훈은 매우 인상적이다. 더 많은 경제지대의 창출, R&D 안정화, 재산규제 대한 준비, 그리고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울리히 블룸 교수는 독일이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준비는 너무나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울리히 블룸 교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독일의 통일은 빌리 브란트 진보정권 10년 이후 헬무트 콜 수상의 보수정권 통치기간에 이루어졌다. 독일이 통일준비를 잘했다는 것은 콜 수상이 이전 진보정권이 추진해온 '동방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도 콜 정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대동독정책을 추진한 것이 통일을 가져온 중요한 배경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비교할 때 이 점에서 독일은 통일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스 핸셀 박사의 논문은 동독의 관점에서 통일을 조명하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앞의 발표도 그렇지만 핸셀 박사도 독일은 통일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것은 분단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의 패배결과로 부과된 것이어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섣불리 통일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분단되었다. 통일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도 국제사회에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정책이라고 공개해온 것이 실제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도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통일을 거의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스 핸셀 박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본다. 독일은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80년대에는 콜 수상이 기존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통일의 기회를 잡았다. 콜 수상 집권당시 동방정책 폐기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갔는가?

두 번째 질문은 동독에서의 삶의 조건에 관한 질문이다. 교육문제, 표현의 자유 등 많은 부분에서 북한과 유사하다. 그러나 교회가 예외였다. 만약 동독에서 교회조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는가? 다른 시민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

세 번째 질문은 동독에게 비춰진 서독의 모습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서독의 '동방정책'이 동독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하다. 핸셀 박사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동독정권을 강화시켜주었으나, 결과적으로 변화를 촉진했고 동독사람들도 이를 통해 동독정권이 압력을 받아 여행의 자유 같은 것을 더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독의 동방정책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런 합의와 동의가 있기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가?

네 번째 질문은 서독을 자유로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미디어의 역할과 가족연대(family tie)를 지적했는데, 미디어에서 상호비방도 했을 테고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고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긍정적 인식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북한에 비춰진 한국의 perception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물론 남한에 비춰진 북한의 이미지도 좋지 않다. 상호간에 좋지 않은 것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의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인식변화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독일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부분은 동독사람들도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느꼈다는 점이다. “you cannot do anything anyway"라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동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패배적 심리가 체제에 대한 도전보다는 회피적 방법으로 탈출, 난민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통일 전에 독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외여행의 자유가 가능했는가, 법적으로는 어떠했는가를 질문하고 싶다. P

● 발 표 3 ●

[예멘] 합의에 의한 통일이 왜 내전으로 이어졌나

Ahmed M. Al-Kibsi 사나 대학 부총장

발 표 3

[예멘] 합의에 의한 통일이 왜 내전으로 이어졌나

예멘의 통일과정

Ahmed M. Al-Kibsi 사나 대학교 부총장

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예멘공화국의 수도 사나는 지난 5월 22일로 통일 20주년을 맞았다. 동아세아의 끝, 북한과의 통일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현재 통일을 향한 힘든 여정을 가고 있다.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원하는 통일을 과거의 예멘 역시 희망했었다. 한국과 예멘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예멘은 서쪽에 한국은 동쪽에—위치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식민지에 이어 국토가 분단되는 고통을 겪었고 냉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정치 체제가 공존했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다. 비록 국토는 분단되었지만 예멘과 한국의 국민은 모두 통일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예멘은 끈질긴 외교적 노력 끝에 통일의 숙원을 이루었고, 이제 통일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여성의 정치 참여에 의해 확고한 기반 위에 올랐다.

예멘의 통일 과정은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샀다. 체제개혁을 원하는 일련의 국가들은 예멘의 통일 과정 및 국가 조직,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 했다. 예멘은 분단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통일예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멘이 어떻게 과거의 분단을 극복했으며 어떻게 통일 후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한국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 나는 예멘인들의 간절한 꿈이자 동시에 한국인들의 희망인,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경축하는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멘 통일에 관해서는 수백 가지의 분석이 있다. 정치가, 역사가,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예멘 통일의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한바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통일과정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일들과 노력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약 언급한 뒤, 심포지엄 참가자 및 토론자의 질의와 그에 대한 필자의 응답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먼저 예멘의 통일(단일화)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합병이 아니라 분단되었던 한 나라의 통일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이란 같은 땅, 같은 민족성, 같은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 본래의 원형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땅은 역사의 초창기부터 예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멘인들은 한 조상을 갖고 있다. 예멘 곳곳에 산재한 유적에는 서로 비슷한 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여러 옛글이나 옛 문서에는 예멘인들이 유사한 건축에서 같은 생활습관을 지니고 살았음이 드러나 있다. 예멘의 부족들은 자손을 통해 자신들의 근본과 혈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족들과 유사한 전통, 사상, 습관, 가치관으로 하나의 사회 조직을 이루었다. 단일성은 예멘 역사의 저변에 깔려 있다. 예멘이 단일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명을 이루었고 예술을 꽃피웠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예멘에서 분단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다. 예멘의 단일체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부족민들에게는 종족회의의 연합체와 자문기구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는 허미아, 쉐바, 하드라무트, 콰타반, 모아인 그리고 오산 주(州)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각각의 주는 단일성, 민주주의, 사회정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월등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둑을 쌓아 관개시설을 만들고 농작물 재배법을 개발하고 테라스 등의 독특한 건물형식을 만드는 데 역사적 역할을 했다.

남예멘은 외세에 정복당해 식민지로 전락했다. 반면 북예멘은 보수세력에 지배당했다. 이것이 분단의 원인이다. 북예멘은 절대주의와 고립주의를 타파하려 했고, 남예멘은 영국의 식민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1962년 9월 26일의 혁명은 북예멘의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9·26 혁명은 예멘 역사의 전환점이자 통일을 향한 괄목할 성과였다. 이 혁명의 최종 목표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던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 예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농민과 노동자가 혁명군의 기수가 되었다. 이들은 이맘(Imam) 세력을 제거하고 영국을 축출하여 예멘을 통일하고자 했다. 북예멘 형제들의 도움으로 남예멘에도 1967년 10월 14일 희망이 움텄다. 그리고 1967년 11월 30일 드디어 남예멘은 영국의 점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예멘을 통일할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 세계를 덮고 있던 냉전의 그림자는 예멘에도 드리웠다.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불리는 공산 조직이 남쪽 세력을 장악했

고, 예멘에는 상반된 두 개의 이념체제가 공존하게 되었다. 결국 1972년 전쟁이 터졌고, 당시 '아랍리그'가 개입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두 체제의 협상을 이끌어냈다. 1972년 10월 28일의 '카이로협약'이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예멘아랍공화국과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 두 정부는 아랍리그헌장 제9조에 의해, 아래 언급한 원칙과 기본에 따라 남북을 합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데 동의한다.

● 통일예멘과 아랍국가의 역사적, 민족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통일을 이루어 낸다.

● 긴 역사를 통해 땅을 가르고, 장벽을 세우고, 국경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인과 예멘 땅은 분단될 수 없다.

● 보수세력인 이맘을 없애고, 영국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려 투쟁했던 과거 북남예멘인과 순국열사들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통일국가를 만든다.

● 예멘의 진보를 위한 국가적 투쟁을 후원하고 식민주의와 시온주의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민주와 자유가 보장된 현대적 예멘을 선사하기 위해 통일국가를 만든다.

● 독립된 국가경제를 이룩하고 외세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적 독립성과 자유를 이루기 위해 통일국가를 만든다.

● 통일이야말로 예멘의 발전과 문명화, 예멘인의 복지를 위해 정해진 궁극의 운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통일이야말로 예멘인 모두의 희망이다.

● 시온주의와 제국주의동맹에 대항하는 아랍국가들의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멘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필수조건이며, 아랍전체의 단일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 예멘의 통일은 1972년 9월 13일 결의안 2961조에 의거해 북남예멘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직된 아랍화해위원회(Arab Reconciliation Committee)의 진정한 노력에 대한 반응이다.

■ 통일은 예멘아랍공화국과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국제사회에 하나의 단일국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새 국가는 단일 국기와 문장(文章), 동일한 수도, 단일 지도세력, 단일 입법 · 행정 · 사법부를 가진다.

● 새 국가의 정부조직은 공화체제로 범국가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 통일국가의 헌법은 일반국민과 각종 전문직, 상업기구에 개인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 통일국가는 9월과 10월 혁명을 통해 실현된 이권을 보장할 것이다.

●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 양국 대통령은 당장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회의는 두 정상이 합의한 날짜에 개최할 것이다.

계속되는 합의문에는 통일준비위원회 결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였다. 카이로협약에 이어 같은 해에 트리폴리합의문이 다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예멘의 통일이 예멘민중의 요구이자 나아가 아랍인 전체의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임이 확인되었고, 합의문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사실 두 개의 예멘으로 나뉘어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꽝스런 것이었다. 양측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 상이한 이념은 정치적 조작을 낳았다. 일례로 남예멘의 한 조직은 파괴를 일삼은 북예멘의 정치세력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반대편 정치가를 후원했다. 북예멘도 마찬가지였다. 아메드 알 가쉬미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비난의 화살은 남측의 여당에게 향했다. 이러한 난장판이 전개되는 속에서 북측은 남예멘사회당의 어리석은 행동에 분개했다. 그 시점에서 1978년 7월 17일 알리 압둘라 살레가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북예멘의 상황도 부러워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사나를 제외한 전국에 통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가 사방에 깔려 있었고, 경제는 악화되었다. 남북예멘의 관계는 불안정했고 폭발 직전이었다. 예멘은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다.

군에서 특별한 경험을 쌓고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견디기 힘든 짐이었다. 현실은 난제투성이였다. 대통령은 폭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했다. 폭력은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내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화를 선택했다. 각 지역과 개인의 이익 및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입법부의 멤버 자격을 완화하고, 선거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 즉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무슬림 형제들, 아랍민족주의 등을 아우른 범국가적 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해야 할 정치적 실천 목록을 만들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였다. 대화위원회는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국내의 모든 정치, 사회세력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대변할 정치기구를 만들었다. 이윽고 이 정치기구를 국가헌법시행기구로 인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국가헌법은 통일을 거역할 수 없는 민족적 목표로 설정했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남측의 당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1979년 2월 예멘은 또다시 전쟁을 겪게 되었다. 전쟁 종식을 위해 다시 아랍연맹이 개입했고, 1979년 3월 4일에서 6일까지 쿠웨이트정상회의가 열렸다. 아랍은 만장일치로 예멘에 통일위원회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1979년 3월 30일, 쿠웨이트정상회의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은 조속한 통일을 바라는 남북 예멘인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선언문에는 위

원회가 일반적 업무를 실행할 것과, 헌법위원회가 넉 달 간 새 헌법을 초안할 것이 명시되었다. 정상회의는 남북예멘이 카이로협약과 트리폴리협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1979년 10월 4일 사나에서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했고, 최고통일위원회에는 모든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게 되었다.

남북예멘의 군사적 충돌은 예멘인에게 통일이 무력이나 폭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예멘은 평화적 대화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대화에 중점을 둔 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이 회의들의 결과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었다. 70년대에 이미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항들을 다시 조명했고 그 실행이 가능해졌다. 1980년 6월 사나회의가 열렸다. 이를 통해 공동경제사업을 결정하고, 국경지역의 무장을 해제할 것과 통일위원회가 임무를 완수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1981년 9월 15일 열린 타이즈회의에서는 통일된 정치조직 확립에 관한 1979년 트리폴리조약 제9항을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결성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1981년 10월 30일 아덴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고위급위원회가 결성되고, 양국의 지도자가 의장으로서 통일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일위원회를 감독하기로 했다. 양국 수상이 주재하는 장관급위원회도 임명하였다. 고위급위원회는 아덴과 사나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동안 장관급위원회는 세 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시민들도 만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6년 1월 13일, 아덴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공산당지도부 간에 내전이 발발했다. 알리 나세르 무하마드 대통령은 북예멘으로 망명을 해야 했다. 1월 13일의 피로 점철된 사건들은 정치를 공동화하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알리 압둘라 살레를 추대해 통일을 꾀하려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현명한 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를 물리치고 분쟁에 휩싸인 정당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진정되고 대화를 재개할 만한 신뢰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2년간의 정전을 거쳐 공산당지도부 내에서 승리한 당이 통일업무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통일을 위한 대화가 재개될 즈음, 때마침 국경 근처의 남예멘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1986년 1월 13일 피의 사건 이후 첫 번째 회의가 1988년 4월에 타이즈에서 열렸다. 양측은 1986년 1월 사건을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진지하게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합의사항을 모두 인정하자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마립과 샤브와의 천연자원 개발을 포함한 공동투자벤처사업도 크게 조명을 받았다. 연이어 1988년 5월 3일과 4일에 사나에서 후속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타이즈회의에서 결의했던 세부사항들이 재검토되었다. 2,2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공동투자구역이

확립되었다. 통일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서두르기 위해 정치조직을 활성화할 것에도 합의를 이루었다. 통일국가헌법 승인을 위한 일정도 구체화되었다. 또한 국경초소를 없애고 시민들이 신분증만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초소를 세울 것에 합의했다. 국가기구 간 교류제한 역시 철폐되었고, 양국을 잇는 도로를 닦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많은 사항들이 결정되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과 통일정치조직의 회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었다. 양국의 정당은 곧 이루어질 통일국가에 대한 관점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정치조직에 관한 첫 번째 회의가 1989년 11월에 타이즈에서 열렸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 첫째, 일반민중회의와 예멘사회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한다.
■ 둘째, 두 당은 독립적으로 남고 다원성을 허용한다.
■ 셋째, 두 당을 해체하고 다른 정당의 설립을 허용한다.
■ 넷째, 모든 군부를 망라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당시는 지방 및 지역,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통일의 선언이 유리한 시기이기도 했다. 남예멘에서는 공산정부가 무너지기 직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 체제 점검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소련 사회주의의 패망은 6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며 경제난을 겪고 있던 남예멘 정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편 아랍세계는 지역경제블록을 만들고 있었다. 북예멘은 아랍협의회에 가입했고 이러한 모든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했다. 한편으로 통일 선언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1989년 11월 30일에 아덴회의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양측 지도부는 1981년 완성되었던 통일국가헌법을 승인했다. 새 헌법은 양국 각각의 입법부에 부쳐졌고 통일 이후 국민투표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덴회의를 통해 결성된 공동대표단이 아랍국가와 우방에 파견되었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예멘과 관련된 기타 국가들과 기구를 방문해 통일예멘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문제 있는 기구들을 멀리하고 예멘 통일에 반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애썼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예멘이 아랍세계와 국제사회에 진출하여 튼튼한 외교관계를 맺는 동시에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총체적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방문은 두 지도자가 통일을 진지하게 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표단은 방문한 국가나 기구들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이전 아랍세계의 통일의 결과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 통일반대자들(통일이 자신의 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일선언일을 비밀에 부친다–이 덕분에 준비기간이 1년 대신 6개월로 줄었다.

■ 통일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국가를 보호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통일 선언 후에는 모든 정당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 군과 보안경찰은 절대 통일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현대적 제도를 갖춘 국가를 형성한다.

통일 저지를 획책하는 국제적, 지역적 음모들도 무시할 수 없었다. 통일선언일에 관해 남예멘사회당 지도부 내에 근본적 이견이 생겨났고, 그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한쪽은 국제적 혼란을 틈타 대중의 지지를 얻어 통일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비열한 계략을 가진 자들도 후자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있었으므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통일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1989년 9월 22–26일의 사나회의, 1990년 2월 19일의 마케라스회의, 1990년 4월 19–20일의 사나회의). 양국 지도부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동군의 파벌 문제에 관한 이견을 해결했다. 그들은 다원성을 허용하는, 통일정치조직에 관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4월 사나회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니, 1990년 5월 22일에야 발표될 통일선언일에 관한 것이었다. 이행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아홉 가지 사항이 제기되었다. 그중에는 과도기(2년 6개월)에 관한 것, 슈라의회와 인민의회를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국회로 만들 것, 1990년 11월 30일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대통령자문회의를 결성할 것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남예멘 정권은 통일을 위해 1990년 4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산국가에서 온 외국인 군 전문가를 퇴출하는 등의 몇 가지 일을 해내야 했다. 1990년 5월 22일, 아덴의 팔레스타인홀에서 예멘공화국의 탄생이 공표되었다. 수많은 고위 관료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국기 게양식이 이루어졌다. 그날 두 체제는 사라지고 하나의 체제가 탄생했다.

동부 진영은 무장해제 중에 있었고,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멘은 통일을 선언했다. 예멘이 왜 국민투표와 국회선거를 통일선언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멘은 대중의 열정과 더불어 통일을 완료해야 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이 국민투표를 통일 이후로 미루게 했다. 모든 예멘인은 만장일치로 통일이 국민투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예멘인은 통치의 도구로서 헌법을 믿었다. 또한 대중은 통일이 모든 예멘인에게 부와 발전이 수단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예멘의 정치제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대중의 단결과 지지는 정권의 강화를 도왔다. 통일선언 70일 후 걸프전이 발발했다. 이 전쟁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에 정치적 재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국가는 살아남았다.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다시 두 쪽으로 갈라놓으려 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멘의 통합을 위해 싸웠고 공동의 성과를 보호했으며, 1994년 7월 7일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세 차례의 국회의원선거와 1999년 최초의 대통령선거, 2006년의 두 번째 대통령 선거 후 예멘의 통일은 굳건한 사실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예멘은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는 중에 여성들이 모든 마을기구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낙후된 이념과 퇴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해야 할 일만 남아 있다.

서아시아의 예멘과 유럽의 독일에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한국의 통일 역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전쟁과 무력경쟁으로는 절대 이 희망을 이룰 수 없다. 한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이 심포지엄을 기획한 평화재단에 감사드린다. 여러 연구소, 해당 기관들, 그리고 독일, 한국, 예멘의 우호적 관계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발 표 4 ●

[베트남]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했나

Nguyen Van Khanh 하노이 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발 표 4

[베트남]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했나

베트남 국가 통일의 길 : 역사와 경험

Nguyen Van Khanh 하노이 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국가의 독립과 재통일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혁명의 길이며, 국가의 방위와 형성이라는 객관적 요구인 동시에 자유와 발전을 위한 투쟁에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국가의 분단과 재통일은 베트남 봉건 왕조 시대에도 일어났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Yalta) 양극화 질서가 형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파시스트들에 대항한 연합국들 간의 주둔지 분배 문제로 인해 독일, 중국, 베트남,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분단되었다. 국제적 긴장 완화의 추세에도 강대국들은 초기의 양극화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이 국가의 온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탄력적인 반 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그리고 그 투쟁은 이후 30년 동안(1945-1975) 지속되었다.

1. 중세와 근대의 베트남 국가 통일 과정

Hung 왕조 시기, 사람들은 산악 지대에서 내려와 평평한 퇴적 지역에 자리를 잡고 논을 개간하며 그들의 생활 터전을 넓혔다. 자연 재해와 투쟁하는 것 또한 그 시기의 중요한 문제였다. 인간이 밀림을 탐험하거나 열대우림 기후,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연대'가 형성됐으며, 이는 베트남 국가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 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국가로서의 베트남은 지역적 근원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형성은 수 천 년 전부터 시작됐음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공통의 기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용의 아이들과 요정의 손자들"[2)]이란 전설은 베트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과 요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며, 이는 국가의 기원과 단일성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다. 베트남의 역사는 국가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는 과정이지만, 그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과 통일을 되찾아가는 것이었다.

10세기 베트남은 12개 무장 세력의 분쟁으로 인해 분단 상태에 처했고, 이는 약 3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Dinh Bo Linh은 분열 세력을 제압했고 Dai Co Viet 왕조를 세우며 나라를 통합했다. 처음의 수도는 Hoa Lu(지금의 Ninh Binh)였지만, 한 세기 후 Thang Long(오늘날 Ha Noi)로 옮겨졌다. 그 이후로 베트남 국가는 초기 봉건주의의 탄생·발전과 함께 번영기를 맞이한다. 16세기 Mac Dang Dung이 Le 황제의 권력을 빼앗고 북 정권과 남 정권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베트남은 긴 분열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Nguyen 세력이 베트남 중앙을 지배하던 17세기, 북쪽의 Trinh 세력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했다. 국가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간 끊임없는 전쟁이 지속되었다(1627-1672). 이는 국가가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18세기 후반 샴족(태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Tay Son 왕조의 Quang Trung 황제는 성공적으로 외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 전체를 재통합했다. 수세기 동안의 분열과 분쟁 끝에 베트남 국가는 Nguyen 왕조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다(1802-1945).

19세기 중반부터 베트남은 프랑스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다시 분열되었다. 국가는 3개의 서로 다른 통치 체계인 Tokin, Annam, Cochinchina 지역으로 나뉘었다. 남쪽에는 식민 정권이 들어선 반면, 북쪽과 중앙에는 보호 정책이 실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민 전선(Viet Minh Front)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군(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군대로 구성)과 함께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파시즘은 사라졌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 덕에, 베트남은 Viet Minh의 "국가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전면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일본의 파시스트들과 그 추종자들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연합군이 인도차이나에 다시 돌아오기 전, 전국적 규모의 통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새로 설립된 정부는 특정 사회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단, 프랑스나 일본을 지지한 사람, 조국을 배신한 사람, 적은 제외한다. 베트남에 사는 누구든 행정 체제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정부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3)]

2) According to the legend, Lac Long Quan married AuCo. 100 children were born at a time of delivery. 50 of them followed Au Co to mountainous areas to earn living and the rest followed Lac Long Quan to the coastal areas. The oldest son was Hung King who had set up Van Lang. Hung was the first king in Vietnam and was the national ancestor.

3) Vietnam Communist Party: Complete Party Document, Volume 7,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114.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의 Ho Chi Minh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했다. “일본의 파시스트들이 1945년 8월 참패했을 때 베트남 전체가 임시 정부에 의해 재통합되었고, 정부는 평화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바로 행동에 임했으며, 합법적 기반으로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연합군을 도와 적을 무장해제했다.”[4] 결론적으로, 국가의 해방과 통일은 연합군의 도움이라기보다 베트남 국민들이 수행한 혁명을 통해 달성되었다. 연합군의 의무는 일본 군대를 무장해제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베트남을 점령하고 분리했다.

2. 반(反) 프랑스 전쟁 기간 중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되찾기 위한 노력(1945-1954)

1945년 8월의 성공적인 혁명 이후, 독립된 통일 정부인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됐다(1945.9.2). 이는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였다. 호치민 대통령은 독립 선언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인정할 것을 연합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비에트 연방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이 요구에 등을 돌렸다.

1946년 1월 1일, 베트남 국민들은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그들의 의지와 희망을 대변할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 국회는 1946년 3월 3일 헌법을 공표하고, 공식 정부를 출범시켰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얻은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에 돌아왔다. 1945년 9월 23일, 이들은 사이공을 공격·점령하고 재빨리 베트남 남부 전체를 지배했다. 프랑스는 소위 Nam Ky라고 불리는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이어서 Buon Ma Thuot을 점령했으며, 1946년 2월 Tay Nguyen 지역을 분리해 Tay Ky라 불리는 자치 정부를 만들었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와의 잠정 협정에 서명했다(1946.3.6). 이 협정에 의하면 프랑스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베트남의 통합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946년 3월 소위 L'Anam 정부를 구성하여 계속해서 베트남을 분리시켰다.

1946년 6월 호치민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독립과 북·남·중앙 베트남의 재통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46년 6월 25일, 파리 인터뷰에서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들은

4) Ho Chi Minh: Complete, Volume 4,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176.

국가의 독립과 재통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5]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와의 공식 협상 이전, Basques 지역(스페인 서부 피레네 산맥 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7월 2일의 리셉션에서 호치민은 프랑스 G. Bidon 총리에게 보내는 답변으로 "바스크 지역의 사람들이 비록 그들만의 전통과 언어,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프랑스인이다. 프랑스에는 많은 주(州)가 있지만, 그럼에도 프랑스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이고 분리될 수 없다."[6]고 말했다. 이후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L'Anam 정부가 계속해서 베트남에 통합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L'Anam 국민들과 우리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베트남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겠는가? Basques인들과 Breton인들은 불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이다. L'Anam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사용하는데, 왜 그들이 베트남과 통일되는 것을 거부하겠는가?"[7]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남부 지방은 베트남의 일부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분리할 권한이 없으며, 어떤 세력도 베트남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8]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2일 파리에서 열린 베트남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들의 강한 염원은 우리가 되찾은 국가가 다시는 분단되지 않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분단은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만약 프랑스의 번영을 위해서 베트남을 힘없는, 분단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9]라고 주장했다. 1946년 10월 31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의회에서 호치민은 정부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언했다. "대내적으로는 독립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10]

같은 해 12월 UN에 참석한 호치민은 프랑스에 대해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Nam Ky 공화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베트남 국민들은 "영토의 통합과 국가의 독립이라는 가장 숭고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것이다."[11]라고 단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평화를 되찾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여 프랑스 정부 대표단과 협상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 정책은 항상 베트남의 독립과 자치를

5)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3,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 217.
6)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3,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 217.
7)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 272.
8)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 369.
9)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p. 283-284.
10)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 427.
11)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 469.

인정하는 대신, 동화와 점령을 목표로 삼았다."[12]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정책은 영국과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게다가 프랑스는 단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 1946년 12월 18일, 프랑스의 Morlière 장군은 베트남 정부에 군대를 해산하고 하노이의 통제권을 프랑스 군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프랑스 정부와 대화로 갈등을 풀고자 했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베트남 국민들은 무력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온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한 국가적 투쟁을 요구했다. 베트남 국민과 프랑스 정부, 그리고 연합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 투쟁은 길고 비참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베트남이 완전한 독립과 통합을 이룰 때까지 싸울 것이다."[13]라고 공언했다.

1945-1949년의 기간 동안 베트남은 국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베트남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투쟁해야 했다. 길고도 길었던 베트남 국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1954년 5월 7일 Dien Bien Phu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고 베트남의 기본적 권리인 독립·주권·통일, 그리고 영토의 통합이 인정되었다.

3. 국가 독립의 재건과 20년 동안의 반미 투쟁으로부터의 재통일(1954-1975)

1954년 인도차이나에 대한 제네바 협정은 한 나라를 독립된 두 나라로 나눈 것이 아니라, 17도선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두 지역을 나눈 것이었다. 17도선은 정치적이거나 영토적인 국경이 아니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프랑스 군대는 17도선 남쪽으로 물러나고 2년 안에 프랑스로 귀환한다. 이후 베트남은 전국적인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제럴드 포드 대통령까지, 미국 정부는 이미 미국 쪽으로 기운 베트남 남부를 독립된 주로 만들어 베트남을 영구적으로 분단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독재적인 파시스트 정부를 세우기 위해 베트남 남부가 독립된 선거를 치르도록 지원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베트남 남부에 설립된 독립된 주를 "미국의 아이"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아이젠하워와 데일리 역시 "만약 전국적인 선거가 즉시 치러진다면 호치민이 이길

12) George C. Herring: Cuộếấủớỹ(The Longest War in American History), Nxb Ch□nh trị ố gia, H□ Nộ 10.
13)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 484.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년 정도 시간이 연장된다면 미국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조사위원회의 캐나다가 미국이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의했다. Ngo Dinh Diem에 충성하는 이들마저도 "전국적인 선거 기간 동안 호치민의 명성이 Diem에게는 분명한 재앙"이 될 것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그들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베트남 남부를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기지로 삼고,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원했다.[14)]

미국 정부는 사이공 정부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증거"를 만들어 제네바 협정을 무효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선거를 막고 다양한 전략으로 베트남에서의 간섭을 강화했다. 1965년 이래로 미국은 막대한 군대를 베트남에 투입했고, 베트남 북부에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감행했다. 1954년에서 1964년까지, 베트남 국민들은 평화와 국가 통일을 위해 미국의 간섭에 대항해 싸웠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소련이나 중국 등 중요한 동맹국들로부터 어떠한 지지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 학자들은 "소련이나 중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노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어떤 "의도된 전쟁"이나 "이념적 전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남부에 대한 북부의 침략"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이 있었고 베트남 국민의 반미 투쟁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분단국가들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제네바 회담(1954) 이후 몇 년 간, 베트남 국민들은 국가의 재통일을 위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제네바 협정을 존중했다. 17도선의 일시적 분리 협약은 "통치를 위한 분리"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다. 호치민은 "중앙·북부·남부는 모두 베트남 영토이다. 베트남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평화를 확립하고,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의 온전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일은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다."[15)]라고 말하며,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지속적인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치르기 전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한 회담을 요구한다."[16)]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을 등에 업은 Ngo Dihn Diem 정부는 군사력 동원을 증강하고, 남부의 정

14) George C. Herring, p. 52–56.
15)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7, pp. 322–323.
16)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8, p. 57.

치 세력들을 억압했다. 또한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거절했으며, 영구적인 영토 분단을 지속하기 위해 제네바 협정마저 무효화했다. 1959년 말에서 1960년 초, 미국 정부와 Ngo Dinh Diem 정부가 공표한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남부의 국민들은 농촌 지역에서 Ngo Dinh Diem 정권에 맞서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 국가 해방 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위장된 식민 정책과 Ngo Dinh Diem의 인종차별적 정권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모든 계층이 단결하라는 기치를 들었다. 그리고 국가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독립적·민주적·평화적·중립적인 남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남부의 Dong Khoi 운동 이후, 베트남 국민들은 한층 더 격렬한 해방 운동에 돌입했고 남부와 북부 베트남을 공략한 미국의 군사 전술을 점차 좌절시켰다. 1965년, 미국이 "지역 전쟁(Local War)"이라는 전술로 베트남 침략을 강화하면서 수 천 명의 미국과 연합 군대를 남베트남에 투입했고 북부에 대한 공·해군 공격을 감행했다. 그 후 "국가를 구하기 위한 반미 투쟁"은 북부와 남부 베트남 국민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임무가 되었다.

1969년 6월 6일, 남베트남 공화국의 임시 혁명 정부가 설립되었고 남부에는 2개의 정부와 2개의 군대, 3개의 정치 세력(남부 개혁 세력, 베트남 공화 세력, 중간(혹은 제3의) 세력)이 존재하게 됐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을 내부적으로 분열시켰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전 시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국은 1973년 사이공이 파리 협정에 조인하도록 압박했고, "약의 쓴 맛을 덜기 위해" 닉슨은 사이공에게 워싱턴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할 것이며 만약 Hanoi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다른 한편으로 닉슨은, 만일 Nguyen Van Thieu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조인하기를 거부한다면 즉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스스로 이 협정에 조인할 것[17]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적 패배로 이후, 미국과 사이공 정부는 1973년 1월 27일 파리 협정에 사인함으로써 베트남의 통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영토의 분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①평화와 통일을 위해 파리 협정을 맺고, 기존 3개 세력이 연합하여 그 중 하나의 세력이 통솔하는 연합 정부를 세우는 것 ②파리 협정을 무산시키고 전쟁을 지속하는 것) 워싱턴과 사이공은 이중 두 번째 안을 선택했지만, 1975년 봄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

17) George C. Herring, p. 327.

렀지만, 미국 내 베트남 신드롬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엄청난 손실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미국이 승리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들이 그것이다. 한편,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이공 정부는 혼자 생존할 수 없었고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베트남을 영구적으로 분단시키려 했던 전략을 실패했다.

1975년의 총 공격과 봉기를 통해 베트남 국민은 사이공 정부와 군대를 분열시켰고, 국가를 잃었던 불명예에 대한 보복을 완수했다. 또한 장기적 영토 분단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가를 통일시켰다. 이처럼 1975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지속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독립투쟁은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감되었다.

4. 영토의 통일에서 행정적 통일에 이르기까지

켄터키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며 『Foreign Affairs』의 편집인인 George C. Herring은 "베트남에서 국가의 통일은 온 국민의 소망이었다."[18]라고 말했다. 전쟁 직후, 베트남 국민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의 운영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통합은 온 국민의 소망인 동시에 혁명의 객관적 법칙이고 베트남의 역사였다.

1975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사이공에서 열린 북•남 통일회의에서 베트남 국가와 베트남 민족은 하나임을 공표하는 선언이 있었다. 국가는 국가 기관을 통합해야 하며,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평등・직접・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976년 4월 25일, 98.77%의 베트남 유권자가 총선에 참여했고(북부의 99.36%, 남부의 98.39%) 모든 사회 계층, 종족, 종교로 구성된 492명의 대표자를 선출했다. 성공적인 총선은 독립적이며 통일된 베트남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베트남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베트남 국민들은 "우리 국가는 통일될 것이며, 북부와 남부는 하나의 집이 될 것이다."라는 호치민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1976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린 첫 번째 국회 회의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 수도 하노이, 빨간색 바탕에 가운데 5개의 별이 있는 국기(國旗), 군대 행진곡인 국가(國歌) 등을 결정했다. 또한 사이공은 호치민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작성했고, 국가 중요 직위의 지도자들을 선출했다. 국가 기관의 통합은 영토의 통합을 제도화했고, 여타 분야의 통합을 위한 조건들도 마련했다. 이어서 여러

18) George C. Herring, p. 10.

조직과 사회•정치 기구들의 통합도 이루어졌다.: 호치민 청년(1976.6.2), 베트남 무역 동맹(1976.6.8), 베트남 여성 동맹(1976.6.10), 베트남 기자 위원회(1976.7.7), 베트남 청년 연맹(1976.9.20).

국가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기반 위에 베트남 국민은 평화롭고 통합되고 독립되고 민주적인, 건강한 국가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베트남은 점차 다른 나라에게도 믿을만한 친구이자 파트너로 인식됐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5. 몇 가지 역사적 경험들

베트남의 통일 과정은 몇 번의 다른 시기에 진행됐는데, 때로는 영웅적이었지만 때로는 비참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 국가와 독립•통일에의 의지를 공유했던 여러 세대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다. 아마도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베트남만큼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베트남의 통일 과정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 조건 지어졌으며, 이는 우리에게 값진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남겨주었다.

첫 번째로, 국가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국가의 자치권과 독립을 지키고 어떠한 침략과 식민지적 의도에도 맞서는 단호한 투쟁을 강조한다.

근대 시기, 베트남에서 국가와 국민이 분단되었던 상황은 대부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화의 결과였고 이는 수 세기 동안(19세기 중반-1975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통일은 종종 독립을 위한 투쟁과 침략적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에 맞선 투쟁에 연결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호치민은 다음과 같은 불멸의 명언을 남겼다. “비록 우리가 Truong Son 산악 지역을 다 불태울지라도, 국가의 독립은 되찾아야 한다.” 8월 혁명의 성공 이후, 그는 그의 역사적인 독립선언문에서 국가의 독립을 지켜내려는 모든 국민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언했다. “국가를 잃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모든 베트남 국민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마음과 힘, 심지어는 생명과 자원을 내놓았다.”

국가의 통일은 한 국가의 내부적 책임이며 그 국가의 국민들이 결정하는 일이다. 이는 외부의 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외부의 분단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 국가의 독립을 국가의 통일을 위한 우선적 조건이다. 20세기는 탈식민지의 세기로서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다. 하지만 인류는 테러리즘의 출현과 함께 21세기에 들어섰다. 수많은 국지전과 무력 충돌, 위협,

군사 전투, 강요된 정책과 폭정 등은 국제적인 불안정과 안보 위험의 원인이다.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지키기 위해 각 국의 국민들은 확장주의자들과 평화 위협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통일을 위한 투쟁은 국민의 뜻과 바람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적 외세의 침략 전쟁 앞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인류애와 평화의 노선을 견지하고자 결심했으며, 협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은 평화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경우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은 외교적 방법이 실패한 이후의 선택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의지와 바람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완수하고자 결의했었다. 이는 일련의 조약들에 서명한 사실들로 증명될 수 있다. 베트남-프랑스 잠정조약(1946.3.6)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서술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그러나 프랑스는 이 조약을 파기했다.) 1954년의 제네바 협정은 2년 이내의 총 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나 미국과 사이공 정부는 이를 파기했다.) 파리 조약은 베트남의 통일 문제는 북·남 베트남 지역의 국민들에 의해 스스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사이공 행정부는 미국의 원조 아래 전쟁을 지속했다.)

하지만 결국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총 선거(1976.4)를 통해 국민의 소망과 의지가 발현된 통일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국가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적절한 단계와 해결책을 지녀야 한다.

국가 이익의 전망에서 보면, 국민은 결코 국가의 분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통일은 국가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향한 긴 투쟁의 역사에서 베트남 국민들은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이고, 베트남 국민의 국가는 하나이다. 강이 말라 버릴지라도, 산이 닳아 버릴지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1945년 8월 혁명의 목표는 “국가의 평화, 통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맞선 저항 전쟁의 목표는 “1945년 8월 혁명의 승리(평화, 통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19]이었다.

19)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7, pp. 337-339.

국가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과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만 한다. 베트남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밟아나갔다.

1.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북 베트남의 독립(1954)과 베트남 전체의 독립(1975)
2.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낸 이후,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통합은 이루었지만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노력을 지속했다.
   - 대표자들이 총선을 위한 목표와 계획, 안(案)들은 물론 고도의 협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정치 선거를 조직하는 일.
   - 보통, 직접, 비밀 선거의 정신 아래 국민을 대표할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조직하는 일. (국회는 국가의 최상위 권력 기관으로 입법권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결정 기관이다.)
3. 통일의 정착은 헌법, 법적 제도, 통화 기구, 사회·경제 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통합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베트남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통일된 국가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중국 명나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다시 찾은 15세기 초 이래로, Le왕조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자 세계적인 문화인이었던 Nguyen Trai는 국민의 평화를 위해 "영원히 전쟁을 종식"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투쟁을 해왔던 것 역시 독립과 통일을 위한 염원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할 수 없다. 그래도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주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이다.

토 론 문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들으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통일과 분단극복의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느 만큼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면 부러움과 일면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상승과 하강곡선을 그리는 상황이 주는 실망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의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여 통일을 이룬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남북관계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독일과 예멘이 통일을 이룬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분단과 통일을 가르는 고비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 남북한과 달리 독일과 예멘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국가의 미래를 여는 상황으로 수용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독일과 예멘과의 통일상황은 다르지만, 역시 1970년대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화해분위기로 바뀌는 국제정세의 변화시기에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통일국가를 완성한 베트남과 예멘의 분단사례의 극복과정에서의 경험은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멘과 베트남의 통일사례는 상황과 시기, 통일의 방법 등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멘과 베트남의 통일과정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예멘의 경우는 합의통일의 기반과 위기극복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통일방법에서의 전쟁, 즉 무력에 의한 통일상황의 전개와 통일 후 이념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치유라는 점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바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멘의 통일방식과 내전(통일후유증)의 극복

첫째, 예멘의 분단은 왕정에 대한 공화정의 수립, 영국의 보호령에서의 탈피를 틈단 사회주의세력의 등장 등에 의해 복잡한 구조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이 공화정을 수립하는 과정과 이로부터 친서방의 민주주의제도 도입과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공화정의 수립이라는 다른 방면에서의 국가수립은 결국 당시 세계사적 냉전의 대립구도 아래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기 북예멘의 민주주의제도의 수용과 남예멘의 사회주의이념과 체제의 수립과 관련하여 남북예멘의 정치지도자와 주민의 입장, 다시 말해 이념과 체제의 수용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예멘이 각기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제정과정에 국민적 정당성 내지 합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예멘은 최초의 군사충돌 후 트리폴리성명과 카이로협정에서 통일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통일헌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통일헌법에 의한 합의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평화적인 합의통일의 전형으로 규범적 통일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서 독일의 구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편입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 사례와도 구별됩니다. 예멘의 통일과정을 보면, 최초의 통일원칙의 합의와 이를 통일헌법에 반영하는 헌법전문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한 축을 이루어 전개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헌법의 합의과정에서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의 통합과 관련하여 남북예멘이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점은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셋째, 예멘의 최종통일과정을 보면, 당초 1990년 11월에서 5월로 6개월을 앞당겨 통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듯 통일시점을 앞당기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독일의 경우 구동독의 시민들의 통일의 의지와 행동이 큰 작용을 하였는데, 이에 비해 예멘의 경우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특히 남예멘의 사회주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역할과 행동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넷째, 예멘은 통일 후 통일헌법의 발효와 함께 이른바 통일의 후유증을 예상하여 36개월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통일 후의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한 국가체제와 국민적 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제도적으로도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한 경과조치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북예멘의 정치군사적 통합과 아울러 행정체제의 통합, 화폐 및 경제적 통합, 주민의 정서적 통합 등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을 예상한 법제도적 장치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도기적 상황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1994년 다시 내전적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울러 내전 이후 또 다른 통일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베트남 통일에서의 전쟁의 불가피성과 화해

발표문에서 베트남의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베트남의 통일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정치적 역학과 내부의 대립적 구조라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식민통치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한 공산당 중심의 베트남 독립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영국군과 중국군이 남북 베트남에 각기 주둔하게 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의 복귀를 시도하는 와중에 1946년 말 시작된 프랑스와 베트남간 군사분쟁은 8년간 지속되다가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종료되었지만, 이는 베트남의 분단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베트남의 북쪽에는 베트남독립동맹 주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1954년 7월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어 분단되어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는 역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대립한 냉전구조의 격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물러난 후 구소련중심의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개입은 북베트남과 미국의 대립전선의 확장에 의해 분단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1961년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1964년 8월 미국 구축함(매독스호)에 대한 북베트남의 공격을 계기로 즉각 대규모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선전포고 없는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전쟁은 8년 5개월간 지속되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유발하였습니다. 미국은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베트콩과 베트남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3월 19일 베트남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무조건 항복으로 공산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1976년 7월 2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출범하여 베트남통일국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베트남의 분단과 대립의 원인은 우리의 남북분단의 그것과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투쟁, 민족분쟁 등의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동서냉전체제가 베트남의 분단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은 그 과정에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 분단을 극복한 사례로서 이른바 힘에 의한 흡수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통일은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에 비교하여 통일의 시기와

방법 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0- 60년대의 극한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라는 국제환경속에서 평화적인 합의의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군사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주의로의 이념과 체제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사회의 붕괴 내지 약화를 통한 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이룬 독일과 예멘의 사례와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한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의 사례는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채 전쟁 60년을 맞는 우리에게 베트남통일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베트남의 통일은 우선 분단의 원인에서 당시 국제사회의 대립적 상황의 와중에서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느끼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의식과 태도는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쟁 기간중이지만, 베트남의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남북베트남이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베트남의 통일이 베트남전쟁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전쟁없는 베트남통일의 가능성은 전쟁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과연 베트남 통일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베트남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베트남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시도하고자 하였거나 시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베트남전쟁을 회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전쟁기간 중에 남북베트남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있었다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베트남의 통일이 1975년 이루어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회피와 전쟁 이후 통일국가의 수립과정에서의 국가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통일된 후 이른바 통일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른바 남베트남의 주민의 통합을 위한 조치로서 전승으로 인한 제제의 재구축과정에서 남베트남 주민의 참여와 화해를 위한 조치는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북베트남의 사회주의제도가 남베트남에도 적용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하의 시장경제체제의 부정, 남베트남 주민의 소유제도(사적 소유의 금지 등)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198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혁과정에서 베트남도 경제부문의 개혁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방국가들의 지원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한 베트남의 경제개혁프로그램에 의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베트남의 자본주의의 경험은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이미 35년이 넘은 베트남의 통일사례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 론 문

홍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발표해주신 예멘의 통일과정과 그에 관한 평가는 잘 들었습니다. 특히 통일에 관한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는 위대한 통일을 성업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멘의 통일에 관한 평가는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정	통일여건	협상과정
협상기 (1972-1978)	1972년 9월 남·북 예멘간 국경분쟁이후 리비아의 까다피 대통령 등 아랍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로 통일에 관한 논의 시작. 1977년 7월 북예멘의 알하미드(Al - Hamid) 대통령 암살로 양국간 긴장고조	1972. 10 [카이로 정상회담] 1972. 11 [트리폴리 정상회담] 1973. 9 [알제리 정상회담] 1973. 11 [타이즈호데이다 정상회담] 1977. 2 [카타바 정상회담]
합의기 (1979-1988)	1979년 2월 남·북 예멘간 제2차 국경충돌이후, 3월 [아랍연맹평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재개된이후 1986년 1월 남예멘의 정변으로 통합작업이 소강상태에 들어감	1979. 3 [쿠웨이트 정상회담] 1979-80. 특사 교환 및 각료급 회담 1981. 12 [아덴정상회담] 1981. 12 통일헌법 초안 작성 1982-85. 지속적인 실무협상 계속 1988. 4 [타이즈 정상회담]
실천기 (1989-1990)	1986년 1월 남예멘 정변이후 집권한 알아타스(Al-Attas) 정권의 광범위한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통합작업이 급속히 진행되어 1990년 5월 22일 통합이 전격적으로 선포됨	1989. 11 [아덴 정상회담] 1989. 12 [통일헌법초안] 발표 1990. 1-3[공동각료회담] 1990. 4 [싸나 정상회담] 1990. 5 [남북예멘 통합]

■ 예멘통일은 비록 통일이후 높은 실업률, 물가, 인플레이션, 환율급등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기는 하였지만, 역사적으로 <합의통일>에 의한 모델 케이스로 남을 것이며, 성공한 통일로 기록될 것이다.

■ 예멘통일은 국제질서 흐름에 잘 편승하였고, 주변 아랍국과 아랍연맹의 중재역할을 잘 활용하였다.

■ 예멘통일은 <선통합-후조정>이라는 '합의통일'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통일을 앞당기는 문호을 열 수 있었다.

■ 통합이후 '남북내전'을 거치긴 하였지만, '통합'과 '통일' 과정에 3년간의 <과도기>를 두면서 완전한 통일의 과정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가운데 하나가 <통화통합>인데, 예멘이 (물론 외부적 요인이 강하긴 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도, <경제통합>을 이루고 <통화통합>을 이룩해 낸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는 예멘인들의 민족성과 아랍-이슬람 전통은 체제를 초월하여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예멘통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 즉 남북간 경제구조의 보완적 필요성이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발표에 대한 질의

1. 사회적 통합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문제이다. 예멘의 경우 1983년 이후 <단일교과서>를 제작하여 교육하여 이질감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간 단일교과서 합의, 제작 및 활용과정을 설명해주고 통일이후의 효과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2. TV, 라디오, 매스미디어, 학술교류, 예술단체의 교류활성화 또한 동질성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예멘 TV의 경우 동시간에 동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 오늘날 TV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한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동에도 방영되고 있는데, 같은 언어권인 북한과의 교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TV 프로그램 교류에 관해 한국에 해줄 수 있는 교훈은 없는지?

3.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및 환율 폭등에 시달리면서 이룩한 예멘의 <통화통합>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전 북예멘 통화는 $1=YR12, 남예멘 통화는 $1=YD0.46이었지만, 통화통합 당시 양국간 환율은 YD1=YR26이었다. 통일이후 어려운 경

제문제중 통화통합을 예멘이 잘 견디었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한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남북간 재산권문제 해결도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 해결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P

토 론 문

조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1. 지난 20세기 일부 분단국들은 재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분단의 배경을 보면 독일, 한국, 베트남과 같이 2차대전 승전국간의 전후 처리 일환으로 야기된 분단, 예멘의 경우와 같이 영국의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와 냉전의 여파로 나타난 분단, 그리고 내전의 결과로 빚어진 타이완과 중국의 분단 등 다양하다. 이들 분단국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로 갈라졌으며, 각자의 정치·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성과 그들의 분단을 주도했던 강대국과의 관계 등 제요인을 바탕으로 국가통일과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투를 거듭하여왔다.

이들 국가들의 재통일의 형태를 보면 독일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흡수통일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북부공산베트남이 남부베트남을 정복한 무력에 의한 통일이다. 한편 예멘은 1989년 남·북예멘 간 합병 협상이 1990년 공식적인 통일로 이어진 협상에 의한 통일의 케이스에 해당된다.

향후 한국의 통일도 이와 같은 재통일의 형태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통일을 달성한 이들 국가들은 물리적 통일의 달성 이후 통합과 재사회화(Resocialization) 과정에서 갖가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한국에게 일종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심포지움의 의의도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카인(Khanh)교수의 『베트남 국가 통일의 진행과 과정 ; 역사적 경험』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이후 특히 2차대전 종식과 남북 분단, 프랑스의 재진주에 저항한

호치민 중심의 독립전쟁(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을 안겨준 제네바 협정(1954년 7월), 미국의 개입과 소위 민족해방전쟁(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승리(1975년 4월)의 결과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굴복시킨 최후 통일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과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대미전쟁과 관련하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부단결을 통해 전개한 북부공산베트남의 불굴의 통일의지의 우월성, 자국민의 지지를 잃고 외세에만 의존해온 허약한 남부베트남 정권 붕괴의 필연성을 대비하여 기술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이 보완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의 요인 중, 거의 결정적인 변수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대외적 요인, 그 중에서도 관련 강대국의 자국이익우선주의가 한 국가의 분단과 통일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차대전의 종식과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주장하여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받았으나 영·불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베트남의 분단을 방관하였으며, 1차인도차이나 전쟁(1946.12~1954.7)종식의 처리과정에서도 전투에서 완승한 호치민과 보응웬지압 장군에게 안겨준 전리품은 역시 남북분단이었다. 이것도 또한 호치민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중공)이 동서 양진영의 평화공존의 미명하에 소련은 유럽에서 자국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전국인 프랑스의 입장을 옹호하고 호치민의 국가통일의 의지를 꺾는 제네바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압하였다. 한국 전쟁의 쓴 경험을 가진 중국 또한 인도차이나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재연될 것을 꺼린 나머지 『통일된 베트남』보다 『분단된 베트남』이 자국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호치민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둘째, 2차 인도지나 전쟁(1964.8~1975.4) 종식과 베트남의 공산화통일 달성 이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남 · 북 베트남 통합의 내용에 관한 기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3. 카인 교수에게 드릴 몇 가지 질문은 통일 후 남북 통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첫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붕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남베트남정권에 대한 지원의 부족 때문인가? 남베트남 내부 분열 때문인가?

둘째, 남베트남 해방 후 1975년 11월 남북통일 협상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시 NLF가 주도한 남부베트남임시혁명정부가 북베트남정부와 별도로 외교사절 접수는 물론 유엔가

입신청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행보를 보였다. 북베트남 정부와 당이 남북통일정부 구성을 점진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나? 아니면 일시적인 위장전술이었는가?

셋째, 통일 베트남 국가 구성(1976.7월)과 관련하여 군관위원회, 접수위원회 등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부베트남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조치, 예컨대 사상개조를 위한 재교육, 신경제지구의 강제노동 등이 통합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당시 캄보디아 폴포트 세력의 소의 킬링필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넷째, 베트남은 통일 후 남부베트남에 대한 급진적인 공산화 추진이 역작용을 일으키고, 캄보디아 및 중국 등과 전쟁(각각 1978.12월, 1979.2월)에 돌입하여 경제적 파탄은 물론 대외관계 정립에 실패하였다. 도이머이(Doi Moi)정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되는데 남·북 인민간의 소위 화학적 통합은 아직도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장기간 상호 다른 체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북베트남의 진정한 통합은 가능한 것인가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 Program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English will be provided.]

13:30 Registration

13:35 Opening Remarks **Colin Dürkop** Resident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Korea Office

13:40 Greeting Remarks **Yoon, Yeo-Joon**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Peace Foundation

13:50 Facilitator **Park, Myoung-Kyu**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ssion 1 |

Lessons from the Unification Process of West and the East Germany

Presentation 1

West Germany—Overcoming the Economic Burdens on the time of the unification

Ulrich Blum President, Institute for Economical Research, Halle University

Presentation 2

East Germany—Rationale for East Germans choosing the early unification

Lars Hänsel Resident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Jerusalem Office

Panel Discussions

Cho, Seong-Ryoul Senior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e, Young-Hoon Senior Economist, Northeast Economic Studies Team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Research, The Bank of Korea

Kim, Byung-Ro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 Tea Break

15:50 Facilitator **Kwon, Young-Kyong** Professor,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 Session 2 |

Lessons from the Unification process of Yemen and Vietnam

Presentation 3

Yemen—How did the Unification from consensus turned to civil war?

Ahmed M. Al-Kibsi Professor,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Sana'a

Presentation 4

Vietnam—Was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means impossible?

Nguyen Van Khanh Professor & Dean, College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National University of Hanoi

Panel Discussions

Park, Jong-Won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Hong, Seong-Mi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the Middle East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o, Jae-Hyun Professor, Department of Vietnames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30 Plenary for the Panels

Lessons learnt from each nations and what could be adapted in Korean context

18:10 Closing Remarks **Ven. Pomnyun Sunim** Chair, Peace Foundation

18:20 Closing Session

Colin Dürkop | Resident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Korea Office

Brief Profile

1994-2002 Konrad-Adenauer-Foundation Headquarters Sankt Augustin/Bonn Germany
- Section Chief: West, South and Central Asia
- Section Chief: Southeast and Central Asia
- Director of Asia Department

Since 2002 Regional Representative of the Konrad-Adenauer-Foundation for East and South- East-Asia, Singapore

Venerable Pomnyun,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with honour and pleasure alike to welcome you all to today's conference on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Peace Foundation for having organized such an attractive event, looking at the unification processes of Germany, Vietnam and Yemen from a comparative angle.

Ladies and Gentlemen, Korea and Germany share the same destiny of a divided nation over a long period. In view of this specific characteristic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 focus of the Foundation's work in Korea - ever since KAS came to Korea over 30 years ago - have always been issues related to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Korea.

Germany's experiences from it's own struggle towards national unity might provide some

points of reference for Koreans - despite the completely different geopolitics and overall framework conditions prevail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German reunification remains a very popular case study: over the past 20 years dozens of study visits were organized for Korean experts to visit Germany and to analyze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German unity. Similarly, numerous conferences and seminars on this topic were held here in Korea such as the present one.

But German unity is only one case study among others. There are more case studies to look at, such as Vietnam and Yemen. Also Cyprus remains a divided nation.

If there is one lesson that Korea could learn from the Geman experience, in my view it is the following:

— Be prepared: reunification might happen rather suddenly -- in quite an unexpected manner.

— The road to national unity might be a bit bumpy and costly, but there is no doubt: after it comes about and after some time it will be a success story for Korea as it was in the German case. Korea will re-emerge as a formidable middle-sized power in the Region.

On this note: Good luck, Korea!

Thank you.

Yoon, Yeo-Joon |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Peace Foundation

Brief Profile

Present

Chair, Korea Local Development Institute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Peace Foundation

Former

Member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Minister for Environment

With rising tensions on the brink of detrimental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tting various sanctions on North Korea, thereby generating more hostile response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seems we are returning to the era of confrontation rather than the cooperation, making all the more difficult to pursue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We are reminded yet again, all conflicts and dispute rises.

With this in mind, the need for unification is crucial than ever, it is time that requires more detailed and realistic measure be prepa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Following from the policy proposal the Peace Foundation has proposed last year; ‘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Mutual Benefit: a process seeking for reconciliation and to mutually benefit as a nation, we would like to learn from the nations whom overcame the division, for us to adapt in drafting a more practical implementation.

With these objectives, the Peace Foundation and the Konrad-Adenauer-Stiftung has organiz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with the theme of the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the nations experienced division. Learning from each nation's concerns and findings, despair and disappointments with stories of success from their own live experiences from Germany, Yemen and Vietnam, and how to implement and apply on the context i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like to tribute special thanks to Ulrich Blum, the President of Institute for Economical Research at the Halle University in Germany, Dr. Lars Hansel, who was from former GDR and currently i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Konrad Adenauer in Stiftung Jerusalem office, Prof. Al-Kibsi, the Vice President at the University of Sana'a and Prof. Ngyuen Van Khanh, Dean at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National University of Hanoi.

Also Colin Dürkop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Konrad Adenauer Stiftung in South Korea who has co-organised this symposium, and the moderators of the both sessions, Dr. Park Myung-Kyu,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rof. Kwon Young-Kyong at the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Dr. Cho Seong-Ryoul, Dr. Lee Young-Hoon, Prof. Kim Byung-Ro, Prof. Park, Jeong-Won, Prof. Cho Jae-Hyun and Prof. Hong Seong-Min for being on the panel of the symposium.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interpreters, Kim Se-Jung, Choi Moon-Sun and all the staffs and volunteers who have worked so hard to make this symposium possible today.

It will be the day of commemorating 6.25 Korean war in two days time. In particular, this year, we are commemorating 60years since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I would like to sincerely hope that outcome of this symposium could be a trigger to build a new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urning from war to peace and division to the unification. The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t the Peace Foundation will do its utmost to achieve our goal and we will look forward to all of you to support us.

Thank You.

June 2010
Yoon, Yeo-Joon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Peace Foundation

Facilitator | Park, Myoung-Kyu

Present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Visiting Professor, UC Berkeley, USA
Director,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Presentation | Ulrich Blum

Present President, The Institute for economical research, Halle University

Former Professor, University of Bamberg
Guest Professor, University of Montreal

Presentation | Lärs Hansel

Present Resident Representative, The Konrad-Adenauer-Stiftung, Jerusalem, Israel

Former Head, Division of Western Europe, USA
Konrad-Adenauer-Stiftung, Berlin, Germany
Head, Division of West-, Central- and South Asia
Konrad-Adenauer-Stiftung, St. Augustin, Germany
Deputy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Jerusalem, Israel

Comment | Cho, Seong-Ryoul

Present Senior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irector, Korean Political Society
Director,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Former Director, Security Studies Progra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Director, Planning Office, RIIA

Comment | Lee, Young-Hoon

Present Senior Economist, Institute for Monetary & Economic Research, The Bank of Korea

Comment | Kim, Byung-Ro

Present Research Professor,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er Senior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Division of North Korean Studies, KINU
Professor and Director of North Korean Studies,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Facilitator | Kwon, Young-Kyong

Present Professor,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Chairman, Committee for Studies of Unified Economic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 of Korea

Presentation | Ahmed M. Al-Kibsi

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Sana'a University, Sana'a, Yemen
Chair, Academic Committe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Sana'a University, Sana'a, Yemen

Presentation | Nguyen Van Khanh

Present Professor, Rector of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noi National University

Former Associate Professor, Vice-Rector of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noi National University

Comment | Park, Jeong-Won

Present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Comment | Hong, Seong-Min

Present Research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Dean,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Director,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c/o RIES
President, Korea-Yemen Center (KYC)

Comment | Cho, Jae-Hyun

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Vietnames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The Peace Found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2010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Presentation 1

West Germany—Overcoming the Economic Burdens on the time of the unification

Ulrich Blum President, Institute for Economical Research, Halle University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German Unification

Prepared ("non-spontaneous") Unification
Peace Foundation and Konrad-Adenauer Foundation
Seoul, June 23rd, 2010

Ulrich Blum

© iwh, Prof Dr. Dr. h.c. Ulrich Blum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hat to Learn I:

German Transformation is special because

- echoes of Second World War
- one nation, two countries, and a very short-timed „window of opportunity“
- huge migrations, siphoning of economic resources, devalued stock of capital
- “rather successful results”: new East German technology path

6/21/2010 PF_KAS, 23.6. 2010 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hat to Learn:

- Transformation thus was fundamentally different to what happened in othe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iuntries.
- As a consequence, failures and successes are very close!

… and:

Preparation was nil before Unification

… but very intensive afterwards!

6/21/2010 PF_KAS, 23.6. 2010 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UNIVERSITÄT BAMBERG

6/21/2010 PF_KAS, 23.6. 2010 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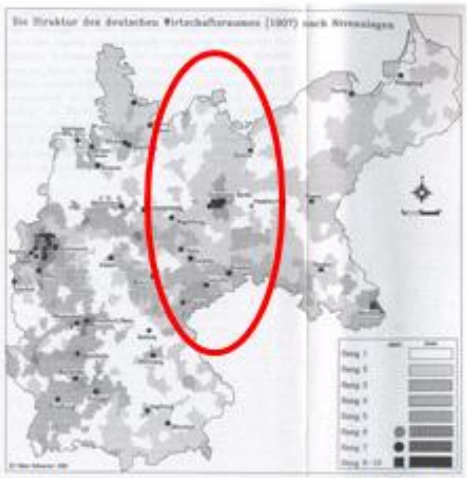
Part I:

Preconditions to Unification

6/21/2010 PF_KAS, 23.6. 2010 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ealth in Germany, 100 years ago



- Central Germany was the core area of economic performance!
- This started to change in the Thirties
- Why no second Wirtschaftswunder (but Wirtschafts-blunder")

6/21/2010 PF_KAS, 23.6. 2010 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he Dire Facts before 1989:

- Consequences of the War: the state of 1945
- Communism and expropriations, 1946-1949; 1972-1974
- Competitiveness: 1981 / 1988 balance of payments crisis

6/21/2010 PF_KAS, 23.6. 2010 7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hat has Happened?

A Misperception of Reality

East German Product as Share of West German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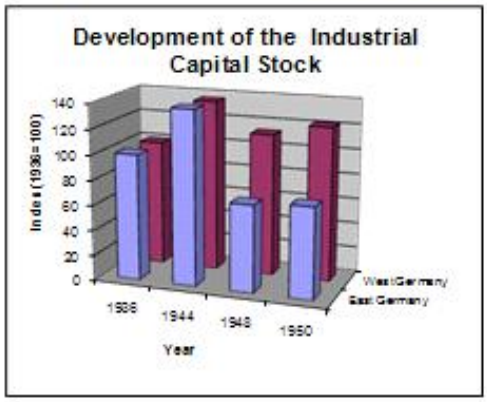
Source	Year	pcGNP	Source	Year	pcGNP
DIW	1980	68%	CIA	1985	102%
World Bank	1980	53%	CIA	1986	76%
Maurer	1980	43%	Filip-Köhn/Ludwig	1988	57%
Summers/Heston	1980	80%	GDR	1988	78%
DIW	1983	76%	Ehrlich	1989	70%
Klinkmüller	1984	43%	DIW	1989	53%
GDR	1984	93%	Merkel/Wahl	198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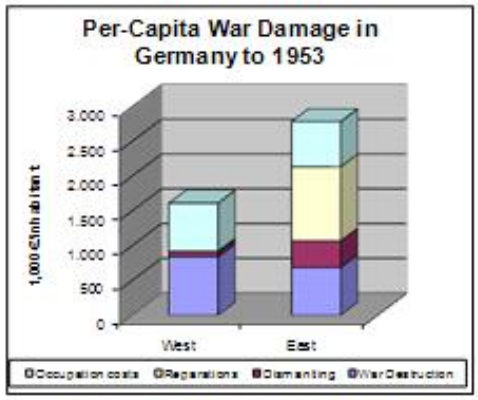
Table accumulated from Wegener (1995, p.45)

6/21/2010 PF_KAS, 23.6. 2010 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Effects of WW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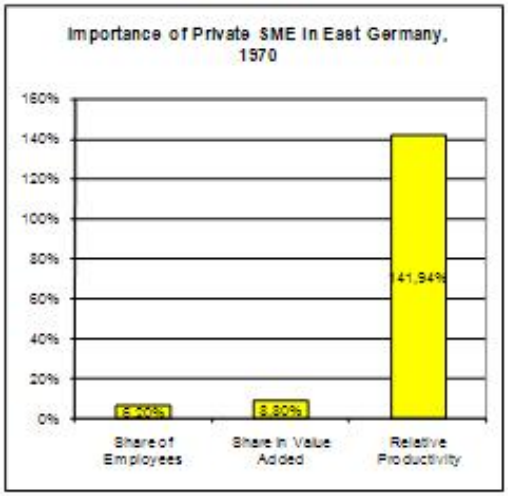


East Germany's relative disadvantage originated from after the war!

6/21/2010 PF_KAS, 23.6. 2010 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he Historic Productivity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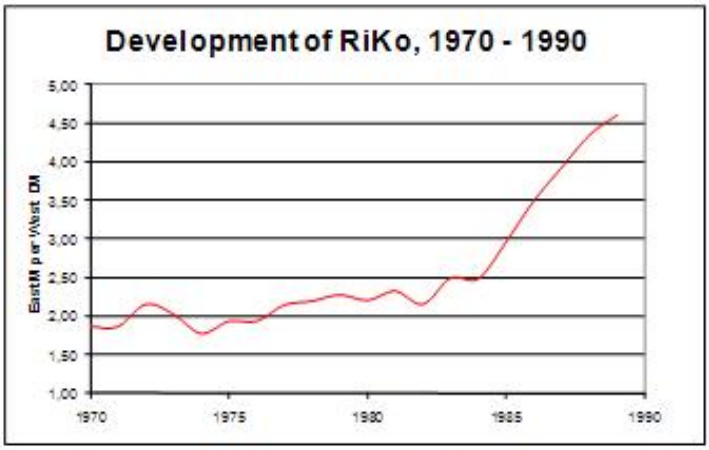


-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East Germany heavily depended on its SMEs
- The expropriation explains the first export crisis in the early 1980s.

6/21/2010 PF_KAS, 23.6. 2010 1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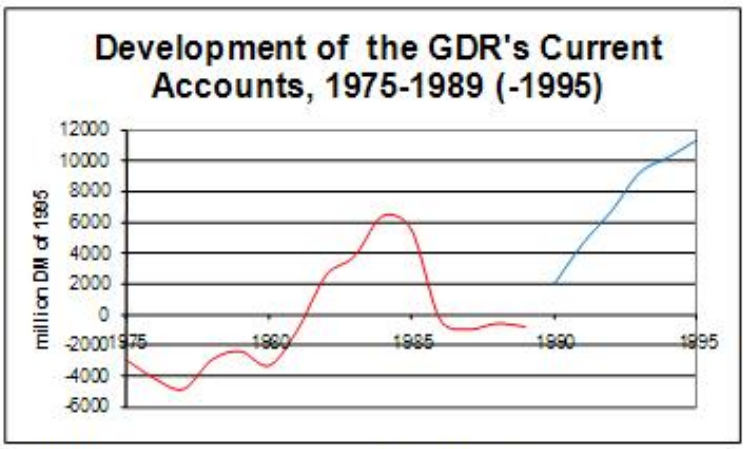
Erosion of Foreign Export Position



6/21/2010 PF_KAS, 23.6. 2010 1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Current Accounts: the Stalemate



6/21/2010 PF_KAS, 23.6. 2010 1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 Rotten Industrial Base

- Contrary to Germany after WW-II, the stock of capital was not modern.
- Contrary to Germany after WW-II, the product mix was not competitive, especially with respect to a by far too large vertical integration.
- Contrary to Germany after WW-II, the competence for "capitalist virtues" did not exist.

… and the method of privatization and "turn around" worsened the situation!

6/21/2010 PF_KAS, 23.6. 2010 1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Part II:

Two constitutional paths to Unification

6/21/2010 PF_KAS, 23.6. 2010 1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Contingency Planning I

- 10 Points Plan
- 2+4 Talks
- Monetray, Economic and Social Union March-July 1990
- Political Union
  - Free Election March 1990
  - Unification October 1990

6/21/2010 PF_KAS, 23.6. 2010 1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Contingency Planning II

- Article 23: Accession
- Article 146: Joint new Constitution

Choice of the first approach

- for reasons of practicability,
- Problems of legal status "provisional status of eastern provinces" of until 1990

6/21/2010 PF_KAS, 23.6. 2010 1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Part III:

Two constitutional paths to Unification

6/21/2010 PF_KAS, 23.6. 2010 17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he Dire Facts after 1989:

- Transfers and "Dutch Disease" as economic collateral damage of "one nation" status
- Break-down of the industrial base and of innovation systems
- Demographic "depletion"
- Property rights chaos

6/21/2010 PF_KAS, 23.6. 2010 1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he Reorganization Problem 1989:

- How, with which resources and on what basis to start a social search process for new products which is credible to investors?
- Is regional tradition ("milieu") an "ultimate resource"?
- What to do if outmigration and inward investment do not stabilize the system?

6/21/2010 PF_KAS, 23.6. 2010 1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Political Stabilization

- Setting up of the two lower parts of the German federal system: Lander and Communities;
- Massive organizational help to set up properly functioning legislative, judic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6/21/2010 PF_KAS, 23.6. 2010 2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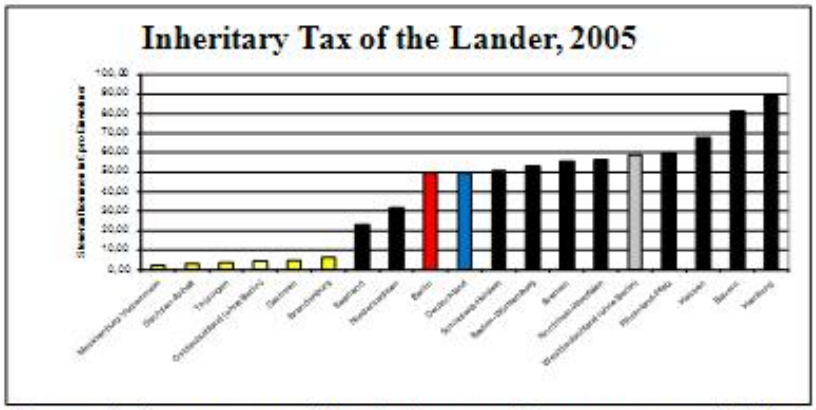
Economic Stabilization

- Reorganization of property rights
- Priority on Privatization over consolidation / firm restructuring
- Large (capital) subsidies for buyers of firms
- Transfer of social security funds

6/21/2010 PF_KAS, 23.6. 2010 2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Insufficient Property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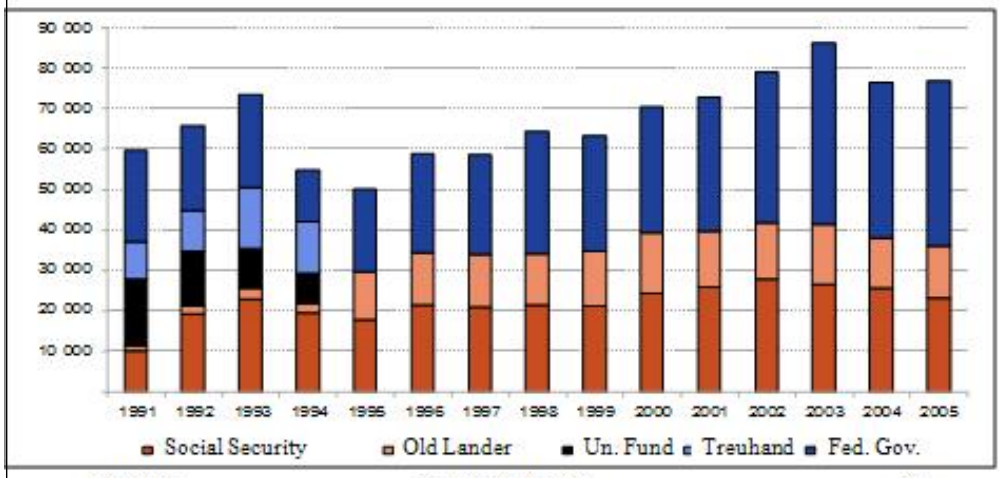
- Expropriations accepted by the German Government and FDI reduce internal ownership structure.
- This is a burden to civil society.

6/21/2010 PF_KAS, 23.6. 2010 2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ransfer Dynamics

mn €



6/21/2010 PF_KAS, 23.6. 20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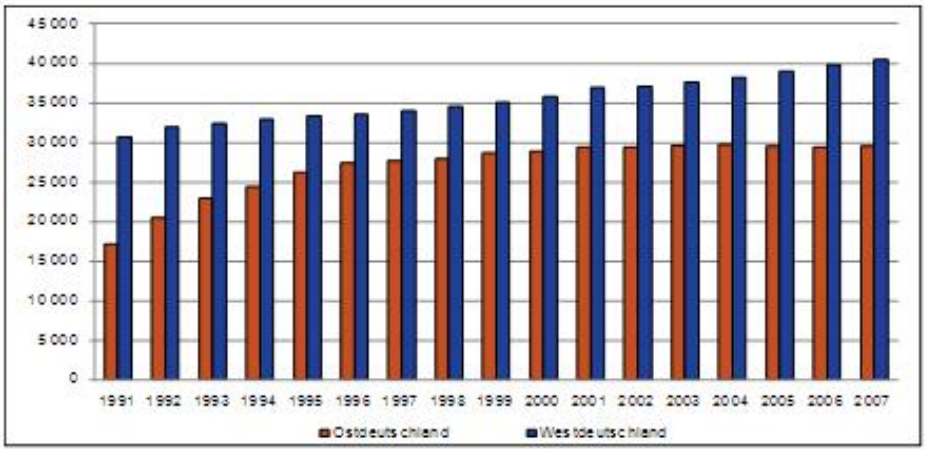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Part IV:
East german technology Path

6/21/2010 PF_KAS, 23.6. 2010 2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Disposabl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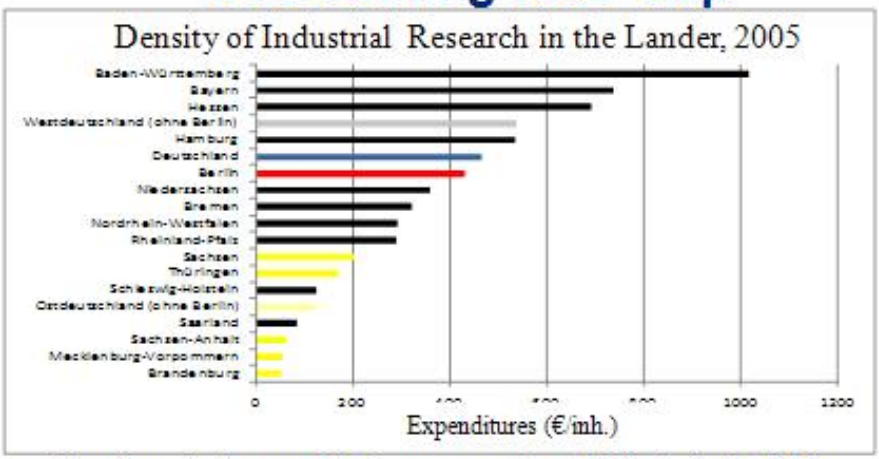


Why does the productivity gap not close?

6/21/2010 PF_KAS, 23.6. 2010 2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Overcoming R&D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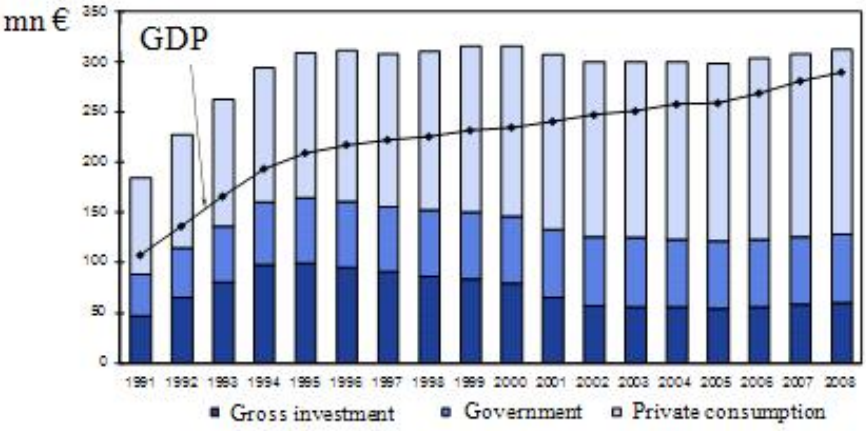


- One important necessity is no generate sufficient private R&D,
- But some western regions are even worse!

6/21/2010 PF_KAS, 23.6. 2010 2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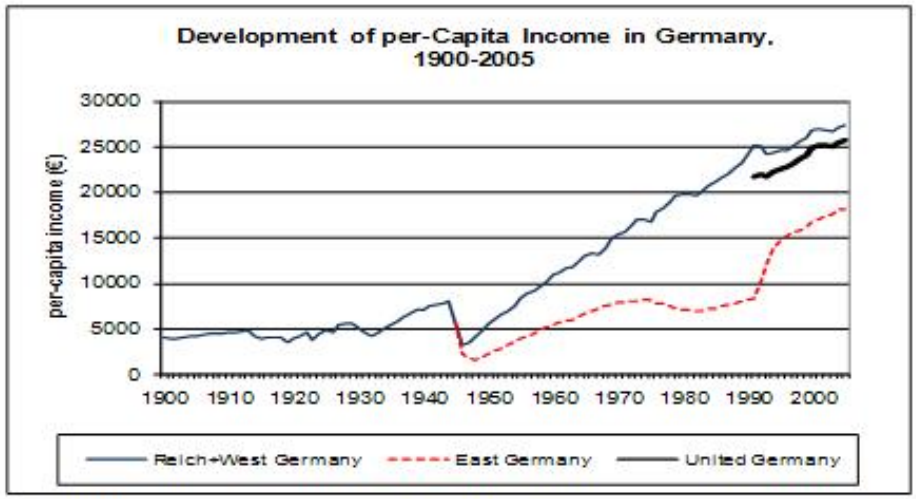
Demand and Supply in East Germany



6/21/2010 PF_KAS, 23.6. 2010 27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The Long-Term Perspective



6/21/2010 PF_KAS, 23.6. 2010 28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How to turn Misery into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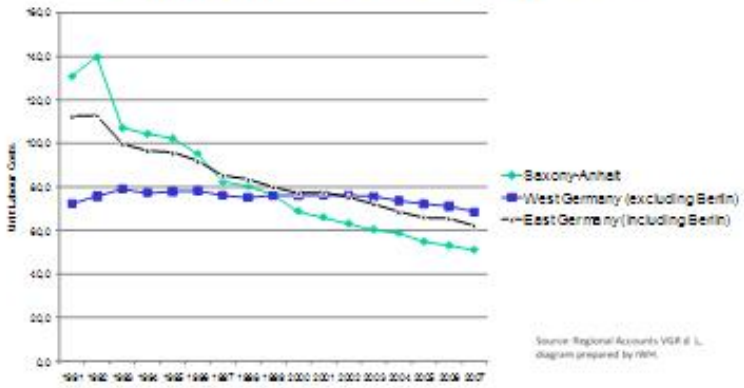
- What type of growth paths
- nit Labor costs and Competitiveness
- What is the binding constraint?
  - infrastructure
  - human capital
  - technology
  - investment
  - Market structure / entrepreneurship

6/21/2010 PF_KAS, 23.6. 2010 29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Competing for Competitivenes

Unit Labour Cos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 (Employee Earnings per Employe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 Gross Value Added per Employed Pers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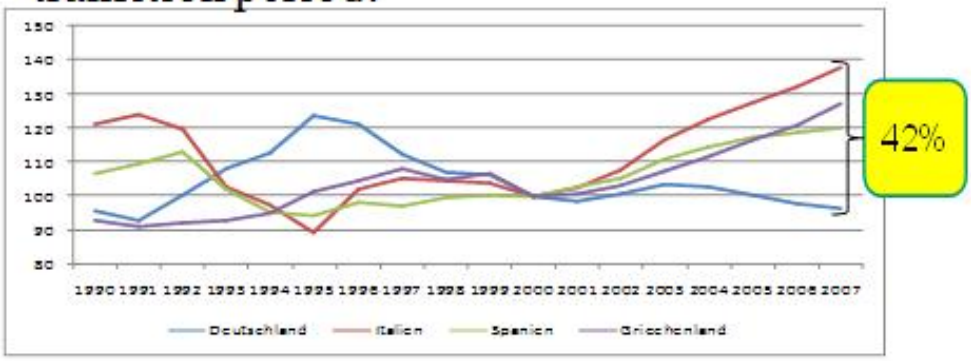


21.06.2010 PF_KAS, 23.6. 2010 3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 vis a vis the Rest of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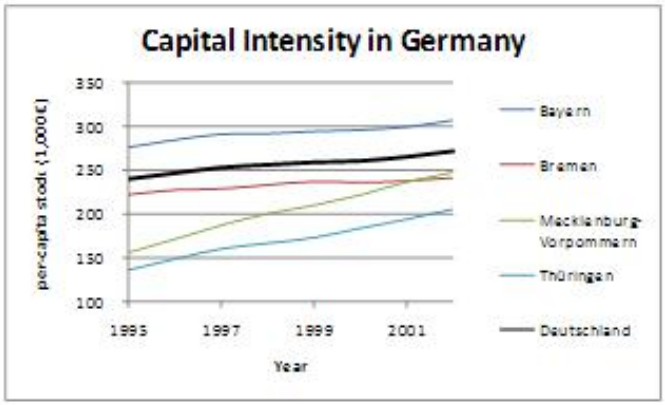
Huge divergences in Europe over the post-transition period!



6/21/2010 PF_KAS, 23.6. 2010 31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Capital is not the Reason for Stag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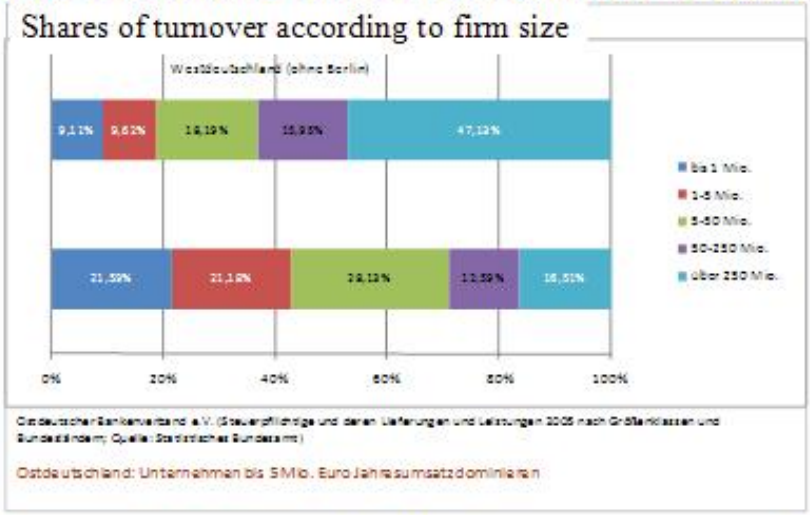


East Germany lacks headquarters that are responsible for about 30% of GVA

6/21/2010 PF_KAS, 23.6. 2010 3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Group Structure and Headquarter Problems



21.06.2010 PF_KAS, 23.6. 2010 3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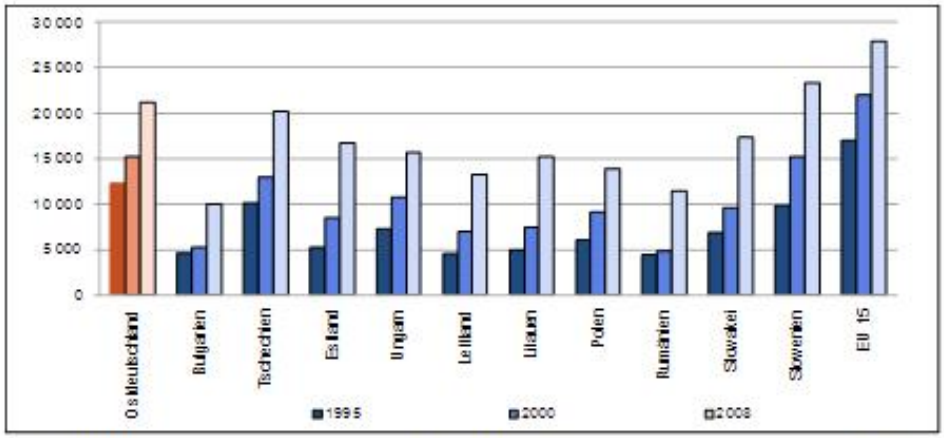
What Type of Economy?

Type of Industrialization	Head-quarters	Financial Service	GMEs	Middle Class	Technolo-gical Leadership
• early industrialzed	√	√	√	√	√
• late industrialized	(√)				
• post-transformation					
• emerging markets	(√)	(√)			√

6/21/2010 PF_KAS, 23.6. 2010 34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Success – Compared to what?



6/21/2010 PF_KAS, 23.6. 2010 35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hat to Do?

- More time (1 generation?)
- Support expansion of international SMEs
- Prevent out-migration of successful firms
- Improve ownership structures
- Use new comparative advantages with Eastern countries
- Stabilize new technological trajectory

6/21/2010 PF_KAS, 23.6. 2010 36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lle

What to Learn?

- Korea is more extreme and needs more time
  - politically
  - economically
- "political fission" a nightmare?
- Create more economic zones as islands of success?
- Stabilize R&D where existing
- Prepare for property regulation

6/21/2010 PF_KAS, 23.6. 2010 37

Presentation 2

East Germany—Rationale for East Germans choosing the early unification[20)]

Lars Hänsel Resident Representative, Konrad-Adenauer-Stiftung, Jerusalem Office

Introduction

Let me start on a personal note: I consider it an extraordinary and very significant circumstance that I am speaking to you today. I was raised in communist Germany and was 22 when the Berlin Wall fell 20 years ago in 1989. If somebody had told me in 1988 that I would give a lecture in Seoul, coming directly from my current work position in Jerusalem, representing an organization (named after the political arch enemy of the communist leaders in East Germany Konrad Adenauer), which works in more than 100 countries promoting freedom and democracy – I would have considered this person crazy or somebody who had visions in a clinical and pathological sense, visions that have to be treated by a psychologist. I never even could have dreamt about traveling the world before retiring – only then were you entitled to leave the country and travel. Some in the government then hoped you would leave for good in order to relieve the pension funds...

But it turned out that those visions of freedom became true. Because I do have this experience of 22 years of lack of freedom and discrimination, I very much appreciate what I have and what I am today (I do not say that you cannot do it without this experience) and it is not only a job for me to promote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framework of

20) Draft, please do not quote

the Konrad-Adenauer-Stiftung, but something which relates to my experience and is deeply heart-felt.

What I will present today, I am describing not as a historian or from a distant and critical academic point of view. I will try to share with you from my point of view some memories and reflections on the time of communist East Germany as well as on the time of the 1989 revolution.

And here is another disclaimer: I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I will not try to draw parallels or comparisons. Lacking this knowledge, I do not know what elements of the German development could be of particular interest for South Korea. I was impressed, though, when I learned that there is not only a Ministry for Unification but also a broad effort to prepare for a situation, when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politically possible. This I can compare: We in Germany did not have such a ministry, not in West Germany and definitely not in the East. Nobody was prepared for this opportunity to reunite Germany, even though unification was present in political rhetoric in the West. Later I will talk about the reasons for the lack of preparedness that are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unification was seen in both parts of Germany.

I was therefore grateful – because I am not familiar with the situation here - to receive some key questions that are of interest to you and I will try my best to address most of them. I would like to divide my paper about unification into two parts:

Firstly,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question of the role played by the unification in the minds of the people in the time of communist East Germany - of how the West was seen by the people in the East, from the societal point of view, but also the policies in the West, like the famous "Ostpolitik". What was so attractive about the West? But of course, in relation to that, I will also have to talk about the situation under the communist regime. I will try to illustrate my point that life under the communist regime (and I will talk mainly about the experiences in the 80's), the longing for freedom and a self-determined life, but also consumer opportunities and a better standard of living were major reasons for the attractiveness of the West. The West was not merely a screen for projecting a variety of needs and hopes. The West was seen by many as a role model,

not necessarily a state one could realistically aim to unite with. I would like to maintain that unification was not on the horizon for most of the people in the 80's, mostly because they realized the threats of the Cold War.

Second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time of the revolution in 1989 and 1990 and the role of elections in this process: a) the election fraud in 1989 as one element leading to the 1989 summer and autumn developments weakening the communist regime and b) the first free elections leading to German unification that finally ended the old regime and entailed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how the unification process was seen by the people and which, in their view, were the different ways of leading to it.

My main point here will be that although unification was not the foremost idea in the beginning, it soon became the only realistic option due to developments inside and outside East Germany and thereby leaving not only the formerly ruling communist party but also the opposition movement without political support, rendering them irrelevant. The motivation for unification was the longing for freedom unification was not a goal in itself.

1. No unification on the horizon: Life in East Germany and the attractiveness of West Germany

a) Situation in East Germany: lack of freedom

The situation in East Germany with all its limitations and the lack of freedom was the main reason for the attractiveness of West Germany. Therefore I would even maintain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attractiveness of the West lied *within* Eastern Germany.

Of course there was a joint history and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With the years, the separation was not really accepted but most people in the East tried to arrange themselves with the situation. Of course there was hope that Germany would be reunited in the future, but nobody really believed in it. This hope was stronger in the East than in the West among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leadership in the West still maintained in their declarations the goal of German reunification (with differences among the parties), whereas the communist leadership in the East gave up on this notion.

But in general nobody really believed – there was no such belief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not in the political leadership that German unification would materializ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refore, the most one would hope for were change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people in the East.

But what was the situation? What were the major limitations in life in East Germany under communist rule? I will try to draw a picture, but of course, I can only mention some elements and examples. The reality was indeed much more complex. I do not want to talk here about organized opposition to the system and the role of the secret service terrorizing people. But I want to mention some examples of experiences of "ordinary people", experiences that contributed to widespread unrest and dissatisfaction.

Let me start with education - in kindergarten and school. Education did not promote free and creative thinking and the development of a self-confident personality. On the contrary, education was seen as a tool to form a "socialist personality". People were expected to accept and internalize the official doctrine that was promoted by the ruling communist party SED. In School or at the meetings of the state-controlled youth organizations like the "Pioneers" and "FDJ/Free German Youth" discussions on political issues were conducted by the teachers and facilitators with the expressed goal "to find a common opinion", which was of course a predetermined opinion by the party. Any divergence from this truth was seen as problematic and potentially a threat to the system.

Related to that, there was no freedom of expression. Other opinions were not only unaccepted but often persecuted. For many this led to a schizophrenic situation: You would talk differently at home than in school or in public. Expressing a different opinion would have consequences. This was also a fertile ground for denunciation, the control by the Stasi (secrete police), which operated 91,000 professional and 200,000 unofficial agents to observe the population of approximately 16 Million people. This led to a feeling of general uncertainty and full control. People did not dare speak out.

The role of the school system, but even more so the role of mass organizations was mainly to make sure that the official doctrine was understood and accepted by all. No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utside the official communist mass organizations were

allowed – except for the Church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Churches and in particular the work with the youth were seen as a potential threat to communist education. I was very active in the youth movement of my Church. It was the only place where I could breathe freely. It was kind of a bubble I lived in, where I found refuge and where I could talk and discuss all questions of life without indoctrination. Without this free space, I think that not only would I have suffered more but I believe that life under these circumstances and lack of freedom would have been unbearable.

Joining the mass organizations was mandatory and more or less happened automatically. To reject joining the communist youth organization had to be explicit and that made you a member of a negligible minority – which in turn also had consequences for your career. I think one of the reasons for joining a mass organization like the young pioneers, the FDJ – Free German Youth (there was nothing free about it), and later the SED or one of the nominal different parties (one cannot talk about a party system) was because everybody did it, everybody joined.

Another reason to join was to advance your career. For example, my father, an engineer, never advanced in his work even though he was considered one of the best engineers in his company because he refused to join the FDJ and later the SED.
And of course, there was also the tiny minority of those who believed in the system and joined the mass organizations out of conviction.

I, for myself,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youth movement – but not because I believed in the doctrine, but because I wanted to make sure that I could participate also in the discussions and could make my point which would differ from the official "Weltanschauung".

So, one of the problems for many people was the schizophrenic situation and the lack of self-determination if you stuck to your opinion or convictions.

(My story: lack of self determination,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dissenting, discrimination as a Christian, wishes to study medicine, rejection because of "Bausoldaten"/Army service without weapon, that was legal but considered as act of disloyalty, Theology as only course of studies possible)

Another problem was the lack of freedom (of movement). I think this was one of the toughest problems for many people. You could travel only to the socialist countries, but to some of those countries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instance, to the Soviet Union only organized tours were allowed. The border to Poland was closed in the beginning of the 80's with the rise of the Solidarnocs opposition movement in order to prevent a spill over to East Germany. So our "world" was quite small. South Korea was not on my globe at that time. In general, most of the people were able to travel beyond the socialist states only after retirement. Many people counted the years until they would be able to get out, to see West Germany or other Western countries. Of course, another obstacle was the fact that we did not have convertible money, the money of the GDR was not accepted in the West. So even if you had worked hard your whole life and were allowed to travel after retirement, you would not have the money to really go anywhere. When my grandparents traveled to West Germany they always had to rely on the generosity of our relatives in the West. But they were lucky to have relatives...

Lack of freedom was also experienced when it came to free information. Western media, newspapers, magazines etc. were banned. To bring books into the GDR was only allowed under certain conditions, many books were banned. I remember that we would pass on Orwell's "1984" and Soltschenitzin's "Archipel Gulag" and other books under the table at school, always aware that we could be persecuted for possessing these books.

With this policy of limiting access to information, the communist party tried to ensure that people would be only in contact with the official doctrine and narrative and would not be too much confronted or disturbed by other opinions or other historical narratives. This expressed a very paternalistic approach: people had to be protected.

(Case: ban of Sputnik)

Another important and central part of our experience was the shortage of many goods... long lines in front of shops (famous example: bananas)

There was no freedom of private economic activity. It was not illegal, but privat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re heavily taxed that it became impossible to maintain them.

My grandparents had a wholesale company, but in the end they had to close it down and to give away the real estate for free.

Part of the reality in particular in the 80's was a growing feeling of "powerlessness" in many fields: one example would be ecology. The GDR had major problems, but any discussion in public or in the mass organizations was taboo. Some tried to form discussion groups (outside the mass organizations and therefore per definition illegal unless they took place under the roof of the Church) to talk about the issues. Ecology is a good example for an issue that not only human rights activists and opponents of the system understood, but which many people saw in their daily lives. In the 80's people understood that something on the government level has to be done to address the forest dieback, the pollution of air (the famous chemical plant in Bitterfeld were I served part of my army service was only one extreme example everybody knew in the GDR), pollution of lakes and rivers. This was not an issue that you could cover with propaganda. In particular, ecological problems lead to a broader sense of inappropriateness of official policies and to the realization that change was necessary – but nothing happened.

Another example for a source of growing unrest was the totally inappropriate maintenance of historical structures. My hometown Bautzen is 1000 years old, survived many centuries but it seemed that finally the communist regime succeeded to achieve what centuries were not able to destroy: more and more of the historical structure. One of the reasons was lack of material, but also lack of craftsmen, that were inlost.

Many found ways to arrange themselves with this situation lacking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But many cases sent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to Berlin to maintain the capital. Also this led not only to jokes, but to unrest among the people not living in Berlin.

Many found arrangements with this situation, lacking freedom and more saw the inconsistencies and flaws of the system.

I think, in general, one could witness the following reactions to the situation:

1) ***arrangement*** (biggest number of people): play the game, shut your mouth, become a

member in order to advance your career etc.

2) ***looking for niches***: churches, withdrawal into inner emigration, hope for retirement to travel etc.

3) ***opposition and civil rights groups*** to change the situation (but many did not join the opposition, because they believed one could not change anything anyway,)

4) ***leave GDR legally*** (Ausreiseanträge/applications to leave the GDR) ***or illegally*** – *either by escaping or through paid exchanges* (example: my aunt it was a good "business" for the GDR receiving up to 50.000 Euro for one prisoner) –

But Reunification was not part of the discourse, nobody believed in it anymore.

b) The West as seen in the East

How was the West perceived in the East? In general West Germany was part of the "Free West". Therefore, the main feature that made it attractive was freedom: freedom to travel, to consume, to express yourself, to pursue your goal in life. West Germany was seen as the door to the big wide world. The United States were seen by many as THE free country per se – despite East German propaganda. There were reasons that could be found in the West – or at least in the perception about the West, why West Germany was attractive to people.

There was illegal and legal emigration to West Germany. Many tried to escape from the East and paid with their life (about 1300 who tried to cross the border illegally were killed), others were caught and put in prison. In the 80's West Germany paid about 100.000 Deutschmark, equivalent to about 50.000 Euro for each prisoner - illegally (story of my aunt). There was also legal emigration. You could apply to emigrate it often took years to get a reply. In the meantime, these people were criminalized. I will relate to this later on.

The media played a major role for the perception of West Germany – it spoke the same language, which made a comparison between East and West quite easy. For a long time, the communist leadership tried to prevent people from getting exposed to West German media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it would hurt their own (patronizing)

propaganda.

The reception of Western TV stations and radio programs was actually not possible in all parts of East Germany. I come from a part that did not receive TV from West Germany, because we were too far in the east. This area was called "the valley of the clueless / Tal der Ahnungslosen". But I belonged to a minority in the GDR.

What is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in those areas without reception of Western TV stations, more people applied to leave the country.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people had an even more idealized picture of the West when they could not follow the daily developments in the West. But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media was not only a source of information but often simply better entertainment. And many, also with TV reception, had an idealized picture of the West. Few followed politics and understood the challenges also faced by the West. For many I would maintain, the *West was a projection screen for their longing for freedom* and not necessarily attraction for the concrete situation and living conditions in the West. (On the other hand, the West was also a projection screen for the communists where they projected all evil. The perceived threat by West Germany basically served as an excuse for the suppression of civil rights in East Germany) Maybe I should mention here that there are many stories of those who emigrated to the West but did not succeed to integrate or find their place in society.

The media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ing unrest and ultimately also in the peaceful revolution. After participating in demonstrations in Leipzig I listened to the evening news and the reports about the demonstrations and the number of people that had joined the demonstrations in the streets. Today I sometimes ask myself, how the communist leaders would have managed to prevent people from using the internet.

Another important element were family ties. Those who had relatives in the West belonged to a privileged part of society.

Relatives in the west were an important asset: They were not only an important direct or indirect source of information (by sending books or other media), but also an important source for consumer goods that were lacking in the East. Since everything was lacking at certain times, relatives that sent consumer goods to the East contributed an important part

to the standard of living for many. The money they would bring was also important, since many services like plumbers, mechanics, carpenters etc. were notoriously lacking (due to a misguided policy that would not encourage private enterprises) and only available by paying with West German Deutschmark.

The West was attractive also because of cultural reasons: Jeans, Rock and Pop Music, Youth culture (even language) were models for the East. Sometimes per se, but sometimes because they were symbols of freedom: Levis Jeans were not necessarily better than Eastern fashion, but they were a symbol of the free world.

Bonn's "Ostpolitik"

The "Ostpolitik" of the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the Free Democratic Party (FDP) under Chancellor Willy Brandt was controversial among the people in the West and in the East. The SPD tried to translate the reality of the separation after World War II, that had been lasting already for almost twenty years, into pragmatic policies - basically giving up on the idea of future unification.

Major elements of this "easing-of-tensions-policy" were the transit agreement of March 1972 and a basic agreement with the GDR in November 1972 acknowledging the GDR as an independent state. The motivation by the SPD was also to gain full international sovereignty for West Germany. This process led to the membership of both Germanys in the United Nations.

But this policy of Willy Brand and the SPD was met by fierce opposition from the CDU. The CDU saw this as betrayal of the German constitution that still called for future reunification. (Interestingly enough, also the 1968 constitution of the GDR called for reunification.) The CDU also criticized this policy of détente as a way of unnecessarily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the communist regime in East Germany.

The "Ostpolitik" of the SPD was accepted by the wider public in East Germany as long as it was a way to claim more freedom rights in the East. Therefore, in general it was welcomed by the Eastern public, but not as an achievement in itself, but as a first step that would lead to more freedom. Of course most of the people in the East did not like

the idea that with the official talks between Western leaders and the communist regime in the East, the communist regime would be strengthened and gain more legitimacy. But the people hoped that the communist leaders would be under pressure to grant more freedom to the people – being now recognized as a "normal state", in particular also more freedom to travel, not only for tourism but also to visit relatives in the West. The price of legitimacy was considered to be acceptable as long as it led to more freedom in the short run.

I think one should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for the self-image and self-confidence of many, to be now citizens of a normal, sovereign state. Self-confidence - that was for many a basis also to demand more freedom from their government. Therefore, the "Ostpolitik" was ambivalent: in the short term stabilizing the system in the East, but in the long run a window of opportunity for more demands. That this "Ostpolitik" meant agreeing to the separation of Germany was silently accepted in the East, since most people in the East did not believe in unification as a realistic option anyway at that time. Nevertheless, the dream of a unified Germany in the distant future was still alive, in particular in the East.

In general, the regime in the GDR was seen as strong, not only because of the ubiquitous secret police and the backing of the Soviet Union. The GDR was part of the cold war system. Any ideas of unification were seen as unrealistic as long as the cold war was the prevalent paradigm. It did not change dramatically with Gorbatchov's Glasnost and Perestroika. Only very few found new reason to hope for more freedom, but also for general changes in Germany and Europe.

Also the visit of Erich Honecker in the West did not raise any hopes or expectations that the current division of Germany would be overcome. Of course, Helmut Kohl, hosting Erich Honecker for a dinner, emphasized his expectation that Germany will be united one day. But nobody in the East really expected unification soon, rather some changes, small steps for more freedom. In general, people were longing for freedom, not necessarily for unification.

2. Germany's unification as the only realistic way to freedom: The peaceful

revolution of 1989 and 1990

During the time of the peaceful revolution an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underwent dramatic transformation. But even during the first month of the peaceful revolution, longing for unification was no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s, but rather longing for freedom. Finally, unification turned out to be the only concept that could lead ultimately to freedom.

I would like to mention only some important steps towards unification. There were many factors outside of Germany, to mention among others: Gorbatchov's Glasnost and Perestroika, the Solidarnocs opposition movement in Poland, the Polish Pope Johannes Paul II who supported the opposition, the changes in Hungary etc.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hange in Germany. There were also many factors inside Eastern Germany such as growing unrest and discontent in society, the steady decline of the economy and the growing opposition that led to the fall of the Wall and finally to German unity.

I want to talk here about the following events that took place in 1989 and 1990:
a) 1989: Election, emigration wave and mass demonstrations, b) 1990: first free elections leading up to unification

a) 1989: Election, emigration wave and mass demonstrations

The communist leaders tried to project that their leadership was legitimized by the people. The role of the elections was not to elect the leadership but to legitimize it. There was no freedom of choice at election day but only acclamation of the leadership. On the ballot only the SED and its proxies could be elected. The leading role of the SED had its basis in the constitution (art.1) and was not up for discussion.

The people were forced in many way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Elections fraud was common and expected. Most of the people did not care, because it would not make a difference anyway. Not showing up at election day would have consequences, though - of course only negative ones for the renitent citizen, not for the government.

The numbers and the official rate of support were astonishing, mostly close to 100%.

Nobody believed in these numbers, but then again most of the people did not really care. But in 1989 things changed: opposition groups and the growing Civic Rights Movements used the election to expose election fraud and to claim transgression of laws in order to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he exposure of election fraud had indeed deep repercussions. The opposition became stronger and demands for freedom grew louder. And for others it was an ultimate sign of how rotten the system was. The number of those who applied to emigrate to the West and to turn their back on communist Germany skyrocketed in 1989.

(example: Bausoldaten exposed election fraud in Rostock)

Many of those who wanted to leave the country had to wait and were humiliated. In many cases they immediately lost their jobs or were forced to accept degrading work. Not to work was considered a crime in a state that claimed full employment.

In Leipzig a group of those who wanted to emigrate found political refuge in a church, praying every Monday for those who left East Germany. For some time the church accepted it, but felt more and more uncomfortable. Finally, this group gathered outside the church, with posters and signs. Later they were joined by more and more people that demanded change in Germany. Finally, this became the beginning of the mass demonstrations in Leipzig that put enormous pressure on the leadership.

Regular people dared for the first time since 1953 to go out and demonstrate in the streets. In 1953 mass demonstrations were met with violent suppression by the communist regime and Soviet tanks. Since then it was deeply rooted in the psyche of the people that it was not really possible to challenge the system. This let to an attitide that "you cannot do anything anyway".

Erich Honecker resigned on October 18, 1989 - shortly after he had led the festivities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DR. His successor Egon Krenz was no source of hope for the people, on the contrary: He was seen as hardliner after his comments on Gorbatshov's Perestroika and his support for the "Chinese solution" on Tianmen Square.

People feared repression but dared to demonstrate anyway. In particular on October 9th

the first demonstration after Krenz had taken office and it was not clear how he will react.

I participated in these demonstrations in Leipzig every Monday in the fall of 1989. On October 9th it was particularly tense. Army and police were amassed in the streets leading to the inner city. Hotels were prepared to treat wounded demonstrators. Tank trucks were filled with paint to be sprayed at the demonstrators in order to identify them more easily for later arrest and punishment. All this we knew and it was indeed very frightening. Bu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ushed to the inner circle of Leipzig to demonstrate for change.

Finally Egon Krenz did not opt to give orders to the already present army and police to violently disperse the demonstrations. After that day more and more people demonstrated in all the big cities of Eastern Germany. One of the main slogans was "We are the people / Wir sind das Volk", demanding also more freedom rights. The communist leadership understood that they had to grant some more freedom to the people in order to survive. To think about reform in certain areas was not done voluntarily by the communist rulers but because they felt that the mass rallies became a threat to the system.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was travel rights. Thousands had left already since August 1989 through Hungary, which had opened its borders to Austria.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November 9th, 1989 a communist party leader misunderstood a note on a new law regulating travel to West Germany, which led to the immediate opening of the borders in Berlin. The Wall came down. The fall of the wall, the opening of borders, was the valve for the suppressed longing for freedom.

b) 1990: First free elections leading up to unification

But even then, when the wall came down, unification was not immediately in the offing, rather the demand for more particip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communist parties' power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secret service. Opposition and "Roundtables / runde Tische" (where opposition,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groups of society as well as from the ruling communist party met to discuss the future of East Germany) demanded control and "basic democracy / Basisdemokratie" but didn't have the will to exercise

power. Also, the opposition and the human rights activists did not have any consistent idea of how a new system should look like. In any case, they wanted change and a new freedom oriented and democratic system in East Germany but definitely not unification.

Only in December 1989 did the discourse shift. In the weekly demonstrations more and more posters appeared with a new slogan changing from "Wir sind das Volk / We are the people" to "Wir sind ein Volk / We are one people". As it became more and more clear that the situation would not lead to more stable circumstances in the near future, people started looking for alternatives. Most of the ordinary people were not interested in new experiments: A "Third way" (the vague idea of the opposition and human rights campaigners) was out of question. This was also the end of the influence of the opposition and the civil right movement and - in retrospect - the reason for underestimating the role of opposition.

In December Helmut Kohl presented his 10-Point-Plan, suggesting a development leading to German unification, that he saw in the framework of European unification (mainly in order to dispel all doubts and to prevent any fears of a unified and strong Germany). The German and the European unification were always two sides of one coin for Helmut Kohl. - People understood, that they could expect prosperity, freedom and stable circumstances only from a capable leader from the West - not from the opposition groups and definitely not from the old communist party that had also tried to advocate an alternative way, a "democratic socialism" as the only way to save at least some power.

This became very clear in the election in March 1990. Originally the election was elections were planned exactly one year to the day after the 1989 elections, in which opposition groups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d exposed the election fraud. But since it became imperative to prevent a growing power gap and to install a legitimate government dealing with the urgent issues, the "Round Table" decided to delay the elections to March 18th.

Election campaign

The discourse on the future of East Germany only left two major options for the election campaign: raising support for German unity or against German Unity.

1. Third Way as alternative to unity

The idea of a "Third Way" was supported by opposition and Civil Rights Movement (calling themselves "Bündnis 90 / Alliance 90") on the one hand, and - for different reasons – by communists who called themselves now SED-PDS. But both groups of course could not work together. They saw in this alternative a chance to build a more democratic state (Democratic Socialism- SED-PDS), but explicitly different from West Germany, that was seen as too capitalist and individualistic.

2. Unification

a) Gradual unification (promoted by SPD)

b) Fast unification (promoted by the Allianz für Deutschland / Alliance for Germany, based on Kohl's 10-Point-Plan: no experiments")

At the mass demonstrations in Leipzig and in other cities banners now branded more and more "Deutschland einig Vaterland / Germany united homeland".

A typical election spot (by Demokratischer Aufbruch / Democratic Awakenig), that found broad resonance with the people, said for instance: "Socialism has spread fear and terror. Socialism has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out of their homeland. Socialism has betrayed us and did not grant us the fruits of our work. Socialism is run down. Stop socialist parties! On March 18th you decide upon the fate of our country. Support the awakening of our country to democracy." or: "Freedom, no socialism" Allianz for Germany: "Never again Socialism – Yes to Freedom and prosperity"

Support and money for the campaign was often given by the West German parties. Only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of course the SED-PDS) did not have strong Western partners. (There was a complex and not very e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Green Party in the West).

Election results

93.4% of eligible voter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 the highest number at any free election in Germany throughout history.

The winners were the supporters of Germany's unification. The Allianz für

Deutschland/Alliance for Germany got 48,15%, only 21,9% went to the SPD (that was widely expected to be the winner), 16,4% to the SED-PDS and 5,3% to the Free Democrats.

Bündnis 90/Alliance 90, which was actually one of the driving forces before and during the peaceful revolution, were the big losers of the election with not even 3% of the votes. Now they became again what they were before the peaceful revolution: a small group of idealists.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re were no feasible concepts and no charismatic, credible and capable leaders in the East. Only leaders in the West and in particular Chancellor Helmut Kohl was (Kanzlerbonus) seen as capable to deal with the situation. Chancellor Helmut Kohl not only promoted unity in his famous speech of Dresden, he also convinced Western and Eastern leaders and used that small window of opportunity. He was therefore seen as the only capable and trustworthy political power that could bring about unity.

On the way to fast unification

People did not have any patience anymore for experiments. They wanted freedom and self-determined life on a decent level of living right that instant. So the question was not anymore, whether unity needs to come, but only how: what was the fastest road to unity.
On the other hand, this fast approximation led to a feeling of being overtaken or overrun by the West and not being taken seriously as a partner. The people who had regained dignity and self-confidence in the mass demonstrations during the peaceful revolution, wanted to be seen as equal partners – but actually there were not. And there were many who did not want to change their whole lives (everything from Weltanschauung to the daily routine changed), but they wanted to stay in that same routine but with additional freedom. Having the guidance of the state was very comfortable for most people. People were not used to take responsibility, and now many wanted both in a paradoxical way: guidance and freedom.

But anyway, only a fast unification was a politically realistic option: people in the GDR demanded freedom now, not in the future - only closing the borders and erecting the wall

again would have prevented mass emigration undermining any meaningful attempt to establish a new system parallel to West Germany. And of course, this was not an option. So, a gradual way to unity became an (for some: nice) illusion.

The freely elected government was therefore seen as a transitional government. Its task was to dissolve itself and to bring about unity with the West. A democratic and freely elected government was also a precondition for supporting unification by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 the West. Self-determination was an accepted principle by all states that were stakeholders, including Gorbatchov's Soviet Union. If Germany opted for unity in free self-determination, nobody should prevent it from doing so.

After the treaty of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 between the GDR and the Federal Republic in May 1990 that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utschmark in the East on July 1st, full unification was decided in both German Parliaments on September 20th. It was finally implemented on October 3rd, 1990 according to Art. 23 of the German Constitution (Beitritt/joining West Germany).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t was not a unification, but an extension of the West into the East. (Originally there was also a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Art. 146), that a new constitution would be written in the case of unification).

The motivation for many was not to go back to the status ante before the separation that was forced upon Germany by the coalition forces after World War II, but to participate in the free world. Therefore, I hesitate to call it re-unification it was rather understood as unification. Also, forty years of separation left deep traces in all parts of life.

Some problems of unification

Of course there were also many problems. Again, I cannot deal here with all the problems that were seen then and can be seen now in retrospect. But I want to mention very few elements from a East-German perspective.

I do not want to go into things that were not regulated then and caused legal problems later, for instance in the field of real estate and land ownership.

One point I have already mentioned: The pace of unification (that was politically without alternative) left many in the East breathless. Everything had to be changed. The unification process was seen many times as an extension of the West into the East, without recognizing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 in the East. People in the East felt like second class citizens when they heard for instance (as I did in Tübingen University in the end of 1990) from people in the West a question like: "What do you think, how long will it take until you are as we are today?" – as if unification means adaptation by the Eastern Germans only and no change for people in the West.

People in the East felt insulted when they learned that officials that came to the East to build up institutions and the administration would get special allowances due to the hardship of their work in the East.

Another source of unrest was the readiness by those officials to work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old nomenclatura, the communists. This is a broader field I only want to mention here: how to deal with representatives of the formerly ruling party, not to speak about the former secret service.

People from the East were angry, when they were often presented in a generalizing way by Westerners as "complainer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all the time.

And I think that in general there was a lack of discourse between people in the East and in the West as well as a lack of real interest for the respective experiences and narratives. I believe that with a deeper discourse and a broader exchange, that could have been supported not the least from the media, people in the East would have been less tempted to look back and to develop – what I see as a very unfortunate, most unspeakable and obnoxious nostalgia - glorifying the GDR ("War doch nicht alles schlecht"/not everything was bad in the GDR), thereby tending also to forget the lack of freedom and underestimating the gift for a self-determined life, democracy and freedom rights and taking free life for granted today. People tend to remember positive things, personal, good times with the family etc.. But those who remember this forget that those positive things were not related to the system. Having a good time with your family did not say anything about the lack of self-determination and lack of freedom.

With all the remaining issues, the unification of West- and East-Germany was not only without alternative but in any case one of the most happy hours of German history.

To sum up:

The unification was for the people in the East in general a means in their longing for freedom and not a end in itself. Only in a unified Germany did they see a realistic and immediate realization of living a free and self-determined life.

Presentation 3

Yemen—How did the Unification from consensus turned to civil war?

Ahmed M. Al-Kibsi Professor,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Sana'a

Yemen Reunification Process

The arduous journey took place from furthermost west Asia, from Sana'a,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Yemen which just celebrated the twentieth Yemeni Reunification on May 22, to furthermost East Asia, to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looks forward to a reunion with North Korea. We share them the same hope since the leadership and people have every intention to do so. It is obvious that the two countries, Yemen and Korea, have several common features. Both are located in Asia; Yemen in the west and Korea in the east. The two friendly countries have deeply rooted civilizations. They suffered colonization which imposed partition upon them. The two countries were badly affected by the Cold War. Two political systems did exist; communism in one side and capitalism in the other. Yemen and Korea have suffered war between their separate countries.

Despite the separation, the unification is the principle which peoples in Yemen and Korea agree upon. In Yemen, a grueling effort and a consistent diplomatic attempt participated in fulfilling the long-held dream of all Yemeni people, the Reun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has had firm stabilization due to sound factors, such as democracy, pluralism, human rights, involvement of women in political work in all community institutions.

The method of reunification in Yemen has won international admiration and recognition.

In addition, countries which need to perform some political reform benefit from the way Yemen was unified in, or from the political practices, or from the foundation of modern State institutions. The friendly Korean people represented by the government and different institutions are endeavoring to obtain an eventual reunion. There is no nation but the Yemeni people that may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Korean dream. In Yemen we greatly suffered from separation. We also evaluate the attention paid by Korea to the reunified Yemen and its system development. Korea we believe has a keen desire to build strong relations in different fields to facilitate the way to Yemen to overcome the consequences of past separation and current reunification.

The manifestation of the Korean attention toward the Yemeni method to achieve reunion appear in the official and public visits to Yemen, the concentration of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in the process of the Yemeni unity, and invitation to support and deepen the relationship with Yemen.

The Korean caring attitude is unmistakably apparent in the concentration shown by research centers and university departments and differing associations which request to strengthen ties with Yemen. Hankook University for International Studies is a good example. The scientific and intellectual teaching staff like Dr Han Dick, Korea-Middle East Association chairman, Dr Hong, Korea-Yemen Center director, and Ms Shiba Kim, love-yemen website owner, show great interest. There are others and others of professors, researchers and media people interested in Yemen and ask for strong relationships with Yemen.

The subject matter of my lecture is about the mechanism of achieving the Yemeni cherished dream in the hope that a day will come when we all celebrate the peaceful Korean Reunion and the disappearance of all cold war impacts which still influence the two countries badly.

In my lecture about the Yemeni reunification, I am going to pose questions and answer them briefly because talking about the Yemeni reunion may last long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hundreds of books which analyze this accomplishment from several angle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re politicians, historians, and journalists following and scrutinizing the events through different stages which led to the success of all efforts to unify Yemen again.

In my lecture, I am going to sum up the long worthwhile events and struggles as

follows:

- It is essential to know that the Yemeni unity wasn't made between two separate nations but between a divided nation. The unification was and still is the origin represented by the unity of land and mankind characteristics, unique demographic features, geography and one history. The land has been known as Yemen since the dawn of history. Yemenis share the same ancestry as stated by historians. Even antiques scattered in all Yemeni areas demonstrate the resemblance of names of ancestors and their building and living customs through inscriptions and scripts. Throughout history Yemeni tribes have kept their origin, descent, strains which in totality form a harmonious social fabric in traditions, customs, values, concerns and ambitions. Unity has been the base in the history of Yemen. Yemeni history has witnessed civilized achievements and artistic work in the frame of unity. Division was a very special case. A democratic system used to be associated with union. This system gave the people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ederations of tribal councils, and consultative councils. This is evident in the states of Hemia, Sheba, Hadramout, Qataban, Moaeen, and Osan. These states had civilization superiority linked with political systems based upon unity,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There was also a historical role played by these states in the emergence of dams, irrigation and cultivation system development, terraces and unique constructions.

- Separation was caused by the foreign occupation to the southern part of Yemen which suffered colonization whereas the northern part of Yemen was ruled by a backward regime. I won't try to dive into history. It is time consuming. I will begin with the launch of the revolution of 26 September, 1962, which was the accumulation of long struggles to dispose of absolutism and isolationism in North Yemen and the British colonization in South Yemen.

26 September Revolution constitute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Yemen and a remarkable achievement toward reunification. This revolution had reunion objectives and aims connecting the separate peo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All workers and farmers who came from all parts of Yemen formed the core of the army and flag holders. It was the commencement to reunite Yemen as part of its objectives in addition to eradicate the backward Imam's regime and expel British colonization.

When 14 October Revolution broke out with the assistance of Yemeni brothers in the north, a hope was raised. Then the southern part of Yemen was released from the British occupation for good on 30 November, 1967.

There was a great chance to make the unity between the two parts of Yemen; however, the shadow of the cold war dominated the whol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War dictated the coexistence of two states on the very Yemeni soil. A communist system prevailed in the south which was called the Popular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Thus, there were two conflicting ideological systems. Each of which promised to achieve unity according to its own agenda. As a consequenc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parts witnessed challenging hardships to the extent of eruption of war in 1972. Then the Arab League took action to discontinue the war and bring the states to sit at a negotiation table. The efforts were crystallized with the Cairo Agreement on 28 October, 1972. The agreement stated that: " The two governments of Yemen Arab Republic and the Popular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on behalf of the unified Yemeni nation and the Arab nation; in fulfillment of historic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in faith that the Yemeni people and land are indivisible, a fact that has proven itself throughout history despite all the attempts to split it and create barriers and borders; in loyalty to the struggle and martyrdom along times gone by to eliminate the backward Imam's regime in North Yemen, and the British occupation in South Yemen; in adherence to reinforce and support the progressive national struggle in Yemen; in affirmation of the fact that the restoration of Yemeni union is the foundation to build the modern Yemeni society which guarantees all democratic freedoms to national forces which are against colonization and Zionism, and to build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and to guard and protect the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Yemen from any intervention or foreign attacks; in confirmation that comprehensive reunification is not only an ultimate fate but also an issue of progress and civilization and welfare to all Yemenis; in confidence that the comprehensive Yemeni reunion is not only the hope of every Yemeni alongside the Yemeni soil but also an essential requirement to deepen the pillars of political independence and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which is a national necessity to enable Yemen to contribute to the strife the Arab nation is taking against the alliance of Zionist and imperialism; it is a serious step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entire Arab unity; in response to the sincere efforts exerted by the Arab Reconciliation Committee formed by a resolution no 2961 dated 13/9/1972 to settle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portions of Yemen, a symbol of the attention paid by the Arab League to the Yemenis' reality and fut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from the Arab League Charter, the two government have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state joining the two portions of Yemen, south and north, in accordance with bases and principles mentioned hereinafter:

- Unity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states of the Yemen Arab Republic and the Popular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in which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both of them will be merged in one international personality and the existence of a unified

Yemeni state

- The new state shall have

o One flag and one emblem
o One capital
o One leadership
o Singl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ry authorities

-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the new state will be republican, national, and democratic
- The Constitution of the union will guarantee all the personal and political freedoms of the public and to its various national, professional and trade union foundations and organizations and will adopt all the necessary means to guarantee the practice of these freedoms.
- The unified state will guarantee all the gains which the two revolutions of September and October have realized.
- As the first stage towards realization of unity the necessary means will be taken for the holding of a summit conference between the Presidents of the two states to consider the immediate necessary measures to finalize unity. This conference will be held at a date to be agreed by the two heads of government"

The agreement continues. The other items of the agreement stipulated the formation of committees assigned to prepare and plan for the unity. Of these committees, the Constitution Committee is the most crucial.

This agreement was followed by another one called Tripoli Agreement in the same year. It also confirmed that the Yemeni unity was not a popular Yemeni request but an Arab one, an act of faith that Yemen is indivisible.

The foundation of committees and assignment of tasks fo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the agreement. Yet, the whole speech about unity was ridiculous since the two portions of Yemen were at state of war. Seriousness was absent from the two parties. It was a kind of political scheme as a result of two differing ideological systems in divided Yemen. The system in south Yemen supported the National Front, a vandalistic political group, in north Yemen. The same system too assisted opposing politicians. So did the system in north Yemen. The state affairs didn't change a lot until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Ahmed Al Ghashmi. Accusations were directed to the ruling party in the south.

In these outraging conditions between the two portions of Yemen, the northern street was furious of this unwise act by YSP. At that juncture, Ali Abdullah Saleh was elected president by the Parliament, the legislative authority, on 17/7/1978. The north of Yemen was undergoing a situation of no covetousness: the state didn't have sovereignty over all part of Yemen but Sana'a. Terrorist groups were spread everywhere aided by foreign forces. Economic situations deterio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parts were unstable and fiery. The country lacked everything and required capacities.

The burden was unbearable and the task was full of challenges for the newly elected president who came from the armed forces with a good military experience. He surely realized that force wasn't the remedy for all the problems encountering the country. It was the last, but not the first, resort. From the beginning, he adopted dialogue as a means to reconcile and settle matters internally and externally. He directed focus to interests and needs of individuals as well as these of areas. To accomplish these things, he started with forming a consultative council including many persons who were opposing the central authority. He expanded the membership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to compromise marginalized characters. He called for an election of local councils and a formation of national dialogue committee whose membership included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 such as communists, socialists, nationalists, Muslim Brethren, Baathists and others. A committee was appointed to draw up an intellectual index of political work in the country. This committee which worked successfully for two years handed in a political instrument representing the national unanimity of all political powers and social classes in the country. A popular conference was held to approve it as a mechanism to apply the National Constitution which made reunion an undeniably national objective.

In the strained atmosphere of cold war and partisan conflict among party leaders in the south, Yemen witnessed another war in February, 1979. The Arab League intervened to stop it and Kuwait Summit was hosted between 4 and 6 March, 1979. As a rule, the Arab unanimity urges to make a union committee. Then the Kuwait Summit was convened and a statement was proclaimed on 30 March, 1979. This statement reaffirmed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separated nation to establish the unity as soon as possible. It urged the committees to carry out the tasks in general and the constitution committee in particular. The latter was given four months to finalize the draft of the Unified State's constitution. The summit also encouraged the two countries to hold fast to Cairo Agreement and Tripoli Agreement. Immediately after this summit, Sana'a Summit took place on 4 October, 1979. It assured the importance of carrying out the joint efforts to

accomplish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An extra period of time was given top reunion committees to finalize all tasks.

The armed conflicts helped to form a strong opinion that unity couldn't be achieved by using the power and violence. Consequently, other ways to achieve unity based on peaceful dialogue were sought. The 80s of the last century perceived a number of consecutive meetings devoted to dialogue. The results of such meetings were fruitful and practical. What was agreed upon in the 1970s and not taken seriously was taken care of and workable in the 80s. Sana'a Meeting was held in June, 1980. An agreement was concluded to establish joint economic projects, to demilitarize the borders, and to recommend the union committees to complete the tasks.

In Taiz Meeting held on 15 September, 1981, it was agreed to set up a commission to implement article 9 of 1979 Tripoli Agreement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a unified political organization. On 30 December, 1981, Aden Meeting was convened. The Higher Council was formed and chaired by the heads of the two states to follow up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on agreements, to supervise the union committees, and to appoint a ministerial committee presided by the two prime ministers of the two states. The Higher Council met four times in Aden and Sana'a: in Sana'a in August, 198; in Aden in February, 1984; in Sana'a in December, 1984; and in Sana'a in December, 1985. Meanwhile, the ministerial commission met three times. The meetings helped spread a comfortable atmosphere which strengthen and deepen the confidence between the two leaderships. Citizens felt contented, too. This relaxing situation did not last long. A civil war in Aden was erupted on 13 January, 1986, among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President Ali Nasser Muhammed was forced into exile in North Yemen. The events of bloody 13 January led to a political vacuum and instability which motivated some people to call upon Ali Abdullah Saleh to seize the chance and force unity. Yet, the wise president refused to listen to these miscalculated voices and urged the fighting parties to appeal to dialogue, which positively contained the war and build an atmosphere of confidence to resume dialogue and carry out union work with the victorious party in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after a two-year halt.

The resumption of union talks coincided with the announcement of South Yemen about oil discovery in a demarcation line between the two states. This declaration added a new variable to the total variables that already existed then. The first meeting after the bloody incident of 13 January, 1986 was held in Taiz in April 1988. The two parties agreed to take serious joint steps toward the containment of and solutions for consequences and

impacts of January, 1986. A complete commitment to all the previous agreements was also reached. Joint investment ventures, of which the investment of natural resources in Marib and Shabwa was part, were highlighted, too. This meeting was followed by another one in Sana'a between 3-4 May, 1988. This meeting was full of details of the previous meeting in Taiz. The joint invested area was estimated to be 2200km2. The unified political organization was agreed to be activated in order to depict a general picture of the unified political job as soon as possible. A timetable was also specified to approve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state. They also reached agreement to eliminate current posts between the two states and to replace them with joint posts with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transference of citizens using only personal IDs. Movement restraints imposed by the state bodies in the two states should be removed. Searching for financial aids to pave interstate roads was required. Some union-oriented tasks were implemented;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were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mpany to invest oil and minerals and the nomination of the members of the unified political organization. The two parities exchanged perspectives about the would-be unified state and the ways to establish it. The first session of the unified political organization was held in Taiz on November, 1989, and agreed upon the four alternatives for the political organization. They were as follows:

That period of time was known by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nges which played a role in nearing the time of unity proclamation. In South Yemen, there wa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esting the system during the perestroika in the former Soviet Union just before the end of the communist government.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Soviet Union had a major impact on financing the government in South Yemen, which suffered an economic hardship and a budget debt estimated to be around 6 billion dollars. The Arab region witnessed regional economic blocs. North Yemen entered into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North Yemen showed wisdom when dealing with all these changes. In addition, there was public support waiting for the unity proclamation. Aden Meeting took place on 30/11/1989. The two leaderships endorsed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State the committees finished in 1981. The new constitution was referred to the two legislatives in the two states to make a referendum and a legislative election once unity was achieved.

In light of Aden Meeting, several joint delegations were sent to Arab countries and friendly superpowers. President Ali Abdullah Saleh paid a visit to the US, KSA and other stat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Yemeni affairs in order to clarify the picture of the would-be unified state. Additionally, he wanted to distance those troubled bodies and to lessen opposing factors because of the Yemeni reunion. He wished to rearrange the

entry of the newly made state in the Arab and international atmospheres to strengthen ties with these states and contribute to the regional stability. Several joint delegations visited different countries. This integrated effort succeeded to ga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upport to the formation of the unity. Good results were made and enhanced the confidence between the people and the leaderships. These visits were symbolic of the seriousness the two heads demonstrated to achieve unity. It was the countdown to the unity proclamation. These delegations took into consideration the views raised by visited states and organizations. Some of these views, which were the results of previous reunions in the Arab world,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 The necessity of keeping the date of unity proclamation confidential in order to thwart any attempt, by those who consider it a threat to their selfish interest, to prevent the unity from occurring on time. This fact helped shorten the required time to six months instead of one year.
- The necessity to link unity with democracy and pluralism. This link will constitute a stronghold to protect the potential unified state. What happened once the unity was proclaimed was permit all parties to participate in everyday political life.
- The vitality of emerging the army and security forces to preclude anyone from making them a threat to the unity.
- The formation of a modern state of institutions

International and local plots to stop the unity work shouldn't be neglected. Fundamental disagreements arose in the leadership of YSP about the date of unity proclamation. They were divided into two teams: one believed in the necessity of announcing the date of unity, taking advantage of the masses' support and the international disorder; the other team saw that deliberation was important. The latter view was backed by those who had a sinister agenda. Nonetheless,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intention helped to accelerate the unity steps through having five meetings (Sana'a Meeting between 22 to 26 September, 1989, Makeeras Meeting on 19 February, 1990, and Sana'a Meeting between 19 and 20 April, 1990). The two leaderships decided to overcome any arising difficulties and resolve disagreed-upon issues of which partisan affiliation among the joined armed forces was open to dispute. They agreed to choose the second option of the unified political organization options which allowed pluralism. In April, 1990 in Sana'a Meeting, a very crucial agreement was made. It was about the unity proclamation date which was disclosed only on 22 May, 1990. There were nine points to organize the transitional period. Some

of them were the agreement on length of the interim period (two years and six months), the formation of the parliament through amalgamating the Shura Council and People Council in one council called the parliament, the creation of a presidential council which was assigned to hold a referendum on 30/11/1990, and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council.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the regime in South Yemen was required to do a number of things such as re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the US in the end of April, 1990, and to dispose of foreign military experts from the communist countries.

On 22 May, 1990,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Yemen was proclaimed in Palestine Hall in Aden. The ceremony of raising the unified flag was attended by plenty of high officials and characters. On that day, two systems disappeared to allow a new system to replace them.

The Eastern Camp was undergoing a disarmament process and radical changes were brought about in the entire world. Yemen declared Unity. Some of you may wonder why Yemen didn't hold a referendum and a parliament election before the unity declaration. I can say that the accelerating steps to finalize and realize the dream besides the enthusiasm the masses had all contributed to the postponement of holding a referendum up till the establishment of unity. All Yemenis unanimously agreed to the priority of the foundation of unification. They believed in the constitution as a ruling vehicle. Moreover, the multitude knew for sure that the reunification would be a means to development and welfare to all Yemenis.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has encountered many challenges. Yet, the solidarity and support the masses show help reinforce the regime. No sooner seventy days had passed after the unity declaration, the gulf crisis broke out. Its implications caused a political catastrophe for all regional countries. The new state survived, though. Another threat happened to the newly formed state when some who couldn't stand the results of the democratic elections endeavored to re-split the country. Nevertheless, it was the people who had fought to reunite Yemen set out to defend the public achievement and imposed their will on 7/7/1994.

The Yemeni reunion has been a fact after holding three parliament elections and two presidential elections in 1999 and 2006. They were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region. In addition, Yemen witnessed elections of local councils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community institutions. Now we are invited to carry out development tasks to reform all time-worn ideas and degenerated situations.

As the Yemeni unity was realized in West Asia and the German Unity in Europe, we have a great hope to see th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peaceful means since war and arms racing can't achieve this hope.

I, personally, wish you all the best to accomplish your yearning. Appreciation and thanks are extended to International Peace Corporation the sponsor of this symposium. I am also grateful to research centers, interested bodies and supporters of German, Korean and Yemeni relationships.

Presentation 4

Vietnam—Was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means impossible?

Nguyen Van Khanh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National University of Hanoi

PROCESS AND PATH OF NATIONAL UNIFICATION IN VIETNAM: HISTORY AND EXPERIENCES

National independence and reunification is the essential revolution path to the Vietnamese people, the objective need of national defense and building, the most powerful motivation in the process of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and development.
The national separation and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ook place during the feudal dynasties in Vietna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Yalta bipolar order was founded. Due to the distribution of garrison areas among the Allies against the Fascist, many countries were partitioned, such as Germany, China, Vietnam and Northern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détente tendency, maintaining the original bipolar order seemed to be the popular strategy of powerful nations, whereas the whole nation of Vietnam still resiliently continued the resistance war against colonialism in the next 30 years (1945-1975) for a complete national independence and reunification.

1.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in medieval and modern Vietnam

Under the period of Hung Kings, people widened their living places, moving from mountainous areas down to alluvial plains and developed the rice farming. That was also the period of which fights against natural disasters were of high demand. Humans needed power to explore dense forests, prevent rain forests, droughts and floods. Therefore, the

community solidarity was soon set up, serving as a foundation for the birth of Vietnamese nation. Archaeological researches on the Stone and Bronze Ages revealed the fact that the Vietnamese nation has a local origin and its formation process began from early period in thousands of years.

Vietnamese people are always proud of a common shared origin. The legend of "Children of Dragon and grandchildren of Fairy" reflects the community consciousness among people settling in Vietnam land all possessing "Dragon and Fairy" origin, which is their pride of national origin and unity.

The Vietnamese history is the process of national building and defense, but the typical period is the history of holding off the aggressive forces, gaining and maintain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reunification.

The divisive situation in Vietnam used to happen during the tenth century with the scuffle among 12 military forces which lasted for 3 years. Later Dinh Bo Linh demolished the separatist troops and reunited the nation to form the kingdom of Dai Co Viet. At first, the capital city was in Hoa Lu (present-day Ninh Binh) but around a century later it was removed to Thang Long (today Ha Noi). Since then, the Vietnamese nation began its prosperous era, fixing with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early feudalism. By sixteenth century, Vietnam fell into a long-lasting schism when Mac Dang Dung usurped the throne of Le emperor, creating the conflict between the North regime and the Southern regi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Trinh lords proclaimed themselves King in the North while their Nguyen lords held the central part of Vietnam.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two kingdoms that constantly waged wars with each other (1627-1672). This weakened the country which encouraged the Siamese and Chinese to invade the countr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Emperor Quang Trung of the Tay Son dynasty, however, successfully defeated all foreign invaders and reunified the whole country. After centuries of conflicts and schism, the country was then completely unified under by the Nguyen dynasty (1802-1945).

From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schism in Vietnam happened again owing to the French invasion and colonization.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three main regions: Tonkin, Annam and Cochinchina with three different governing systems:

protectorate for North and Central while a colonial regime was set up in the South.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whole Vietnamese nation was united in the Viet Minh Front, cooperating with the Allied forces consisting of American army in China to fight against Japanese invaders. At the end of the war, fascism was wiped out. Thanks to this "one-in-a-thousand-year" opportunity, the Vietnamese nation under the Viet Minh's slogan of national unity stood up to carry out a general uprising, broke the government systems of Japanese fascists and their henchmen, set up a nation-wide united government before the Allied troops came back to Indochina. "The newly-founded government belongs not only to a certain social class but also to the whole nation, except those who follow and support the French and Japanese invaders, and the ones who betrayed their fatherland and the enemies. Anyone that lives in Vietnam has the right to partly stand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tak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at government".

In his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 Chi Minh, Presid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stated: "When Japanese fascists were defeated in August 1945, the whole nation of Vietnam was reunited under a contemporary government and this government immediately came into action so that peace and order was reset, a republic democratic government was set up on the basis of legal foundation which helped the Allied troops in the process of disarming the enemies".

In conclusion, national freedom and unity was achieved by a revolution carried out by the Vietnamese people rather than the help from the Allies. The duty of the Allies was to disarm the Japanese troops but in fact they occupied and separated Vietnam.

2. Regaining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during the anti-French war (1945-1954)

After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in August 1945,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 independent and united government, was officially established on 2 September, 1945, much beyond the expectation of the Allies at the Potsdam (July 1945).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resident Ho Chi Minh requested the Allied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f Vietnam. Un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turned their back to this call while the Soviets kept silence.

On 1 January, 1946, the Vietnamese people carried out their general election to found the First National Assembly which presented the Vietnamese people's will and hope for an independent and united country. The National Assembly released Constitution and formed an official government on 3 March, 1946.

Under the American and British support, the French troops returned to Vietnam. On 23 September, 1945, the French army attacked and reoccupied Saigon, then quickly controlled the entire Southern Vietnam. The French formed the so-called Nam Ky self-controlled government, continued to occupy Buon Ma Thuot, separated Tay Nguyen to form the so-called Tay Ky self-controlled government in February 1946.

Wishing to solve conflict in peace, the Vietnamese government signed with the French the Provisional Agreement on 6 March, 1946. Accordingly to this agreement, France still did not recognize the independence but only the integrity of Vietnam ("as a whole country"). This was up to the people's idea at that time. However, in reality, the French colonialists continued to separate Vietnam by forming the so-called "L'Anam government" in March 1946 under the leadership of Nguyen Van Thinh.

In June 1946, Ho Chi Minh visited France to "solve the matter of the Vietnamese independence to reunify three regions of North, South and Central Vietnam". In an interview in Paris on 25 June, 1946, Ho Chi Minh strongly affirmed that "The Vietnamese people insisted on the reunific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country". Before the official negotiation with France, Ho Chi Minh visited Basques. In reply to the French Prime Minister G. Bidon during a reception on 2 July, 1946, Ho Chi Minh said: "Although the people in Basques have their own customs, language and characters, they are still French. France has many provinces, it is still a unified nation and it cannot be separated". In the press conference on 27 July, 1946, reply to the question of "What would you do if L'Anam refused to integrate into Vietnam?", he said: "the people of L'Anam and our people shared the same origin, why would not they want to be Vietnamese? Basques and Breton do not speak French but they are still French. The people of L'Anam speak Vietnamese, why do they think about preventing the reunification of Vietnam?". He claimed: the Southern region is a part of Vietnam, no one has the right to separate it and no forces can separate it from Vietnam".

In his speech during the anniversary for the Vietnamese independence's day in Paris on 2 September, 1946, Ho Chi Minh clarified further that "the Vietnamese people's strong desire is our resuscitating nation will never be separated and nothing can separate it… The separation cannot bring the prosperity. It is unfair if people aim at a weak, separated Vietnam to promote the France's prosperity".

During the meeting of the First Congress on 31 October 1946, having entrusted by the Parliament to establish the new government, Ho Chi Minh declared the government's goal: "inside is to construct and outside is to utilize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In his call to United Nations in December 1946, Ho Chi Minh accused the French plot: "Kneading the Nam Ky Republic with a lackey and puppet government" and affirmed that the Vietnamese people "will fight until the final man in order to preserve the most sacred right: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independence for country".

In order to salvage a faint peace and avoid a war against the French, the Vietnamese government had endeavored to use diplomatic channel to negotiate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Yet, "the French colonialist policy always aimed at assimilation and domination of Vietnam instead of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country". The French policy was supported by the British and American governments.

The French, however, escalated the war. On 18 December 1946, General Morlière sent an ultimatum, demanding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dismiss its force and handle the control of Hanoi to the French troops. Having failed to solve the conflict with the French by peaceful dialogue, the Vietnamese people realized that military struggle was the only solution. Ho Chi Minh issued the *Call for National Struggle* in order to gain complete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In his letter to the people of Vietnam, France and Allied countries, Ho Chi Minh affirmed: "This struggle will be long and miserable. Even though we have to sacrifice our time and lives, we will fight until the country has been completely independent and unified".

The whole Vietnamese nation unanimously stood up to carry out a struggle self-reliantly,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1945-1949 when the DRV had not received international aid. The long-lasting and heroic struggle of the Vietnamese people triumphed gloriously with

the Dien Bien Phu victory on 7 May 1954. On 21 July 1954, the Geneva Accords were signed, recognizing the basic rights of Vietnam: independence, sovereignty, unification, and territorial integrity.

3. Re-establishment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Reunification in the 20-Year Anti-American Struggle (1954-1975)

The Geneva Accords on Indochina in 1954 did not divide the country into the two countries but temporarily split it into two regions along the 17th Parallel. The 17th Parallel was not a political and territorial border. According to the Geneva Accords, the French troops would withdraw to the south of the 17th Parallel and would return to France within two years. Vietnam would then be unified through a free nation-wide election. Ye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rom President Dwight Eisenhower to President Gerald Ford wanted to permanently divide Vietnam by turning southern Vietnam into an independent state which inclined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refore helped southern Vietnam to hold a separate election in order to create a dictatorial and fascist government.

According to Senator John Kennedy, the independent state established in southern Vietnam should be "the child of the United States". Both Eisenhower and Daley agreed that "if the nation-wide election is to be held immediately, it is very likely that Ho Chi Minh will win the election. Nevertheless, the two-year delay will offer the United States a 'good time' to prepare for reactions. Also, the presence of Canada in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Committees will also enable the United States to carry out its strategy". Even the loyalists to Ngo Dinh Diem were aware of the fact that "Ho Chi Minh's reputation is clearly a mishap for Diem during the national election". "The Eisenhower government insisted on turning Southern Vietnam to a country which will serve as a base to fight against the Communism and to prove the existence of "democracy" in Asia.

The United States founded the Saigon government and created all sorts of "evidences" in order to eliminate the Geneva Accords, thus, eliminated the nation-wide election and increased its interference in Vietnam with a variety of strategies. Since 1965, the United States poured troops into Vietnam and launched both air and navy attacks in northern Vietnam.

During the period 1954-1964, the Vietnamese fought against the American interference, aiming at peace and national reunification. During this period, the Vietnamese still received neither support nor aid from such important allies as the Soviets and China. Scholars are unanimous that: “despite the disagreement from the Soviets and China, Hanoi decided to go on in its own path”.

This historical fact proves that there was neither “assigned war” nor “ideological war” in Vietnam. Also, there was no such a thing as “northern invasion of the south”. In the contrary, there was only the American invasion of Vietnam and the Vietnamese anti-American struggle. This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the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both Europe and Asia.

In the year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Geneva Conference (1954), the Vietnamese people patiently honored the Geneva Accords in order to maintain peace for a national reunification. The agreement of the temporary division at the 17th Parallel did not mean “division for governance”. Ho Chi Minh affirmed that “Central, South and North are all Vietnamese territory. The country will certainly be unified. The Vietnamese nation will certainly be liberated”. He added that “the struggle to solidify peace, to unify the country, to gain complete national independence and democracy is also a long and hard struggle”.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s government unanimously declares that its utmost aim is to persistently honor the Geneva Accords, meaning that it will call for an immediate reconciliation con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fore carrying out a nation-wide election to unify the country”.

Nevertheless, backed by the United States’ interference, the Ngo Dinh Diem government increased its troop mobilization, suppressed all political powers in the South, denied the reconciliation conference with the DRV government, and eliminated the Geneva Accords in order to maintain the territorial division permanently.

Due to the racist policies promulgated by both American and Ngo Dinh Diem governments, from the late 1959 to early 1960, the Vietnamese people in the South began to stand up to dethrone the Ngo Dinh Diem governances in the rural areas. By late 1960,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was established, raising the banner of unifying all classes in the struggle against the American disguised colony and the Ngo Dinh Diem racist

government, aiming at an independent, democratic, peaceful, neutral South in order to eventually reunify the country.

After the Dong Khoi movement in the South, the Vietnamese people entered an increasing fierce liberation war, gradually defeated all military tactics which the United States applied in both southern and northern Vietnam.

In 1965, the United States escalated its invasion of Vietnam through the tactic of "Local War", pouring thousands of American and allied troops to southern Vietnam and commencing the air ad navy attacks of the North. "Anti-American invaders to salvage the country" then became the most sacred duty of the Vietnamese people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of Vietnam.

On 6 June 1969,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Revolutiona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Vietnam, in Southern Vietnam existed two governments, two armies, and three political forces (the Southern revolutionary force, the Republic of Vietnam force, and the intermediary (or the third) force).

The Vietnam War divided the United States greatly. Desperate attempts by President Richard Nixon in 1972 aiming at an upper-hand solution for Vietnam failed bitterly. In the daily increasing protest of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out the world he could do nothing. The United States forced Saigon to sign the Paris Accord in 1973 and, "to lessen the bitterness of the pill", Nixon promised Saigon that Washington would continue its support and would even "react with all possible forces" should Hanoi encroach the Accords. On the other hand, Nixon warned Saigon that if President Nguyen Van Thieu refused to sign the Paris Accords, the United States would immediately stop aids and sign the agreement by itself.

Because of their military defeats, the United States and Saigon government were forced to sign the Paris Accords on 27 January 1973, recognizing the national unification of Vietnam but still aiming at a long-term territorial schism. By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ad two options: 1). Honoring the Paris Accords for peac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an allied government including three forces in which one force would be under its control. The Saigon government, then, would no longer exist independently; 2). Humiliating the

Paris Accords to continue the war. Washington and Saigon went for the second option and eventually failed after the decisive battle in the spring of 1975. Many years after the war, the Vietnam syndrome is still there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debate whether the United States had won or lost in Vietnam as well as the causes of the bitter loss. The Saigon government which had been heavi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could not survive on its own and consequently collapsed. The strategy to divide Vietnam permanently sullenly failed.

With the general offensive and general uprising in the spring of 1975, the Vietnamese people have disintegrated the Saigon government and army, completed the national revenge for the disgrace of losing the country, eliminated the risk of lengthy territorial division, and reunified the country. By 1975, the 30-year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was completed with a glorious victory.

4. From Territorial to Administrative Reunification

George C. Herring, professor of history at Kentucky University and editor of the Journal of Foreign Affairs, ensures that "for Vietnam, the national unity is the dream of the whole people".

Right after the war ended, one of the first tasks of the Vietnamese people was to complete the unity of state machine building. National unity was the desire of the whole people, at the same time, an objective rule of the revolution and Vietnamese history.

From 15 to 21 October 1975, the unification conference between delegates from the North and South Vietnam in Sai Gon announced the Communique which confirmed that the State of Vietnam and the Nation of Vietnam is one; the State needed to unify the state machine; a general nationwide election according to democratic, equal, popular, direct and secret rules needed to be organized to elect the National Assembly.

On 25 April 1976, 98.77% of Vietnamese voters participated in the General Election (99.36% in the Nord and 98.39% in the South) and elected 492 deputations for National Assembly which comprised of all social classes, ethnicities, religions in an independent and united Vietnam.

The success of the General Election indicates the willingness of the whole Vietnamese people to build up an independent and united Vietnam. Vietnamese people had struggled to fulfill Ho Chi Minh's statement: "Our country will be united; North and South will be one home".

From 24 June to 3 July 1976, the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ession VI, had decided the name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capital of Hanoi, national flag with red ground, with a 5 wing-star in the middle, anthem is *Tin quân ca (Army March);* the national symbol entitled the nam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ài Gòn was changed to be Ho Chi Minh city; a committee was also set up to draft the Constitution; and elected leaders of the most essential positions of the country.

The unity of state machine institutionalized the unity of territory, which had been completed previously, created good conditions for uniting other fields. Associations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had also been united, including: Ho Chi Minh Youth (2 June 1976), Vietnam Trade Union (8 June 1976), Vietnam Woman Union (10 June 1976), Vietnam Journalist Association (7 July 1976), Vietnam Youth League (20 September 1976). Having completed the aims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country unity, Vietnamese people started to build up a peaceful, united, independent, democratic and healthy country. Step by step, Vietnam was then considered a trusty friend and partner of other countries, and strongly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5. Some historical experiences

Vietnam's unifying process had been taken place in different periods, sometimes woeful while other times heroic. Such a process required a huge sacrifice of the whole nation, of many consecutive generations who shared the same willingness about independence and unity for the country. Perhaps, no nation in this world had sacrificed as much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unity as Vietnam. The process of national unity in Vietnam was conditioned by historical contexts of Vietnam and this leaves us with rich historical experiences.

Firstly, in order to unify the country, we have heightened the national autonomy, determinedly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determinedly struggle against any invading and colonizing purposes.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and people division during modern period of history in Vietnam was mainly resulted from the invasion and colonization by the colonialism and imperialism, which lasted for centuries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1975), which imposed policies on Vietnam and divided the country. Therefore, the national unity often linked to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against the imposed and colonialist policies by the invading colonialism and imperialism. When realizing that the Second World War would end shortly, Ho Chi Minh had an immortal saying: "We must regain the country independence even though we have to burn the Truong Son mountain range". After the success of the August Revolution, in his historical Independent Statement, he ensured the strong willingness of the whole nation in protecting the country's independence with the iron will: "dying rather than losing the country and being slaves. The whole Vietnamese people used their all minds and strength, even the lives and resources to protect the country's independence as such".

The country unity was an internal task of the nation, decided by the people of each country, not by intervention from the outside. In order to unify the country, it must first have national independence, therefore must prevent any dividing forces from the outside. National independence is the first condition for unifying the country. The twentieth century has entered into the history of the human being as the century of world-wide de-colonization. Human enters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the appearance of terrorism. Numerous local-scale wars, armed conflicts, threats and army fights, in addition to imposed policies and tyranny. These are the reasons for international instability and insecurity.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 country's unity, people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 human cannot be without alert about expansionist and peace destructive forces.

Secondly, we must prolong the struggle for country unity by peaceful means, following the people's will and desire.

In the face of the invasive wars by the foreign imperial forces, Vietnamese government and people have determined to follow the view of humanity and peace, tried to use negotiation and diplomacy. The war was the final option, when there were no other ways to achieve peace.

The resistant war against the French and the United States was only launched when diplomatic way had failed. Vietnamese government had determined to follow the country unity through peaceful ways based on the will and desire of the people. This had been evidenced through the signing of a series of agreements. Vietnam-French Provisional Agreement (6 March 1946) noted clearly that: the country unific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eople through polls (however, the French beaked the agreement). The Geneva Accords in 1954 about Indochina regulated that the country unity will be conducted through a unifying general election within 2 years (but the USA and Saigon administration destroyed it). The Paris Agreement noted that: the question of Vietnam unity is self decided by the people in North and South regions (however, Saigon administration continued the war under the American aids).

After the winning the foreign invading enemies, the country unity had been completed by a peaceful general election (April 1976), meeting the desire and will of the Vietnamese people.

Thirdly, we must be determined with the country unity aim, while having suitable steps and re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peoples of the countries never choose to divide their country. National unity will many times strengthen the nation's strength, therefore often the aim of the Vietnamese people throughout the history of struggle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Vietnam is one country, Vietnamese nation is one. Rivers can be dried up, mountains can be eroded, but such idiom will never change". The aim of the 1945 August Revolution was to "regain peace, unity, freedom and democracy for the country". The aim of the resistant war against the French was "to protect and develop the victory of 1945 August Revolution; that is peace, unity, freedom and democracy". The aim of Vietnamese people after Geneva Accords in 1954 was also to "implement unity, complete independence and democracy for the whole count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unifying the country, one must have good strategies

and suitable steps. For Vietnam, such a process had taken place as follows:

1- Struggle to eliminate the foreign invasion, regain the independence for the North (1954) and the whole country (1975).

2- After having eliminated colonialism, the country became independent and united in terms of territory, and started to unify the state in the following fields

+ Organizing the political election between delegates in order to achieve the highest agreement and action as well as aims, plan and resolutions for the general election.

+ Organizing the general election on the basics of popular, direct and secret voting to create a National Assembly for the whole country, which represent all the people.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highest power institution of the state, which holds the power of legal making and most essential decision-making body of the country.

3- The sate unity enables the possibility to unify other sectors and areas such as: Constitution, legal system, currency unit, socio-economic policy, etc.

Vietnam is a nation which loves freedom and peace. For a long history to today, the Vietnamese people always desire to live in a peaceful, free, and united country. Since the early fifteenth century, after having destroying the Chinese Ming invaders to regain the country independence, Nguyen Trai, one of the very first founders of Le Dynasty, a cultural figure of the world, had called for “ending the war forever” in order for the people to enjoy peace.

It was also the desire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the Vietnamese people had to overcome numerous struggles against foreign invasions. History has taken place as such. We cannot re-create history. Yet, history has offered us expesive experiences for resolving many important issues of the world today and one of which is the question of peace and unity for the nations in this changing world.

Hanoi, June 2010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noi.

According to the legend, Lac Long Quan married Au Co. 100 children were born at a time of delivery. 50 of them followed Au Co to mountainous areas to earn living and the rest followed Lac Long Quan to the coastal areas. The oldest son was Hung King who had set up Van Lang. Hung was the first king in Vietnam and was the national ancestor.

Vietnam Communist Party: Complete Party Document, Volume 7,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114.

Ho Chi Minh: Complete, Volume 4,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176.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3,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217.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3,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Hanoi, 2000, p.217.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272.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369.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p.283-284.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427.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469.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4, p.484.

George C. Herring, p. 52-56.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7, pp.322-323.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8, p.57.

George C. Herring, p.327.

George C. Herring, p.10.

Ho Chi Minh: Completed, Volume 7, pp.337-339.

NOTES

2010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Lessons from the former divided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NOTES